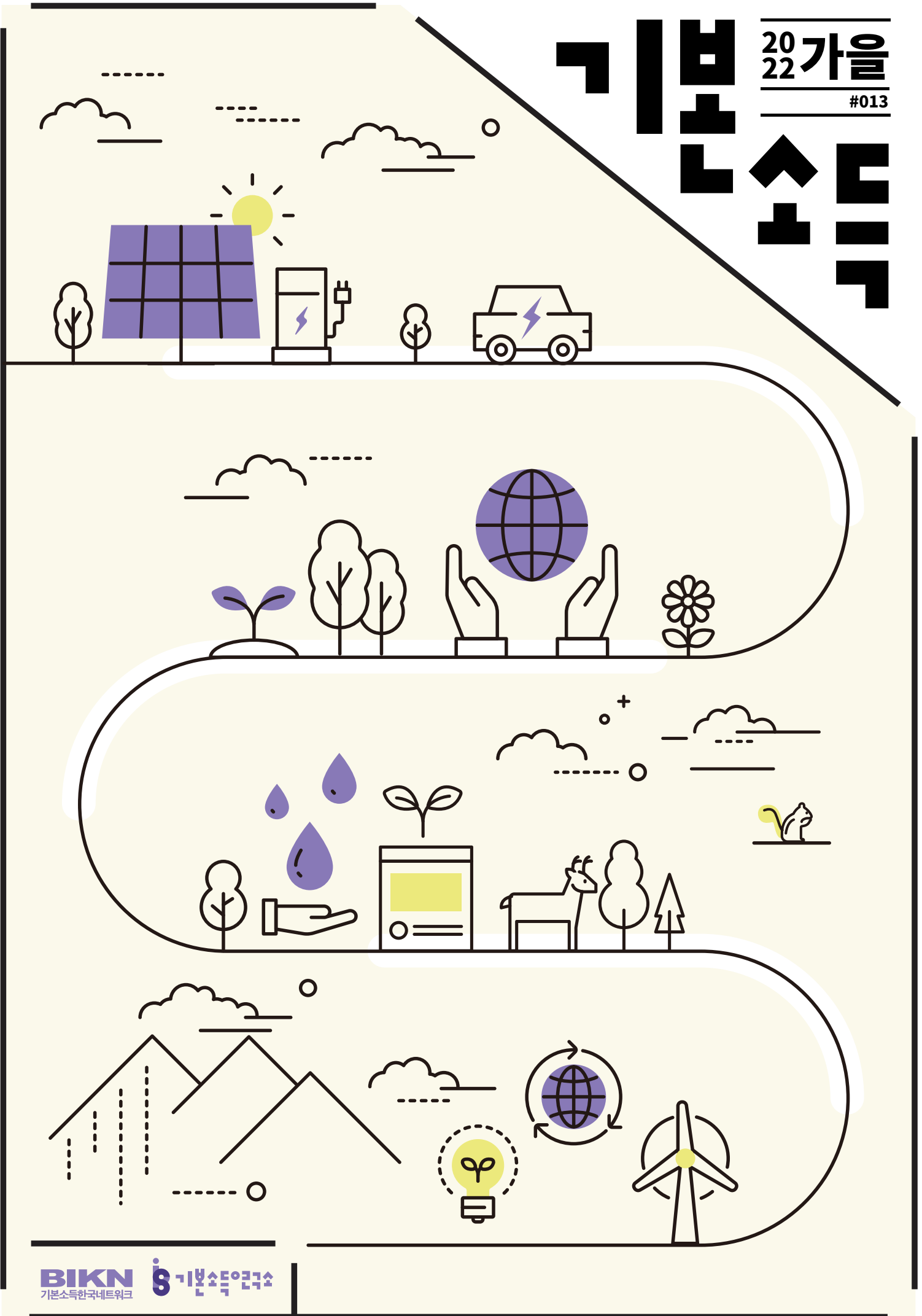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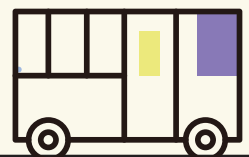


# 기본소득

2022 가을 #013



**Ba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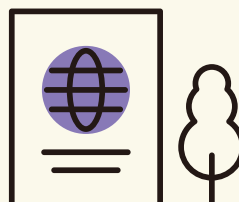
**Income**



**Magazine**



**Issue No.13**



## CONTENTS

<b>사진 속의 말</b>	<b>005</b>	지금 당장 _양희석
<b>머리글</b>	<b>006</b>	멀리 날기 위한 숨 고르기 _백승호
<b>이 계절의 이슈 1.:</b>	<b>009</b>	기본소득 운동의 또 다른 출발과 ‘헤어질 결심’ _류보선
기본소득 운동의	<b>016</b>	대선 이후 기본소득 운동은 어디로 _안효상
새 국면과 우리의 갈 길	<b>022</b>	기본소득의 새로운 시작, 무엇을 어떻게 _오준호
	<b>028</b>	기후위기 시대에 기본소득이 가야할 길 _백희원
	<b>033</b>	기본소득의 새로운 여정 _이원재
	<b>037</b>	전남 교육기본소득 도입 추진의 경위와 효과 _고두갑
<b>이 계절의 이슈 2.:</b>	<b>040</b>	내가 기본소득이 있는 세상을 원하는 이유 _박은영
미래인 우리가 미래를	<b>043</b>	청소년 페미니즘에서 기본소득 정치로 _양지혜
—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b>047</b>	넓고 거센 기본소득 파도를 만들자 _윤김진서
그리는 기본소득 세상	<b>050</b>	우리가 기본소득을 원하는 이유 _진형익
<b>논점:</b>	<b>054</b>	커먼즈 패러다임과 기본소득 _정남영
공유지론과 공유부 배당	<b>060</b>	공동자원의 섬 제주의 현실과 커먼즈운동의 전망 _정영신
기본소득		
<b>화제의 인물</b>	<b>063</b>	[문지영] “내 삶에서 튀어나온 기본소득, 이제는 정치의 장으로” _인터뷰어 한인정
<b>상상인터뷰 [파문]</b>	<b>069</b>	[박이은실] 지리산이 찾은 기본소득 _인터뷰어 한인정, 문지영/ 정리 류보선
<b>지상중계</b>	<b>086</b>	[이문재] 기 본 소 득 이 시 다 _인터뷰어 한인정, 장시정/ 정리 류보선

## CONTENTS

문학	107	[시] 도자기 필통과 옥수수 속대 빨뿌리 _ 김정환
	109	[시] 무보(舞譜) _ 박연준
	111	[단편] 비브라토, 비브라토 _ 이기호
	117	[산문] 하와이안 밥테일 오징어의 투명망토 _ 천운영
기본소득과 그 적들	121	기본소득을 주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까 _ 강남훈
동향	125	[동향] 2022년 기본소득 워크숍: 기본소득운동 평가와 방향 _ 박선미
	130	[국내동향/ 팔매통신] '100시간의 선물, 부산 청년기본소득 프로젝트' _ 한인정
	134	[학술동향] "서울시민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 내용 소개 및 평가 _ 이건민
함께 만들어가는 기본소득	144	기본소득은 여성의 해방에 기여할 수 있는가? _ 최유미
기본소득과 나	149	기본소득이 내게 주는 의미들 _ 이권능
	152	기본소득과 나 _ 최승호

# 지금 당장

양희석 사진작가



사진의 주인공은 얼굴에 ‘지금 당장’이라는 구호를 쓰고 피켓을 들고 행진했다.  
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부조리한 세상에 ‘지금 당장’ 구호 뒤에 붙을 말을 말은 무엇일까?  
언뜻 생각해 봐도 한두 개가 아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를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다를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본다.

만약에 나라면 ‘지금 당장’ 구호 뒤에 무엇을 쓸 것인가?  
당신에게도 권해보고 싶다. 당신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말이다.

<사진은 지난 9월 24일 진행된 기후정의 행진에서 찍은 것이다. 이 주인공이 피켓에 무엇을 썼는지는 상상에 맡긴다>

# 멀리 날기 위한 숨 고르기

백승호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장

여름호에서는 지난 대선 기간 기본소득 운동에 대한 평가를 기획으로 담았습니다. 이번 가을 호에서는 향후 기본소득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기획으로 담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을 주도해왔던 조직들과 실천가들의 많은 목소리를 담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몇 분의 이야기만을 담았습니다. 공통적인 의견은 숨 고르기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숨 고르기와 함께 보다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의 정당성, 필요성, 현실성을 과거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더 깊이 있는 수준에서 그리고 새로운 기후 체제 속에서 논구하는 일”,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기본소득으로 기본소득 운동의 주체들을 찾고 조직하기”, “홀로가 아니라 기후 위기 등 거대한 공통의 위기와 같이 가기”, “학생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 등 다양한 정책실험을 통해 그 가치를 분명히 드러내기” 등을 필자들은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소득 운동의 미래 방향은 지난 지방선거 출마 후보님들의 목소리를 담은 두 번째 기획 코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멀리 날기 위한 숨 고르기의 과정에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공유지, 공유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부터 논점 코너를 통해 공유지 운동 및 공유지 연구자들의 다양한 생각과 입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정남영 선생님은 커먼즈 패러다임, 커먼즈에서의 분배와 기본소득에 대해 다루어 주셨고, 가톨릭대학교의 정영신 교수님은 제주도 사례를 기반으로 커먼즈 운동의 현실과 전망을 짚어주셨습니다.

화제의 인물 코너에서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기본소득연구소가 창립 기획으로 제작한 야심작인 ‘파문’에 출연해주신 박이은실, 이문재 선생님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고,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 문지영 대표님의 삶과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호에도 계간 《기본소득》의 꽃인 문학 코너에서는 김정환, 박연준, 이기호, 천운영 선생님의 시와 산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 새롭게 세션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기본소득과 그 적들’ 세션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다룹니다. 이번 호에서

는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전 이사장님께서 ‘기본소득과 인플레이션’을 다루어 주셨습니다. 결론은 기본소득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형태로 도입될 수 있고,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디스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을 줄이거나 대응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향코너에서는 지난 여름에 있었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워크숍, 부산청년기본소득실험, 서울시의 안심소득 관련 토론회 소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기본소득 코너에서는 최유미(수유너머104) 선생님께서 ‘스위트 홈’을 태워버릴 ‘넙마, 가솔린, 성냥’으로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설파해주셨고, 기본소득과 나 코너에서는 충북연구원의 최승호 박사님과 정책연구소 함께 살기 이권능 소장님께서 당신들의 삶에서 기본소득의 의미를 말씀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BasicIncome Issue 1.

## [기획자의 말]

이번 호 <이 계절의 이슈 1>은 ‘기본소득 운동의 새 국면과 우리의 갈 길’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한데, 심상찮다. 연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고, 상상을 순식간에 무색하게 만드는 언어도단적 상황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벌어지고 있다. 역사적 퇴행도 이런 퇴행이 없다. 아마도 70년대 말 이후 한 살도 나이를 먹지 않은 듯한 윤석열의 일방적 독주, 그러니까 독재 탓일 것이다.

이런 역사적 퇴행으로 인해 기본소득 운동 전반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 10년 기본소득의 실현을 바라는 주체들의 목숨을 건 쟁투 덕분에 현실 속에 안착하기 직전이었던 기본소득은 세상의 관심 밖으로 떨어진 듯하다. 더 절망적인 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직면한 인류세적 재앙을 넘어서 그 어떤 대안에 대한 진지한 모색과 토론도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10년 동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결과가 위기적 상황이라는 현실을 우리를 맥빠지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어찌랴. 다시 출발하는 수밖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우리 앞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상한 것보다 더 높은 벽 앞에서 우리가 더 치열해지고 치밀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까지 너무 많이 한 일은 줄이고 그동안 거의 하지 않았던 일을 새로 발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위기 속에서 구원의 힘이 자라난다”고 말한 이는 휠더린이다. 하지만 위기라고 해서 저절로 구원의 힘이 자라나는 것은 아닐 터이다. 얼마 전 작고한 브뤼노 라투르가 ‘위기가 있는 곳에 돌파구도 있다’는 말을 두고 ‘몹시 악마적인 문장’이라고 말하며, 파국적 상황은 저절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성공’은, 그러니까 ‘구원의 힘’의 발명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우리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가 파국에 이를 것이라는, 아니 이미 파국적 상황에 임계해 있다는 절박함 속에서 온몸으로, 온몸으로 또 다른 길을 떠나는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온 힘을 짜내서 해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이 있다. 기본소득 운동의 새 국면, 그것도 이 위기적 국면에서도 지치지 않고 새로운 방향을 찾으려는 노력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힘든 일을 마다않고 지혜를 모아주신 류보선, 안효상, 오준호, 백희원, 이원재, 고두갑 제씨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덕분에 안개 너머 갈 길이 어렵듯이 보이는 것 같다.



## 기본소득 운동의 또 다른 출발과 ‘헤어질 결심’

\* 이 글은 지난 2022년 7월 8일과 9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워크숍 <2022년 기본소득 워크숍: 기본소득운동 평가와 방향>에서 발표된 글이다. 워크숍 분위기에 맞추어 작성된 글이기도 하고, 워크숍 때와 지금의 한국 사회가 또 달라 그 글을 그대로 수록하기에는 눈에 거슬리는 대목이 여러 군데 있어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하지만 글을 다 쓰고 보니 이도 저도 아닌 글이 된 느낌이다. 독자들의 해량을 구한다.

### 류보선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버티고 버티다가 넘어지긴 다 마찬가지야. 근데 넘어진다고 끝이 아니야. 그다음에 있어. 너도 KO를 당해 링 바닥에 누워 있어보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넘어져 있으면 조금 전이랑 공기가 달라졌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느껴져. 세상이 뒤로 쏙 물러나면서 나를 응원 하던 사람의 실망감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같은 기분이 들지. 그때 바로 바람이 불어와.

- 김연수, [난주의 바다 앞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감각이 필요하다. 새로운 바람은 새로운 감각을 불러온다. 그 감각을 통해 우리의 몸과 세계는 동시에 새로 태어난다.

- 김연수, [바얀자그에서 그가 본 것]

### 1. ‘꽃샘바람에 흔들려야 꽃은 꽃이다’<sup>1)</sup>

허심탄회한 자리여야 이 자리가 의미 있을 것이라고 혼자 가정하기로 한다. 그럴 작정이다. 오늘날은 전략전술 이런 것 묻지도 않고, 혹시 나

1) 류시화의 최근의 시집 『꽃샘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이다』에서 따온 제목이다.

의 한 마디가 기본소득 운동을 음해하는 말로 이용되지 않을까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허심탄회하게 말해볼까 한다. 아마도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모두는 혹시 나의 한 마디가 기본소득 도입에 누가 될까, 걸림돌이 될까 좌고우면, 우왕좌왕 지내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오늘이 아닌 거의 모든 다른 날에 그러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자리는 그래서 안된다. 때가 때 아닌가. 오늘 이 자리는 혹시 우리의 좌고우면이 기본소득 운동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 국면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까지 반성해야 하는 바로 그런 자리인 것이다. 그러니 오늘은 직필하기로 하자.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러려 한다.

허심탄회하려면 이것부터 밝히는 것이 좋겠다. ‘경알못’식으로 말하면 나는 ‘기알못’이다.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에 버젓이 이름을 올려놓고 뭘 말? 할 수도 있겠다. 이왕 허심탄회하기로 한 거 말해 버리자. 그런데도 나는 ‘기알못’이다. 부끄럽게도. 내가 내 스스로 ‘기알못’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아마도 이것이 핵심적인 이유일 터인데, 기본소득에 대한 나의 짧은 공부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사실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요인임에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모질게 말할 것일 수도 있는데, 기본소득의 개념, 기본소득 운동 전반, 그리고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의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의 울퉁불퉁함 때문이다. 어떤 때는 알 것 같다. 그러다가 어느 대목에선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다. 기본소득이 뭔지, 우리가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 올바른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을 너무 빨리 기본소득론자로 이끌기 위해 너무 많은 대목에서 거의 모든 사람의 눈치를 엿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연유로 때때로 기본소득의 원칙과 기본소득 준칙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아니면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어 진행되고 있는 현실 안에서의 기본소득 혹은 기본소득의 현실태에 대해서 일관된 원칙과 준칙 하에 응원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하여간 때가 때고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오늘은 그간 너무 많은 한 말 대신에 그간 거의 하지 않은 말을 해보려 한다.

## 2. 우리의 모두의 책임, 우리 모두의 반성

“타인을 죽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생명을 바치지 않고 팔짱 낀 채 보고만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죄라고 생각한다. ... 그러한 일이 벌어진 뒤에도 아직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죄가 되어 나를 뒤덮는다.”(야스퍼스)

때가 때인만큼 우리가 놓여 있는 자리, 우리의 세계내적 위치를 확인하는 일부터 해야 하리라. 얼마 전 기본소득 운동에 있어 획기적 사건이 될 수 있으리라 두 손 모아 기대했던 제 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졌다. 아니, 이기지 못했다. 저서는 안 되는 선거였고 질 수 없는 선거였다. 역사를 1980년 중

반쯤으로 되돌리겠다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던 상대 아니었던가. 게다가 선거 기간 내내 지기로 작정한 것처럼 어처구니없는 짓을 연일 반복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기지 못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베케트식으로 표현하자면, 멋지게 지지도 못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안되며, 거기서 더 나아가 기본소득같은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국민이 인지까지는 몰라도 감지하고 있었던 정치적 상황이었다. 게다가 트럼프 같은 지도자를 갖게 되면 전국민이 얼마나 개고생을 하는지 미리 경험하기도 한 터였다. 그런데 오랜 기간 기본소득론자를 자처하던 진보 진영의 후보는, 그래서 우리나라를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실행 국가로 비약시킬 것으로 잔뜩 기대하게 했던 후보는 도대체가 무엇이 무서운지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기는커녕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큰 그림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해서였으리라. 아니면 역풍이 두려웠을 수도 있으리라. 이유가 어떻든 우리는 전에 보지 못하던 선거를 치렀다. 나라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대통령 후보들이 정작 자신의 정책들을 몰래 감추고 때로는 그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그런 선거를. 그 결과 정책 대결 대신 서로의 추문을 물고 늘어지는 참담한 선거를. 그러나 이런 퇴행적인 선거라면 진보 진영이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저들이 누군가. 불법(적인) 선거의 달인들 아닌가. 아니면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그 어느 방법도 가리지 않는 자들 아닌가. 게다가 이번 상대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로 그 자리까지 올라온 추문 활용의 고수 아니던가.

결과적으로 최악의 선거였고 참담한 패배였다. 지고 나서는 더 참담했다. ‘부족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했지만 무엇이 부족했는지 진짜 누구에게 미안한지에 대해서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그 상태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임했고 역시 이기지 못했다. 비굴하게 졌다. 아니, 비굴해서, 졌다.

물론 ‘젼·잘·싸’라고 말하는 이도 있는 모양이다. 그럴 수 있다 싶다. 겉보기에는 역대 최소 표차로 졌으니. 또 졌어도 정치생명은 이어가야 하니. 게다가 그들은 철학자도 아니고 운동가도 아니며 정치인이므로. 따라서 그들은 실제로 ‘젼·잘·싸’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땃땃하게, 혹은 뻔뻔하게 ‘젼·잘·싸’라고 해야 하는 이들인 것이다.

좀 어이 없긴 하지만 정치인인 그들은 이렇게 이 상황을 건너가고 있다. 그렇다면 정권 쟁취가 목적이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의 실현을 꿈꾸는 우리들은 지난 선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 왜,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혁신 정책은 전혀 힘을 받지 못한 것일까. 우리가 뭘 너무 많이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 물론 우리의 반성과 성찰이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불평등, 불공정 등 우리 사회의 심각한 증상에 대해 대안은커녕 대책도 없이 오로지 능력주의의 강화를 통한 성장을 내걸었던 이가 대통령에 당선된 언어도단적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불평등 등 신자유주의적 모순이 폭발적으로 증폭될 윤석열 치하에서 기본소득 운동 등 혁신 정치 세력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점검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차대한 문제로 보인다. 그렇다. 문제는 항상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수렴된다.

### 3. 일보전진 이보후퇴, 그러나, 그러니, 더욱 더……

“항상 시도했고 항상 실패했다. 괜찮다. 다시 시도하라. 다시 실패하라. 더 낮게 실패하라!”

(사무엘 베케트)

지난 대선 시기 우리는 정말 죽자사자의 심정으로 대선 국면에 개입했다. 그 결과물이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이었다. 돌이켜보면, 그리고 돌이켜봐도 멋진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또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에서 그려낸 기본소득 사회를 향한 로드맵이 이제까지 나온 모든 기본소득을 향한 마스터플랜 중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이라고, 나는 지금도 믿는다.

여기까진 괜찮은, 심지어 멋진 시도였다. 하지만 그 다음은…? 영 짱이었다. 너무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 정정하자. 문제가 많았다. 오랜 기간 모여 이 멋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된 까닭인지, 우리는 제각각 흩어졌다. 누구는 이재명 캠프로, 누구는 오준호 캠프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 정책은 현실 정치와 결합될 때, 그것도 우리의 기본소득 로드맵에 보다 우호적인 정치 세력과 결합할 때 실현 가능할 것이므로.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쪽의 기본소득 플랜이 우리와 같았는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그렇지 않았다. 달랐다. 큰 차이까지는 아니라고 하자. 그래도 분명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도 각각 어느 쪽으로가 흩어져 갔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이름으로 우리와 다른 기본소득 로드맵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하고 논쟁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쪽으로 스며들었다. 한편에서는 열심히 우리의 로드맵이 가장 현실적인 로드맵임을 알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로드맵과 많이 다른 로드맵을 제시한 진영에 이름을 걸었다. 이 애매한 연대라니! 그러는 사이 오랜 기간 공들여 정밀하게 가공한 우리의 로드맵은 거의 공중분해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 각각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기본소득을 당장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정치와 연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나 자신까지를 포함하여 그래서는 안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와 생각한다. 싸웠어야 한다고. 물고 뜯었어야 한다고. ‘나한테 이래도 돼?’라고 할 정도로, 아예 정내미가 떨어질 정도로 치열하고 치밀하게 말이다.

아마도 멋지게 실패하기보다는 멋지게 성공하자는 욕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조금만 잘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실제로 그때는 그 순간이 곧 도래할 것 같기도 했던 것도 사실이다. 조금만 힘을 실어주면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기본소득이 구현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같이 들뜬 만한 순간도 있었다. 그 들뜸 때문에, 멋지게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공들여 마련한 로드맵을 제쳐두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렸다. 그리고 한때는 기본소득론자였으나 이번 선거 기간에서는 기본소득론자가 아니었던 그의 입만 바라보았다. 오로지 입만 바라보았다. 그의 모든 걸 버리고서라도 정권을 잡겠다는 탐욕의 눈빛도 동요의 찡그림도 외면한 채, 그의 입에서 제대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선거 기간 내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듯 기본소득을 부인했다. 부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냉철하게 거리를 두었다.

그런데도 그는 졌고, 그의 입에 큰 기대를 걸었던 우리는 뭐 좇던 뭇처럼 망연자실한 상태다. 그러나 어찌랴.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쓰러져도 일어나고 일어설 힘이 없어도 주먹을 불끈 쥐어야 하는 것은 이 질서 속에서 이런 식으로 통치되지 않겠다는, 더 나아가 내가 통치받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 그 세상에서 ‘복종하고 싶은 것에 복종하’는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한 ‘행복’을 누리려는 자들의 숙명이다. 다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차적으로 ‘이번엔 진짜로 멋지게 실패하겠다’는 태세 전환이다. 동시에 기존의 우리와 과감하게 헤어지고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하는지 근본적으로 되물어야 한다.

#### 4. 그토록 교활한 저들+우리, 그리고 좌파 포퓰리즘의 길

“아우슈비츠 이래로 서정시는 야만이다.”(아도르노)

만약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뛰어야 할 로도스는 너무나 명확하다. 그간 너무 많이 해 왔던 일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그간 거의 하지 않았던 일의 세목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나는 믿는 편이다. 바로 위의 아도르노의 말. 위의 아도르노의 말은 아우슈비츠로 이후 인간은 서정시를 쓸 수 없을 정도로 야만적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인간 모두가 더 이상 진정한 주체일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마당에 서정시를 고집하는 것은 야만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여기까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아도르노는 이 말 속에 한 가지를 더 함축해놓고 있어 특징적이다. 아우슈비츠를 현실태로 만든 야만의 적들 속에서 단순히 서정시를 반복하는 것은 그것은 야만에 적대적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야만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의미. 이제 더 이상 적은 열린 사회를 노골적으로 폭력적으로 가로막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 아니다. 모든 대안과 비판을 허용하며 야만을 유지하는 ‘열려 있는 척하는 적들’이다. 이 적들이 지배하는 사회 속의 개인은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냉소적 주체가 된다. 그들은 어떤 이데올로기에 세뇌되어 혹은 속아 아우슈비츠라는 폭력에 동원된 것이 아니다.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혼자 잘난 체하면 손해다라는 계산 속에서 아우슈비츠의 만행에 동참한 이들이다. 우리 사회는? 우리도 이렇다. 우리는 열린 듯 굳건하게 닫혀 있는 신자유주의 세상 속에서 냉소적 주체들을 설득 혹은 설복시켜 기본소득 세상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이제 단순한 서정시여서는 안된다. 다양하고 다각적이며 다면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감행해야 할 지적 모험이 여럿 있지만, 내가 보기엔 그중 시급한 것이 몇 가지 있다. 다음이다.

하나, 기본소득 개념의 재정립. 고백하자. 기본소득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기본소득에 매료된 것은, 물론 이 경험이 현혹인지 진리와의 찰라적 조우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기본소득이 ‘생산의 공공성과 소유의 사적 성격’이라는 불평등 혹은 (인류세적) 착취 구조를 혁신 혹은 혁파하고 분배의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동시에 자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에 의해 억압되고 폐제된 증여와 나눔의 마음을 귀환시킬 수 있는 최적의 제도라 보였기 때문이었다. 한데 현재의 기본소득 개념은, 내가 보기에, 견어들인 세금을 어떻게 정의롭게 분배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 대해 혹은 그것의 윤리성과 도덕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인색하다. 내가 보기엔 기본소득은 공유부에 대한 모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생산의 공공성과 소유의 (비대칭적, 독과점적) 사적 성격’인 이 시대에서 인간 모두가 윤리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 선한 상상력을 경험으로 ‘생산의 공공성과 소유의 (비대칭적, 독과점적) 사적 성격’인 자본주의 체제를 균열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이기도 하다. 기본소득의 개념, 혹은 기본소득의 역사적 가치를 논하면서 이 부분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더불어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가장 정의롭게 분배하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가장 정의롭게 분배하는’ 황금률을 발명하는 것도 시급해 보인다.

하나, 또 다른 기본소득 실험의 발명과 기존 실험에 대한 엄정한 평가. 내가 보기에 기본소득의 가치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것 중의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기본소득 실험이다. 기본소득 실험이 반복될수록, 그리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를 더 많이 이야기하면 할수록 기본소득의 가치는 반감되고 반론은 커진다. 내가 느끼기엔 그렇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의 기본소득 실험(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이 주로 분배의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까닭이다. 기본소득의 정신에 맞게 재원을 확보하는 실험도 동시에 해야 할 때가 아닐까. 그 실험 속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때, 기본소득은 단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구의 인류세적 위기를 넘어서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곧 대안으로 자리할 수 있는 것 아닐까. 냉소적 주체의 계산을 뚫고 그들의 마음 속에, 열려 있는 척하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굳건하게.

하나,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헤어져야 할 것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그것을 결단 혹은 결행하는 것이다. 아마도 기본소득을 동조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간 우리는 너무 쉽게 연대하려고만 했다. 그것이 어떤 형태건 기본소득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면 우호적인 시선을 보냈고 연대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기본소득을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는 강박과 그에 따른 연대가, 내가 보기엔, 기본소득의 개념과 가치를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축소시켜 왔다. 이젠 레닌의 뒤를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물론 레닌주의로 가자는 말이 아니다. 소수파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바람직성 때문에 곧 다수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볼세비키를 자처했던 그 레닌을 좇아 자구구 니주의字句拘泥主義적 기본소득론과 결별해야 하는 것 아닐까.

## 5. 선의 제도화, 혹은 생태적 상상력의 제도화, 혹은 증여와 보살핌과 돌봄의 제도화와 기본소득

김애란이라는 작가가 있다. 한때 어느 글에선가 ‘선의 상상력’에 대한 말한 적이 있다. 이 악다귀같은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한때 인간의 것이었으나 이제는 잃어버린,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 철저히 억압되고 있는 ‘선한 마음’을 복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취지의 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인문학자인 나는 지금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선의 상상력’이 아닐까 할 때가 많다. 아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현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쓸모없는 실존’으로 격하되어 세상 저편으로, 그리고 인간의 기억의 저편으로 밀려난 생태적 상상력, 증여, 보살핌, 돌봄, 나눔, 게으름, 신명, 마을공동체를 다시 귀환시키는 것이라고. 그것도 아니면 브뤼노 라투르의 말처럼 ‘지구 차원의 거주가능성’을 사유의 중심에 놓는 일종의 사상적 전회가 필요한 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을 귀환시키고 복원할 때만 그 어떤 제도도 그 원래의 목적에 맞게 작동할 수 있다고도 믿는 편이다.

내가 기본소득에 큰 기대를 거는 이유는 기본소득이 인간에게 희미하게 남아 있는 이 선한 상상력 등등 무의적으로 귀환하여 촉발시킨 제도라고 믿는 까닭이며 동시에 기본소득이 실행되면 역으로 인류 전체가 오랫동안 잃어버린 ‘선의 상상력’ 등을 회복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믿는 때문이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본소득 개념을 재정립할 때도, 기본소득 운동의 방향을 재설정할 때도, 그것은 인간의 ‘선의 상상력’ 등과 결합되어야 하며 그 ‘선한 마음’ 등을 복원시킬 때만 기본소득은 우리가 희망하는 기본소득일 수 있다는 점을.

## 대선 이후 기본소득 운동은 어디로

###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  
워크 이사장

지난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시간은 열광과 기대, 냉소와 절망이 교차하고 중첩되어 있던 때였다 물론 우리는 한사코 우리 앞에 놓인 사건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고, 소극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았다. 우리는 기본소득 정책이 당장 실현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공적인 길을 가기 원했다. 그리고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깊이 있는 논의의 바다에 빠지고, 폭넓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위치에 가기를 원했다.

하지만 지난 대선의 결과는 다 알고 있듯이 반대 방향으로 가기를 강요하는 듯이 보인다. 1차적으로 어느 수준이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후보의 패배 때문이며, 현실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구호 이외에는 그 어떤 정책 방향도 철학도 없는 정권의 탄생 때문이다. (이 정권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여전히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은 논외로 하자.) 게다가 대선 이후의 정치적 풍경은 공동체의 미래를 향한 논투가 아니라 비판 이하에 있는 것들을 둘러싼 지루한 진실 공방 그리고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말 그대로의 투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속에서 당연히 기본소득과 같은 의제는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풍경 바깥으로 밀려나 있다.

이런 정치적 폐허 속에서 여전히 기본소득 운동이라는 게 가능하면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 기본소득 운동의 경로

한국에서 기본소득 운동은 십여 년 전에 일종의 의제 운동으로 시작했다. 새로운 진보적 전망으로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구를 심화하고, 제도와 정책으로서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설계안을 만들었다. 또한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를 위한 중심 기관이자 망으로서의 역할을 한 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이다.

2014~2015년이 지나면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회원 조직으로 형태를 변경하는 한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BIEN Congress를 개최할 준비를 했다. 또한 ‘민주 진영’의 진보적 정치인과 정책 협력을 통해 현실에서 가능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런 시도와 노력은 정치적 일정과 사건에 의해 호흡이 가빠지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기본소득 의제가 부상하는 과정은 점진적이었다. 무엇보다 무조건성을 고유한 특징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그만큼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아이디어였다. 물론 특히 경제적, 기술적 변화에 따라 우리가 목도한 현실, 즉 관찮은 일자리의 부족과 그 경향이 기본소득 아이디어 수용에 우호적인 배경을 이루긴 했지만, 이 또한 두 가지 난점이 있었다. 하나는 모두에게 물질적 보장을 하는 기본소득이 새로운 주체성을 형성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저 소득을 위한 일자리가 없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너무 단순하거나 퇴행적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무조건성과 맞물려 있는 것인데, 기존의 지배적인 패러다임 안에서 좀 더 받아들여지기 쉬운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쉽다는 것은 아니다) 다른 정책들과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 했다는 것이다.

점진성은 기본소득이 하나의 정책일 수 있기 때문에도 나타났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이 포괄적인 사회적, 생태적 변화의 주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과 달라질 것이라고 상상하고 기대한다.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소득 보장 정책의 하나로 보이고, 이런 점에서 작은 정책이나 실험으로 외삽될 수 있다. 이런 면이 제도적,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청년배당/ 청년 기본소득 등으로 기본소득의 실질적인 여행이 시작될 수 있었다.

의제 운동으로 출발한 기본소득 운동이 점진적인 확산의 시도를 거듭하고, 실현의 고리를 잡으면서 하나의 궤도가 만들어졌다. 그것은 한국 정치에서 포퓰리즘의 계기인 대선을 하나의 분수령으로 삼는 것이다. 이는 상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역사적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장기적 배경으로 하고, 87년 체제를 제도적 틀로 하는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보적 변화를 위한 (물론 반대로 이를 막으려 하는) 폭발적 계기가 되었다.

기본소득 운동과 같은 의제 운동은 특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는 기본소득 의제가 가진 고유한 난점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주체의 부재이다. 구 사회운동은 계급 혹은 민족이라는 주체의 움직임이자 주체의 형성이었고, 신 사회운동조차 주체 혹은 당사자라는 틀을 넘어서 수 없었다. 여기서 문제는 기본소득의 주체는 어디에 있으며, 그것은 어떻게 형성되는가이다. 기본소득이 보편적인 것이라

면 모두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기본소득이 공유부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는 모두의 공통성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는 공유자라 불릴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무엇으로 호명할 것인가? 현실에서는 시민[국민] 혹은 대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 이외에 다른 이름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 운동은 포퓰리즘적 계기로서의 대통령 선거를 이용하거나 대통령 선거를 포퓰리즘 계기로 만들어야 했다. 그런데 한국에서 포퓰리즘의 인격은 강고한 양당 체제 밖에서 만들어지기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 포퓰리즘적 계기는 겉모습과 달리 그리 폭발적이지도 급진적이지도 않게 된다. 도리어 뻘쭙해지는 것은 진영 사이의 대결이다. 그러니 이 속에서 어떤 의제가 가진 급진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의제 자체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한 것이 이런 일이었다. 의제는 점점 경기장에서 밀려나고 의제의 급진성을 둘러싼 논의도 함께 사라진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로드맵이 후자를 살려내기 위한 준거점 마련이었다면, 기본소득당의 대선 참여는 경기장의 경계선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였다.

### 기본소득의 포퓰리즘적 계기와 난점

출발선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대선을 거친 현재의 기본소득 운동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을 최저임금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던 시절 소규모 서클로 기본소득 의제 운동이 출발했던 것을 기준선으로 잡으면 기본소득 운동은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제적으로 언급되던 질문이자 희망, 즉 “한국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수 있는가?”를 떠올리면 커다란 좌절과 패배를 맛보았다고 할 수 있다.

앞 부분에서 기본소득 운동의 궤적에 대해 말한 것은 현재의 좌절과 패배를 가리거나 회색하기 위한 게 아니다. 도리어 이번의 좌절과 패배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한 조건이다. 후일 회고적으로 볼 때 작기는 하겠지만 기본소득 운동의 출발에서 이번 대선까지는 하나의 순환으로 볼 수 있다. 이 순환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때 패배는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더 나은 패배가 될 것이다.

우선 앞서 말한 것처럼 의제 운동으로서의 기본소득 운동은 제도 정치 내에서 정치적 인격과 통로를 찾았고, 그 덕분에,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얻을 수 없었던 커다란 진전을 이루어냈다.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위기 속에서 제안된 재난 기본소득도 중요한 계기이긴 했지만 영향력 있는 정치가가 기본소득을 자신의 주요 정책으로 실현해가려고 했고, 또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기본소득 의제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기본소득 의제가 이런 방식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기반이 단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구멍이 있었다. 우선 제도화된 정당과 대통령 선거는 고유한 구조와 동학이 있다는 점에서 출발해야겠다.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아무리 포퓰리즘적 계기라 하더라도 대표 인격인 후보의 카리스마는 카리스마(신의 은총)라는 말과 달리 현실의 세력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대표 인격이 내세

운 정책이 진정성 있게 전체의 정책으로 전환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이는 전략이나 전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른바 다수를 획득하기 위해 중도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말일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급진적 혹은 진보적이라고 보이는 것을 후퇴시켜야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어쨌든 이재명 캠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점을 지적해두자. 게다가 선거가 진공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난 정권에 대한 평가가 주요한 변수(패러미터)가 되어 벌어지는 일이라는 점도 확인해두자. 이 속에서 2022년 대선은 바람과 달리 ‘기본소득 대선’이 되지 못했다.

기본소득 의제가 단단한 기반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한편으로 기본소득 운동의 처지를 반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앞서 말한 기본소득 의제에서 주체의 부재라는 난점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이는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물론 이재명 후보 및 캠프가 기본소득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 기본소득 운동이 좀 더 날카롭게 비판했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관망하는 태도를 취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어느 수준에서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어쨌든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이라고, 앞서 말한 것처럼 기본소득이 공적인 길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물론 양당 체제에서 다른 쪽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의제 자체가 실종된 선거판에서 어떤 의제의 진정성을 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회의 때문이다. 만약 다음 번 포퓰리즘적 계기 속에서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될지는 여전히 미정이다.

대선이 지나면서 기본소득의 밀물이 빠지고 갯벌이 드러났다. 폐허가 아닌 갯벌은 다행스럽게도 생명의 보고이다. 작지만 다양한 삶들이 꾸려지고 있다. 기본소득 의제, 정책,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이다. 대선은 허망하고 안타깝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부터 뿌려진 씨앗이 모두 싹을 틔우지 못한 것은 아니다. 아마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두 번째 순환은 더 나은 실패 위에 있게 된다.

## 기본소득의 일반화

기본소득 의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토픽이 있다. 정당성, 필요성, 현실성이 그것이다. 정당성은 왜 모두가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어떤 권리인가를 논하는 것이다. 필요성은 어떤 변화가, 어떤 미래가 모두에게 고용 노동과 무관한 소득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일이다. 현실성은 사회 전체적으로 일정한 부를 이런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이 지속가능한지를 따져보는 일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소득을 창출하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단순한 논리에 기초해서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필요성은 언제나 대안적

인 정책에 가로막히거나 희석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일찍부터 기본소득의 정당성 문제에 천착했고, 잠정적 결론은 모두의 것인 공유부에 대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몫의 분배가 기본소득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는 근대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인 노동-소유 패러다임의 전제, 즉 태초에 공유가 있었다는 것에 출발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과녁을 세운 셈이다. 다만 공유가 태초의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잊혀졌고, 이런 면에서 기본소득은 낯선 아이디어처럼 보일 뿐이다.

공유부의 분배라는 것에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찾을 경우 현실성의 문제도 사실은 해결된다. 모든 사회는 공유부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현실성 문제는 경제학적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갈등의 문제가 될 것이다.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정당성 문제가 떠오른다. 물론 공유부에 대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몫이라는 논변만이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아닐 수 있다. 모든 시민이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적 보장 혹은 자유의 사전 분배라는 민주적 공화주의의 논변이 있으며, '실질적 자유'라는 논변도 있다. 이는 정치적 논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은 정치경제학 비판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생산과 분배 형태를 문제삼고 사실은 모두의 것이지만 일부에게 귀속되는 부를 해명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기본소득의 현실성 문제를 해명하는 일이 된다.

여기까지는 기본소득 운동 초창기에 천착했던 문제를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혹은 좀 더 깊은 수준에서 반복하는 일이 된다. 하지만 한 가지 차원이 더 있다. 새로운 기후 체제 속에서 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후 체제가 기존의 정치 자체를 완전히 무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강하게 규정하고, 굴절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기본소득이 근대적 의미의 해방 그리고 이의 기초인 경제적 할당에만 머문다면 미래를 말하는 프로젝트이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기본소득은 일찍부터 생태친화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모두에게 물질적 보장이 가능하다면 기존의 소득 보장 방식인 (완전) 고용에 대한 집착 및 이를 가능케 하는 성장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는 더 풍요로우면서도 환경에 부담이 덜 가는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후 정의' 운동은 이 차원을 뛰어넘고 있다. 우리는 당장 새로운 기후 체제에 적응하고, 부정적 변화를 완화시켜야 하며, 그것도 모든 존재에게 정의로운 방식이어야 한다. 물론 기후 정의를 위한 목표 및 필요한 여러 방도는 이미 제출되어 있다. 우리가 할 일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이라는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는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이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고 필요한 방도를 구현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입증하는 일이다. 이를 우리는 기본소득의 일반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다음 번 포퓰리즘적 계기를 향해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진지전을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소

득의 정당성, 필요성, 현실성을 과거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더 깊이 있는 수준에서 그리고 새로운 기후 체제 속에서 논구하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진지전<sup>war of position</sup>이다. 하지만 진지는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그것도 다층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원래의 의미와 다르지만 진지전에도 운동전[기동전]<sup>war of manoeuver/movement</sup>의 요소가 들어 있다. 우리의 운동전은 다양한 힘들과 연결하고, 모두에게 잠재해 있는 공유자성을 끌어내는 일이 된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다음 번 포퓰리즘적 계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위기보다 더 큰 위기와 함께 훨씬 폭발적일 것이다. 물론 그 시간 속에 기본소득 의제가 있을 것인가, 있다면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등은 순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을 것이다.

## 기본소득의 새로운 시작, 무엇을 어떻게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기본소득한국네트  
워크 운영위원

기본소득의 새로운 시작.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로 출마하며 낸 슬로건이다. 새롭다는 말이 제일 진부하다 해도 어찌겠는가. 기본소득운동과 기본소득당 모두 성찰과 혁신이 필요한 때다.

지난 8월 기본소득당은 3기 대표단 선거를 치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상임대표에, 내가 공동대표에 선출됐다. 대표단 선거 과정에서 전국을 순회하며 당원들과 만났다. 질문이 쏟아졌다. 어떤 질문은 센 강 속구라 글로브를 꺾어도 손이 아팠다.

“총선에서 승리할 전략은 무엇인가?”

“당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바꿀 때인가?”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가라앉았는데 이를 돌파할 당의 계획은 무엇인가?”

“기본소득운동의 주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대표단의 가장 큰 과제는 2024년 4월 총선에 대응할 전략을 세우고 성과를 내는 것이다. 조건은 만만하지 않다. 기본소득당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돌파하였지만 지지율과 인지도가 여전히 낮다. 한편 기본소득당이 창당, 원내진입, 기본소득 입법 추진 등 정치적 성과를 낸 시기는 기본소득의 대중적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였으나(코로나 초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그 정점이었다), 현재 기본소득의 관심도 지지도 한풀 꺾였다.

이 상황은 기본소득당의 행보 선택 폭을 좁힌다.

‘기본소득의 방향’에 대해 청탁받은 이 글을 기본소득당의 고민과 계획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점 독자의 양해를 구한다. 기본소득운동 전체의 방향을 조망하려면 ‘산 위에’ 올라가야겠으나, ‘산 밑’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는 고민을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고민을 재료로 집단지성들이 기본소득운동의 진로를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 글은 기본소득당 대표단 선거 중 받은 질문에 대표단 후보들이 답변한 내용에 선거 후 내 고민을 덧붙여 구성했다. 세 가지 큰 질문에 답하면서 기본소득당과 기본소득운동의 방향을 같이 밝혀보겠다.

### 총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본소득당은 내년 상반기에 총선 준비 티에프를 구성하고 선거 기조, 정책, 연대·연합전술, 출마자 등을 하나씩 확정할 계획이다. 원내정당으로서 목표는 당연히 의회 재진입이다. 그러나 총선 전망이 밝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인지도, 조직력, 기본소득의 대중적 관심 등 어느 것도 낙관적이지 않다.

기본소득당 대표단은 이 약점을 보완할 방법을 치열하게 찾을 것이다. 그것과 별개로, 보다 장기적 시야에서 총선의 의미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당은 총선 이후 어떤 정당이 되고자 하는가? 나는 기본소득당이 총선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대중정당으로 성장하기 바란다. ‘기본소득’ 단일의제정당에서 포괄의제정당으로 발전적으로 전환하기 바란다. 총선 이후를 내다보며 당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서 총선 전술을 수립해야 한다. 미래의 숲을 상상하면서 지금 심을 나무를 정하자는 얘기다.

당명 개정에 관한 질문 역시 총선 계획과 관련한 것이다. 단일의제정당을 드러내는 당명이 총선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얘기다. 나는 ‘기본소득당’ 당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본소득당 당명은 하나의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을 내세운 단일의제정당이자 원내정당은 기본소득당이 처음인 만큼 그 이름은 중요한 정치적 상징이다. 어렵게 형성한 브랜드는 함부로 바뀌서는 안 된다. 기본소득당이 포괄의제정당이자 대중정당으로 충분히 성장한 시점에 당명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 그 전엔 기본소득 정치의 상징인 현 당명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당이 총선을 거쳐 대중정당으로 성장하자는 계획은 선거를 반드시 단독으로 치른다는 뜻은 아니다.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개인 및 세력과 함께 열린 선거연대, 선거연합을 추진할 것이다. “총선을 기본소득운동이 함께 승리하는 무대로 만들겠다”라고 대표단이 밝힌 포부는 진심이다. 선거연대는 낮은 수준에서는 기본소득당을 플랫폼으로 하여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출마하는 것부터, 높은 수준에서는 ‘기본소득 선거연합’을 구성하는 것도 있다. 국회 정치제도개혁 논의에 기본소득운동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봉쇄조항(비례의원 배출을 위한 최소득표비율)을 낮추고 의원 총수를 늘리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 논의 향배에 따라 기본소득 선거연합에 유



리한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기본소득당이 기본소득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방식도 혁신해야 한다. 지난 대통령선거에 당은 ‘기본소득 월 65만원’과 같이 구체적 급여액을 전면내 내걸었다. 소수당으로서 기본소득을 효과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허경영 후보가 나타나 허황한 액수를 마구 던지면서 우리의 기본소득 공약이 함께 희화화돼버렸다. “허경영은 1억 준다는데 너흰 65만원이 뭐냐?” 같은 식으로. 씁쓸하지만, 기본소득을 급여액 중심으로 선전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일도 생겼다.

기본소득당은 다음 총선에서 “얼마를 주겠다”를 넘어, 기본소득 있는 정치공동체의 청사진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나는 청사진의 핵심은 기본소득을 통한 생산체제와 분배체제의 전면 혁신 그리고 선순환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기본소득은 단지 분배정책의 하나, 현금복지의 하나일 수 없다. 나는 기본소득이 기후변화, 일자리 변화, 산업 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 난제들을 해결하는 ‘열쇠’일 거라고 믿는다. 각각의 문제마다 대응 정책이 필요하지만 기본소득과 연결할 때 전체 회로에 불이 반짝 하고 들어온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해서, 기본소득이야말로 더 민주적이고 더 생태적인 정치공동체 수립의 핵심 수단이자 필수 경로임을 설득할 것이다.

## 기본소득 썰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기본소득당은 크게 두 방향으로 활동계획을 세웠다. 첫째, 윤석열 정권에 맞선 민생투쟁과 민주주의투쟁을 통해 ‘대안야당’으로서 인지도를 높이겠다. 그동안 과감하고 참신한 의정활동을 벌여온 용혜인 상임대표가 이 활동을 이끌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최근 횡재세 법안을 발의하고 ‘대기업 초과이익 환수’라는 급진적 담론을 주도하고 있다.

횡재세는 영어로 ‘윈드폴 텍스(windfall tax)’다. 윈드폴, 곧 바람 불어 나무에서 떨어진 과일을 우연히 지나가다 주었다면 횡재한 것이다. 그 과일을 혼자 차지할 권리가 있을까?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으로 유가가 폭등했고 서민은 고통을 겪었는데 정유사는 엄청난 초과이익을 얻었다. 한국 정유사 영업이익이 올 상반기에만 14조가 넘었다. 정부는 유류세를 법정한도까지 인하해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려 했는데, 유류세 인하분에서 가격 인하에 반영된 건 40% 정도라는 게 용혜인 의원 분석이다. 과점시장에서 정유사의 가격 결정력은 막강하기에, 정유사의 초과이익은 혁신과는 무관한 ‘폭리’에 가깝다. 용혜인 의원의 횡재세 법안은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을 특별 과세해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에 쓰자는 내용이다.

9월 20일 유엔총회에서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가 불타고 가계부가 쪼그라드는데 석유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어 수익 달러 횡재이익을 올리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석유산업에 대한 횡재세금 부과를 선진국 정부에 권고했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횡재세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논의한다. 영국은 석유산업에 25% 초과이익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본소득당의 횡재세 법안



에 정유사들이 집단 반발하지만 여론은 법안에 꽤 우호적이다. 명분과 기획을 잘 결합하면 윤석열 정부 감세정치에 증세정치로 맞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의정활동이 축적될수록 기본소득당의 인지도도 높아질 수 있다.

둘째, 기본소득 논의를 혁신하고 기본소득 공론장을 확대하겠다. 특히, 사회의 진보적 의제들이 기본소득운동이 연결되어 있으며 진보적 의제의 실현에 기본소득이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적극적으로 밝힐 것이다.

‘기후정의×기본소득’이 좋은 사례다. 올해 9.24 기후정의행진에 기본소득당도 적극 참가했는데, 나는 행진을 앞두고 언론에 “기후정의, 기본소득과 만나자”라는 칼럼을 기고했다(경향신문. 9.22.) 기후정의운동과 기본소득운동이 함께 가야하는 이유를 밝히고, 기후정의운동 일각의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에 답하는 내용이다. 기후정의운동은 온실가스만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지 않는 자본주의 체제를 문제 삼는다. ‘체제 전환’이 기후정의운동의 목표인 이유다. 기본소득운동은 지구라는 공유부의 권리가 모두에게 있다는 철학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성장은 공유부를 포획하고 사유화해온 역사이며 기후변화는 그 결과다. 이 지점에서 기본소득의 공유부 철학과 기후정의의 문제의식이 연결된다.

기본소득이 분배 영역의 문제점만 교정할 뿐 생산 영역의 불평등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신이 시지프에게 멈출 수 없는 바위 굴리기를 명하듯 자본주의 생산권력은 우리에게 체제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많이 더 오래 일하라고 강요한다. 기본소득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노동 의존을 감소시킬 수단이며, 이를 통해 자본주의 생산권력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 권력에 대항하는 집단적 협상력을 키운다. 자본주의적 생산 외부에 비자본주의적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도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더 늘어난다. 기본소득당은 ‘기후정의×기본소득’이란 제목으로 거리연설회를 하고 그 구호를 외치며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다. 기본소득과 탄소세를 결합하면 기후변화의 효과적 대응수단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진보적 의제 - 기후정의, 정치개혁, 산업전환, 젠더평등 - 와 관련하여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밝히는 것은 기본소득 공론장을 확대하는 효과적 방법이다. 물론 여러 기본소득 연구자들이 이러한 시도를 앞서서 했다. 기본소득당은 연구자들이 제시한 담론을 발전시키며 참신한 정치기획을 더하려고 한다. 그리고 기본소득당 기관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기관지를 통해 주요 사회의제에 대한 기본소득당과 기본소득운동의 입장을 대중에게 전파할 것이다. 기본소득당 창당 3주년인 내년 1월에 그 첫 호를 발간하는 것이 목표다.

### 기본소득운동 주체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운동의 주체를 조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기본소득운동의 주체’가 누

군지 규명하기란 사실 쉽지 않다. 프리카리아트, 곧 불안정노동과 실업을 반복하는 집단 또는 계급이 기본소득운동 주체일 거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그들을 주체화하는 경로는 여전히 잘 찾기 어렵다. 그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다른 접근 방식도 시도해야 한다.

그러한 시도로, 기본소득당은 올 하반기에 ‘대학생 소셜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1기 소셜투어의 제목은 ‘기후위기로부터 배우는 여행’이다. 소셜투어란 청년들과 함께 사회의제 관련 현장을 방문하며 체험하고 배우자는 취지의 기획이다. 청년들은 서울 구릉마을을 방문해 기후재난 피해자들과 만나고, 쓰레기소각장을 방문해 코로나 시기 늘어난 쓰레기 실태와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을 살핀다. 탄소세 및 탄소세 기본소득 정책을 공부하고 이를 주변에 알리는 캠페인도 프로그램의 일부다. 20대 청년의 의미지에 대해 언론이 퍼뜨리는 왜곡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사회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 권리 실현에 힘을 보태려는 청년들은 여기저기 존재한다. 이들이 참여하고 긍지를 느낄 경험을 만들고자 한다.

이런 프로그램에 관해 내게 있는 아이디어 하나를 밝혀본다. ‘기본소득 농활’을 가면 어떨까? 농활은 학생 사회의 전통적인 ‘민중연대’ 활동이었는데 지금도 농촌봉사활동으로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고 매년 대학생 수백 명이 참가한다. ‘기본소득 농활’은 농촌봉사활동(농민연대활동)과 농민기본소득 캠페인을 연계하자는 아이디어다. 청년들이 농촌 현장을 체험하고 일손을 돕는 한편, 농민기본소득의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농촌 주민의 의사를 모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내년 여름에 가칭 ‘한국기본소득대회’를 여러 단체들과 함께 열고자 한다. 2023년 8월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총회 및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리는데, 한국기본소득대회는 지구네트워크대회로 가는 디딤돌 구실을 할 것이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개인, 지자체, 사회적 모임, 운동단체들이 서로 확인하고 기본소득운동의 힘을 모으고 힘을 집중할 과제를 정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 기본소득당은 대회를 성공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역할을 찾고 실천할 생각이다.

## 기본소득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기본소득당은 당명이 말하듯 기본소득 실현을 제1과업으로 정한 정당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운동이 썰물인 지금에 기본소득당도 함께 정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당은 그 우려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했다. 나아가, 기본소득당이 앞에 나서 기본소득의 새로운 시작을 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명과 지성이 쌓은 탑을 무너뜨리는 데서 힘과 존재감을 과시할 작정이다.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싸우며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 작지만 단단한 개혁야당의 길을 가겠다. 이를 통해 당의 인지도와 지지도도 끌어올릴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당은 우리 정치공동체의 주요 의제들이 처한 난맥을 헤쳐가려면 기본소득과 함께 가야 한다고 증명하고 설득할 것이다. 그래서

기본소득 공론장을 더 크게 더 뜨겁게 열고, 기본소득의 대중적 열망에 다시 불을 붙이려고 한다. 기본소득운동의 주체들을 찾고 조직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기획할 것이다.

‘언제나 과감하게 행동하라(Memento audere semper)’는 기본소득당이 탄생부터 가슴에 품은 모토다. 붙잡은 손을 놓아야 더 높은 바위를 잡고 절벽을 올라갈 수 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기본소득당의 행보가 기본소득운동의 전망 개척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기후위기 시대에 기본소득이 가야할 길

백희원

BIYN  
(기본소득청‘소’년  
네트워크) 회원

지역의 기후활동 단체에서 연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였다. 이동 중에 이런 저런 수다가 시작되었는데 서울에서 온 한 참가자가 말했다.

“제로웨이스트 패키지를 살 게 아니라 결국 소비를 멈춰야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도시에는 자연이 없잖아요. 일하고 돈버느라 받은 스트레스를 쇼핑 말고 풀 곳이 없어요.”

사람들은 공감의 제스처를 보냈다. 누군가 또 말을 보탰다.

“시발비용이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쓰는 돈.”

하하하 모두 웃은 뒤 특별할 것 없다는 듯 대수롭지 않게 대화를 이어갔다. 나는 그 대수롭지 않음이 대수롭게 느껴졌다. 2019년 녹색당에서 공동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기후위기와 과소비 문화, 과중한 임금노동 사이의 인과성을 설명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야 현장이 현장인 만큼 기후감수성과 탈성장에 대한 고민이 깊은 이들이 모인 장소여서 나온 말이었을테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사람들 앞에선 기본소득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 굳이 긴 서론을 끌고 오지 않아도 되는구나 싶었다.

2012년 발족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자발적인 회원 조직 BIYN(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은 활동초기부터 기후위기를 중요한 시대적 배경으로 생각해왔다. 기후위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엄연한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지구의 온도는 이미 1도씨 올랐고 더 가파른 변화를 예기하고 있었다. 이 예측 가능한 변화가 우리들 각자의 삶의 공간에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가져올 것은 분명했다. 그러므로 모두에게 최소한의 예측가능한 기회와 자원이 보태져야했다. 기후위기라는 전지구적 충격이 빈부격차라는 경로를 따라 취약한 곳은 더 취약하게 만들어서는 안되므로, 최대한 그 충격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려면 누구나 자기 자신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소득이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우리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유의 맨 앞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기본소득 운동이 점차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다성적이고 다양한 내러티브로 분화되면서 번져나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향을 향하게 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은 어디까지 도달했을까? 2016년, 2017년 언론들은 19대 대선을 기다리며 기본소득을 차기 대선의 핵심 아젠다로 다뤘다.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을 치르고 5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전사회적 경험과 기본소득당의 출현이 있었고, 지역에서의 기본소득 실험이 이어지며 기본소득의 개념도 조금 더 유명한 시사상식이 되었지만, 기본소득이 현실에 적용되는 것보다는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속도가 아무래도 더 빨랐던 것 같다. 기후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다양하게 움직인다. ESG 경영과 투자의 흐름을 공부하는 사람,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사람, 비건 브랜드를 론칭하는 기업들, 절박함을 호소하며 거리로 나와 대규모 행진을 조직하는 시민들과 활동가들. 내게 기후위기 시대의 기본소득에 대해 고민하는 일은 이 움직임의 속에서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기본소득”은 어디에 위치하며 누구의 목소리가 되어야 할지 묻는 데서 시작된다.

질문에 답을 찾기 전에 먼저 내 시야를 공유하자면, 지난 5년 간 나는 2018년 하반기를 마지막으로 BIYN 운영진을 그만두고 회원이 되었고, 2019년에는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직을 맡았다. ‘배경’으로만 인지하고 있었던 기후위기에 대한 학습을 심화하고, 그 전망 안에서 정책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데 도전했는데, 그와 별개로 정당정치의 방향성을 확립하고 개진해나가는 데 실패했던 것 같다. 이후 중간지원조직인 서울시 청년허브에서 일하며 현장의 청년 연구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연구활동의 주제 중 한 꼭지는 기후였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청소년, 청년 세대의 기후이슈에 대한 민감도는 남달랐고 운동의 양상도 이전, 그러니까 2010년대의 청년 당사자 운동과는 사뭇 달랐다. 한편 2021년엔 처음으로 6개월 간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물론 구직 활동을 하긴 했지만 처음으로 일하지 않고 받는 일정 금액의 소득과 그 시간 동안의 생활은 쉼 권리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해주는 경험이었다. 꼭 필요했던 휴지기 이후에는 민간연구소인 ‘듣는연구소’에서 일하며 특정 직군 내 페미니스트 커뮤니티와 지역 이주를 모색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 참여했다. 모순적 설명이지만 ‘로컬’이라는 키워드는 블루오션 시장이면서 신자유주의적 질서에서 비껴난 대안적 사회였고, 이

장소에 맞는 청년들의 기대와 희망, 현실적인 어려움을 자주 마주칠 수 있었다. 이 글은 이 시야 안에서 관점을 찾아나가는 글이다.

기후운동에서 내 눈에 띄는 키워드는 생산성이다. 지금 당장 인스타그램에서 제로웨이스트나 비건 등을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수 많은 포스트들이 뜬다. 사람들은 이미지를, 구호를, 루틴과 리추얼, 새로운 질서와 즐거움들을 만들어냈고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제로 웨이스트로 집안 살림을 하는 방법들, 플로깅이라는 활동 또는 산책의 양식, 도시농업과 가드닝 문화,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웹 개발법, 비건 식당들과 그 식당들의 지도, 해외의 기후위기와 관련된 콘텐츠들을 번역한 것, 환경을 아끼는 실천과 자신을 돌보는 수련을 연계하며 연결감을 느끼는 리추얼 등등. 작은 공론장과 마을 리빙랩, 시민연구 등 시민 활동 지원들에서도 기후 관련 된 실천들이 눈에 띄게 많이 보였다. 필연적으로 커먼즈 일 수 밖에 없는, 이 행성 자체에 대한 이슈다보니 개인적 차원에서부터 지역 커뮤니티까지 일단 팔을 걷어부치고 각자의 영역 안에서 모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실천들이 계속 보였다. 물론 기업들은 이 공익적 생산성을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해석하고 재빠르게 그린워싱에 들어갔다. 글로벌 금융 시장이 가장 빠르게 반응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시민 불복종과 포스코와 같은 거대 자본에 대한 게릴라식 직접 행동들도 있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2020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을 진행했다. 2019년엔 기억할만한 대규모 집회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있었는데,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된 올 가을, 기후정의행진 그때를 상회하는 인원들이 또 모이기도 했다.

이 와중에 실종된 건 뜻밖에도 정치다. 더 정확하게는 대의 정치, 특히 지역보다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대의 정치가 이 생산성을 권력화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급격한 기후변화는 예비되어 있고, 그에 따른 급진적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이를 수행할 믿을만한 권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이는 비단 기후 정치만이 겪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지난 대선에서 팬덤 정치는 더 적나라해졌고 당 파성은 모호했다. 에코백과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후보를 찍을까? 이에 대한 사회적 상상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시사인』 749호(2022.1)에서 진행한 기후유권자 설문조사에서는 내 정치성향과 달라도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는 후보가 있다면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38.8%로 기대 이상으로 높았지만 그게 사실인지를 확인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 기후위기가 가장 화제가 되었던 순간은 현 대통령, 당시 대통령 후보가 티브이 토론에서 RE100이 뭐냐고 물었을 때 정도다. 6월에 치른 지방 선거에서도 녹색당을 비롯해 기후 의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진보정당들이 받은 성적표는 대체로 지난 선거 때보다도 낮았다. 의제가 있는 정치세력은 충분히 전달하고 설득하지 못했고, 가시성을 확보한 기성 정당들은 어느 때와 같은 부동산 개발공약에 집중했다.

기본소득은 완전히 정책의제처럼 보였고 2016년, 17년의 기대와는 달리 이번 대선에서 생각보다

회자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기본소득이 기후위기와 탈성장과 전환에 부합하는 의제라고 믿고 있다. 탈성장과 전환은 시간의 재구조화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기본소득은 이를 실현 가능하게 할 거의 유일한 재분배 정책이다. 사회환경적인 제약을 고려한 경제적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도넛경제학이나, 직주근접 근거리 생활권을 제안하는 15분 도시와 같이 적정 수준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시스템을 제안하는 모델들에 부합하는 복지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기후위기가 현실을 압박하는 에너지가 커질 수록, 우리 삶의 변화가 더 급격할 수록 기본소득 운동, 기본소득에 대한 다수 시민들의 지지를 조직하는 일도 더 절박하게 필요해진다. 달라진 환경에서 여전히 기본소득 운동이 유효한지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새삼스럽게 이런 결론을 내렸고,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기본소득이 갈 길에 대한 질문을 던져본다면 유의미한 질문은 전환모델과의 정합성 같은 것보다도 어떻게 기후유권자들과 제도권 정치를 연결지을 수 있는가?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탄소시계의 시간으로 보면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는 기후위기 앞에서 빠르게 많은 것을 실험하며 상호학습해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진짜 기후정치’는 경험해보지 못했다. 선언까지만 있었다. 기후를 최상위에 둔 의사결정이 실제 경제시스템과 사회,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들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 매장 내 일회용품 금지 정도가 있을까? 원래 진보적인 유럽 서구국가에서 USB-C타입 충전기만 허용하기로 했다는 기사 정도가 근래 화제가 된 뉴스였던 것 같다. 기후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컨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새로 발간한 보고서라든지, 국제 회의체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기후정치 자체에 대한 뉴스는 관심을 갖지만 실제로 국내 석탄발전소를 문 닫게 하려면 어떤 정치적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방법도, 방향도 공유받기 어렵다. (근거나 당위를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이여도 탄소중립위원회는 모를 수도 있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기후시민은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세계관을 공유한 정치적 집단이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가 기후이슈에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반응하는 원인일 지도 모르겠다. 만약 기본소득이 기후위기에서 파생된 적정경제, 지속가능한 경제의 모델들과 만나 설득가능한 내러티브로 잘 자리잡는다면 비로소 기후시민들을 ‘이해관계자’로 가시화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시작할 때의 장면으로 돌아간다면, 생태적 삶의 방식을 체험하고 싶어서 지역에 올 정도의 적극성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 도시에서 먹고 살려면 반생태적 선택을 거듭하게 되는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받고 일을 적게 하면서 지역에 살면 소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연상이 아주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다면? 같은 이야기다. 물론 이 정도 발상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다. 명확하고 필연적인 입구가 필요하다. 반드시 개혁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지점과 관련성을 개발해야 한다. 예컨대 연금개혁과 안정적인 가구소득 흐름, 금융시스템과 연결되는 논의. 혹은 정규직 일자리 및 복지 수혜자의 지위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한국의 주거금융 시스템과 기본소득. 초고령시대의 이미 시급한 문제인 돌봄과 노동시간 단축, 주4일제와 연결되는 기본소득. 이 모든 것을 한 바닥에 그려내는 것도 물론 가능하리라 생각하지

만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청사진을 그리는 것보다도 지엽적인 경로를 파고드는 일이다. 가급적이면 대화와 토론 할 주체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깊이 자기 삶의 문제로 인식하는 영역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정의로운 경제를 대변하는 기본소득의 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내 짧은 시야에서는 여기까지가 오늘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다. 나는 BIYN에서 기본소득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작은 공론장들을 만들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던 시기에 기본소득은 어디로든 접속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에 참여하기 위한 도구들을 만들며 생산하는 운동을 해왔다. 더 이상 소수의 지식인이 이론을 재생산하고 해석해주는 방식으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은 모델과 패러다임보다는 사례에서 훨씬 큰 영감을 받기 때문에 그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제 어딘가 우리가 모일 곳이 필요하기는 하다는 생각이다. 한 줄의 짧은 목표, 쟁취해 낼 수 있는 목표,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의사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입장이 필요하다. 기본소득 홀로는 그게 잘 안된다. 기본소득과 기후위기, 하나의 큰 아이디어와, 거대한 공통의 위기. 시간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고금리 고물가 시대, 노동은 더 유연해진 시대, 직접 지급되는 현금이라는 장치로 우리가 어떻게 적정 수준의 삶과 온당한 권리를 쟁취할 수 있는지. 알려야 한다. 가급적 쉽게. 누군가의 얼굴을 상상하며.



## 기본소득의 새로운 여정

### 이원재

전 LAB2050 대표

2016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은 몽골기병과 같았다. 보이지 않는 변방에서 시작했지만, 순식간에 모두의 주목을 받는 중원으로 질주했다.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현존하는 국가에서 거의 채택한 적이 없는 정책이지만, 수많은 금기를 깨고 상당한 지지를 얻게 되었다. 거의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의 거부감은 크던 정책이, 불과 몇 년 만에 유력한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책으로까지 올라섰다. 숨가쁜 시간이었다.

기본소득의 진격에는 세 가지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 첫째는 알파고, 둘째는 코로나19, 셋째는 정치인 이재명이었다.

알파고는 한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촉발한 중요한 초기 사건이었다. 2016년 서울 한복판에서 이세돌 기사를 꺾은 인공지능 바둑기사 알파고는, 자동화와 인공지능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관심은 노동없는 세상에 대한 상상으로 이어졌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일자리를 모두 없앨 것이라는 공포가 순식간에 확산됐다. 최고의 바둑기사 이세돌조차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다면, 그저 그런 노동자인 보통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으리라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해 보였다. 일자리는 곧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가 전 사회를 감쌌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까? 조건없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레 높아졌다. 일자리 없는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당위론이 힘을 얻었다

코로나19는 ‘전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한시적 기본소득제 실험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전 국민이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받은 것과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됐다.

경험은 힘이 세다. 이전까지는 일자리가 없어지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당위론에는 공감하지 만, 그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한 차례 시행되는 정 책을 보면서, 의지만 있다면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현실에서 구현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됐 다. 기본소득은 코로나와 함께 공중에서 지상으로 소프트랜딩하게 된 셈이다.

정치인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제를 옹호하고 실험하며 자신의 이름과 이 정책을 같이 알렸다. 그가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선후보까지 올라서면서, 기본소득제의 체급도 그만큼 올라섰 다. 자동화와 일자리 전환이 우리보다 앞선 미국의 대선이나, 우리보다 앞서 복지국가를 구축한 프랑 스 대선에서조차 기본소득제는 군소후보의 공약이었을 뿐이다. 우리나라처럼 기본소득이 유력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등장했던 선진국은 찾기 어렵다.

그 과정에서 기본소득제는 당위론과 경험을 넘어 정치적 힘까지 얻게 되었다.

당연히 이런 성과는 기본소득 운동이 오랜 기간 힘을 쏟은 결과다. 그리고 중원 점령을 목표지점 삼아 진격했던 전략의 성과이기도 하다. 모든 전력은 기본소득의 중원 점령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정 점은 2022년 5월 대통령 선거였다.

군사전략이론에 ‘전격전’이라는 개념이 있다. 독일어로 블리츠크리그Blitzkrieg라고 불리기도 한 다. 한 마디로 기동전이다. 전차와 경보병부대를 앞세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적의 후방에 침투하는 것 을 최우선 전술로 삼는 전략이다. 작은 전력으로도 빠른 시간 내 승리할 수 있는 전력으로 각광받았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잘 활용해서, 불과 몇 주 만에 프랑스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게 만든 전략이기 도 하다.

2016년 이후 기본소득 운동은 어쩌면 전격전과 같았다. 가장 빠른 제도화를 목표로 삼았다. 처음 부터 완성된 제도를 들고 옹호하며 활동했다. 전문가들의 실험이나 시민들의 숙의보다는 정치적 힘을 획득하고 정책화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은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 전격전 전략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빠르게 진격했는데, 생각보다 적의 중심이 강고해 서 함락시킬 수 없을 때다. 충분한 보급을 받지 못한 채 기동력만 앞세워 깊게 침투했다가 적의 진지를 점령하지 못하면, 그 병력은 금세 보급이 떨어져 지치고 주변의 적들에게 포위되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어쩌면 2022년 5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패배는, 어쩌면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전격전이 맞 닥뜨린 숙명이다. 이 전략은 이제 위기를 맞았다. 적의 후방으로 빠르게 침투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방어력이 강해서 점령에 실패하고 만 셈이다. 이전까지의 성공은 눈부셨지만, 이제 그 성공이 짐이 되 는 상황이 됐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경제 환경의 변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랜 시간, 우리는 공급은 과잉이고 수요가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왔다. 유효수요를 만들어야 한다는 케인지언들의 목소

리가 점점 더 강력해진 이유가 여기 있다.

풍요의 시대였다. 신자유주의 시대였고, 자유무역과 투자의 시대였다. 국경을 넘나들며 가장 효율적인 글로벌 공급망이 구축됐다. 공급과잉이 풍요와 빈곤을 동시에 가져오기도 했다. 값싼 물건이 점점 더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소비자들을 찾아갔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물가는 전혀 오르지 않고 금리는 사실상 제로인 채로 십수 년이 지나갔다.

역설적으로 이 때 케인즈주의의 목소리가 커진다.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가 부족하면 위기가 올 수 있으니, 수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 때문이다. 기본소득제도 비슷한 맥락에서 관심을 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들어 공급과잉 문제가 생기므로, 일자리 없는 시대에 소비 진작을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이제 결핍의 시대가 왔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전통적 자유무역주의는 힘을 잃고 있다. 공급망은 삐걱거리고, 가격은 오르고 있다. 전세 세계는 공급과잉이 아니라 공급부족 문제에 시달리게 됐다. 이제 문제는 물건을 살 돈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물건을 공급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케인즈주의나 기본소득제의 역할이 달라지게 된다.

전격전 전략은 한계에 다다랐고, 공급부족 시대의 막이 오르고 있다.

이런 시기에 기본소득 운동은 어디로 가야 할까?

지금만 전격전 전략을 잠시 접어 두고, 인내심을 갖고 진지전을 구상할 시기다.

진지전이란 자리를 잘 지키면서 아군을 천천히 늘려가며 다수파가 되어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이다. 다양한 형태의 공론장에서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기본소득제에 대한 숙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완성된 제도를 너무 강하게 내세우기보다는,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옹호하며 다양하게 변형된 기본소득의 가능성까지도 논의를 넓히며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구체적인 진지를 구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지역’이라는 진지다.

기본소득제는 지난 5년여 동안은 엑셀파일로 표현되는 제도였다. 소요 재정과 이에 따른 합리적 지급 금액 결정을 위한 다양한 계산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대선캠프 등에서 활용해 기본소득 정책을 구체화했다.

그러나 현장이 없어 늘 탁상공론처럼 여겨진다는 점은 기본소득 운동의 치명적 결함이다. 모든 비영리 옹호활동은 시민들의 관심과 에너지를 먹고 자란다. 그런 관심과 에너지를 확보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진행 중인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기본소득 정책실험)의 연구과정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정책실험은 매우 정교한 정량적 조사를 통한 연구가 중심이다. 그런데 이 시범사업 진행 중 연구팀은 마을로 찾아가 주민설명회를 열고 농촌기본소득 수령 주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시도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기본소득 제도는 훨씬 풍성해졌다. 예컨대 지급 방식이나 지

급 대상과 기준 등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유연하게 변화시켜 나가게 된다. 또한 소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환경문제나 의료서비스 문제, 또한 지역 인플레이션 양상 등에 대한 추가 연구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지역으로 직접 찾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둘째는 ‘실험’이라는 진지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실험을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농촌기본소득이나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처럼 참여소득형 기본소득 실험도 유연하게 늘려갈 필요가 있다. 초기부터 실험설계를 하고, 이후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공급부족 시대에는, 조건없는 기본소득보다는 ‘활동하면 지급하는’ 참여소득 방식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또한 집안에서 이뤄지는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수당의 경우도, 일종의 참여소득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농촌기본소득은 수도권외 지방소멸 위험지역 대응을 만들도록 방향을 잡아나가는 게 좋겠다.

두 가지 진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태도다. 이제 구체적 제도보다는 기본소득이 옹호하는 가치를 분명하게 발언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다만 도구 그 자체를 옹호하느라 그 취지를 논의하는 데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기후위기의 시대, 불평등 확대의 시대, 그리고 무급가사돌봄노동 불평등이 심각한 시대, 기본소득이 건드려야 할 것은 가치와 비전이다. 다양한 소득보장 제도 정책실험, 그리고 현장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그 가치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의 새로운 여정은 실험과 대화로 시작되어야 한다.

## 전남 교육기본소득 도입 추진의 경위와 효과

고두갑

목포대 경제학과  
교수

전남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본소득’ 공약이 전남 교육감에 선거에서 등장하고 공약을 내놓은 현 김대중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전남지역 초·중·고 학생 숫자는 2019년 19만 3370명, 2020년 18만 7567명, 2021년 18만 4981명까지 줄었다. 학생 수 감소로 위축되고 있는 전남지역 교육현장 위기에 대응하려면 학생에게 직접 투자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대중 교육감의 판단이었다. 당시 김대중 후보는 논평을 통해 “전남 교육기본소득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선적으로 교육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 중에 학생 교육기본소득 재원을 놓고 많은 공방이 이루어졌다. 장석웅 예비후보측은 올해 초·중·고 학생 약 18만 4000여명에 대한 연간 기본소득 예산은 44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말도 안되는 공약이라고 비판했지만, 전남 도민은 교육기본소득 공약 내건 김대중 후보를 선출했다.

전남은 교육기본소득과 유사한 지역소멸위기 대책으로 전국 최초로 ‘농어민 기본수당’을 시행했으며, 신안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타 지역에 비해 높다고 생각된다.

전남 교육청은 현재 ‘전남 교육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이다. 중장기적으로 초·중·고 학생 1인당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우선 지역소멸위험 지역 초등학교 입학생 1인당 매월 20만 원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초등학교 학생 9만여명 중 16개 소멸위험 지역 초등학교 학생 2만 4천여명에게 월 20만 원씩 240만 원을 지급하면, 매년 576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를 16개 군으로 환산하면 한 개 군당 평균 매년 36억 원 정도다. 입학하는 초등학생부터 시작한다면 전남 16개 군 전체 소요 예산이 96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올해는 인구활력계획 제출이 5월에 마감되었기 때문에 시기 상 어렵지만, 내년부터 교육청에서 작은 학교에 시범사업으로 96억 원 가량을 교육기본소득을 지원하고 효과를 검토하여 2024~25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 교육기본소득의 추진은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전남교육의 지속가능성 및 지역상생 협조체제 구축이다. 전남 23개 시군 중 16개 군이 인구 소멸지역으로 지역공동체 붕괴와 더불어 많은 농어촌 학교가 폐교되었다. 농어촌지역의 학생수 감소는 ‘저출산’이라는 자연적 요인 위에 ‘학령 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이라는 사회적 요인이 겹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제는 지역이 함께 학생들의 삶을 돌보는 체제구축이 필요하고, 찾아가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역주민의 지역교육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데 교육기본소득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지역교육 불평등성 해소 및 농촌교육의 활성화이다. 농어촌 지역 내 남겨진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열악한 학생이 대부분이다. 남겨진 학생들의 기회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지자체와 협치를 통한 전남교육의 활성화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감을 선거로 뽑는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은 중앙과 지방 교육세의 이전지출로 운영되고 있고, 지자체의 행정과 교육은 분리되어 있으며, 광역의회에서 교육위원이 관여하고 있을 뿐이다. 지방자치의 본래의 의미와 지방소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행정과의 협치가 중요하며, 교육기본소득 재원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상품권으로 교육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취약계층 소득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최근 기본소득의 충족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학생들의 기본복지를 위한 여러 제도들이 실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전남 지역의 시군(목포시, 광양시, 보성군, 신안군, 무안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생 100원 버스는 교복지원금이나 입학지원금 같이 자치행정이 학생교육복지에 기여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지자체의 교육복지 정책이 교육기관과 협치를 이룬다면 교육기본소득까지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BasicIncome

## Issue 2.

### [기획자의 말]

“장애인단체의 시위 여파로 열차운행이 지연되고 있사오니, 시민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출근길 역사, 서로의 몸이 부딪혀 움짱달짝할 수 없는 상태다. 마스크 속 어떤 표정일지도 모르는 이들에게서, 혐오적 발언은 물론 원초적인 욕지거리가 튀어나온다. 단단한 모서리에 부딪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이던 그때, 누군가의 한 마디가 마음에 부딪혔다. “자기네만, 힘든 줄 아냐.” 순식간이라 돌아볼 겨를도 없던 그의 목소리가 계단 위로 성큼 올라가 버린다. 그래. 무엇이건, 극복해야지. 7전 8기 성공담이 휘날리는 사회, 파이팅이 입버릇처럼 되어버린 사회다. 어쩌면 우리는 물결 속에서 힘든 것을, 힘들다고 말할 용기마저 빼앗겨 버린 건 아닐까.

용기를 낸 이들이 있다. <이 계절의 이슈 2>에서 만나 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선 청년 정치인들이다. 몇 번의 이직을 거치며 상명하복의 세계에서 낙오된 이야기, 학교와 가정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폭력의 이야기, 거리로 나간 청소년의 이야기, 일상적 성폭력과 데이트폭력을 겪은 이야기, 우울증에 빠졌던 이야기, 마이너스 통장에 시달린 이야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관한 이야기, 거리 노숙자가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이젠 뭘 더 열심히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무기력할 수밖에 없지만, 무기력을 숨겨야 하는 세상. 발칙한 언어로, 힘듦의 금기를 풀어낸다. 물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슬픔이 아닌, 슬픔을 살아낸 생명력이다. 이들은 그 힘을 벗 삼아, 나답게 살 방법을 모색하자고 외친다. 중립을 지키라는 세상에서 치우친 생각으로, 새로운 균형을 만들자고 소리친다.

공동된 대안은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이 그들의 슬픔을, 용기를 번역할 문법이었기 때문이다. 나와 너의 희로애락을 가르지 않고, 우리의 희로애락을 만들 언어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각자를 ‘모두의 것’의 권리자로 등장시킨다. 기본소득은 필요라는, 자격이라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각자를 거미줄에 얹아맨 세상에서 끊어낸다. 누구에게도 판단 받지 않고, 온전히 숨 쉴 수 있는 나만의 방이 생긴다. 그제야 원하는 삶을 찾아낼 혹은 선택할 용기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 경험은 ‘자유’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혹은 그래서 서로를 더욱 경계하는 작금의 질서를 바꿔낼 가교가 된다. 선(善)의 파장이다. 모두의 것에 아직 포괄되지 못한 더 많은 얼굴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난다.

서핑 애호가들은 각 개의 물결들이 하나의 파도가 될 것 같은 예감을 받고, 서둘러 노 젓기를 한다. 그래야, 파도와 호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로서 지금이 바로 ‘그때’다. 다른 결의 경험들이, 하나의 언어가 되어 오는 느낌. 모두 다 달라서, 동질감이 느껴진다고 할까. 벅찬 순간이다. 서둘러 노를 저었다. 기본소득이 꿈꾸는 저변의 소란스럽고, 부산스러운 이들의 이야기가 모두에게 공유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세상의 질서에 편입되라고, 파이팅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 자신의 삶을 긍정할 수 있도록 파이팅을 외치는 이들이라서 더욱 반가웠던 글이다. 바쁜 와중에 이야기를 나눠준, 박은영, 양지혜, 윤김진서, 진형익 4명의 청년 정치인들에게 다시금 감사를 표한다. 읽는 내 물결도, 그리고 독자들의 물결도 닿아, 우리가 더 높은 파도를 만들면 좋겠다.

## 내가 기본소득이 있는 세상을 원하는 이유

**박은영**

기본소득당  
광주광역시당  
상임위원장

기본소득당 광주광역시당 상임위원장 박은영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 기본소득당의 광주광역시비례 시의원으로 출마했습니다. 그 결과는 마음이 아파서 공유할 수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가 되어 선거운동을 할 때, 공약만큼 많이 묻는 질문이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는가입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생겼나 생각해보면 제가 세상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평범하고 안온한 삶을 꿈꾸었고 성인이 되어 경제적 자립을 이루면 자유로운 삶이 기다릴 것이라 믿고 살았던 순진한 아이였습니다. 그 꿈은 20대에 몇 번의 이직을 통해 깨지고 말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제가 직장인으로 살며 직급에 따른 위계와 상명하복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좀 우울했습니다. 내가 이 사회에 적응을 못 하는 존재라는 생각에 어떻게 살아야할지 방황했고 뒤늦게 본질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될 것인가?’만 생각하다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며 이 세상의 질서가 마음에 안 들면 세상을 바꿔야 하고, 정치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2008년 창당한 진보신당의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의 정책이 마음에 들어 입당해 당원 모임에 나가며 27세에 정당 활동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진보정당의 분당과 이합집산의 과정에서 많은 당원들이 정당을 떠나는데 저는 그대로 남아있었고 지역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니다. 정당 활동가이자 시민단체 활동가 박은영이 될 수 있었으며 여전히 저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은 정당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중후반에 광주로 이주한 저에게 지금까지도 광주에서의 가장 오랜 인연은 당원들 그리고 정당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된 시민단체 활동가들입니다.

대안학교 교사가 되면서부터 광주지역에서 만든 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살림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청년 노동의 문제에 관심이 많아 광주청년유니온위원장, 광주인권증진시민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한국작은도서관협회 회원으로 LH임대아파트 작은도서관 지원활동을 하며 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만나기도 했고 지금은 광주인권지기 활짝의 상임활동가로 인권교육과 인권연대활동을 하는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 인생 가장 중요한 성장의 시기였던 때는 대안학교에서의 경험입니다. 2010년 당원들이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대안학교 일을 권했고 많은 당원과 지인들이 응원해주었기에 학교 밖 청소년들과 8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010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만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가 기본소득당 창당을 선택하게 한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학벌주의라는 시대의 한계와 차별을 온몸으로 겪으며 살아가는 청춘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기본소득이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한 화답처럼 대안학교에서 10년 전 만나 알고 지내던 문현철님이 광주기본소득당 창당에 함께 하고,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가 되어 선거를 함께 뛰었습니다. 후보가 학교 밖 청소년이었기에 선거운동에도 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함께 했습니다. 기성의 질서에 맞서는 존재들과 함께 하는 일상은 예측불허의 모험을 떠나는 일과 같습니다. 기본소득 운동은 제 인생의 가장 큰 모험으로 평균나이 27세의 젊은 정당 창당부터 학교 밖 청소년이 시장 후보로 나선 선거까지 매 순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십여 년을 시민단체 활동가로 살아오며 경험한 것은 어쩌면 기본소득을 받으며 사는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 활동은 제가 하는 활동과 제 자신의 삶에 대한 지원이자 응원이 되었습니다. 힘들어서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에도 후원해주는 분들을 생각하며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 덕에 평범하다 못해 부족한 점 많은 제가 기본소득으로 변화할 세상을 꿈꿀 수 있게 되었는데도 모릅니다. 부족한 사람이 껌냥에 넘치도록 큰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사회적 지지와 연대입니다. 기본소득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용기를 주고, 원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실현되어 사회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지지하고 지지받으며 하고 싶은 활동을 하며 살 수 있는 사회가 오길 바라며 살아갑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분배 정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토지 불평등, 소득 불평등,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세, 소득세, 탄소세를 신설해 인류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를 마중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어떠한 기준도, 선별도 없이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모두가 평등하다는 걸 증명하는 정책이 되어 정착시키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농민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아동수당, 노령연금 등 시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정책으로 확대되어 가는 이러한 정책들이 보

편적 기본소득으로 확장되는 것도 시간문제입니다.

또한 개별 시민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은 가부장제 하에서 만들어진 가족 중심의 복지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으로堂堂히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1인가구가 늘어나는 현대사회에 적합하고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제가 사는 광주에서 추석 명절을 보름 앞두고 보육원을 나온 청년 두 명의 연이은 자살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제적 문제와 외로움 속에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보다 자살을 생각했을 그들의 마음이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죽음 이후 보육원을 나온 청년들 중에서 반은 자살을 생각한다는 통계를 접하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삶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외롭게 버티며 살고 있을, 죽을 만큼 열심히 살거나 이젠 지쳐서 죽음을 떠 올릴 그 누군가를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찾아왔으나 폭염과 폭우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거나 실제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입니다. 존재했으나 사회적 존재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사회적 존재로 등장하며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각자도생하는 사회, 능력주의가 공정으로 왜곡된 사회,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 다시 신뢰를 쌓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갖는 것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단순히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는 시혜적 관점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산인 지적 자산과 공유부를 사회구성원과 나누는 것이 정당하다는 인식의 변화를 통해 기본소득은 마땅히 누려야 하는 시민적 권리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당한 분배로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시민들은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갖고 해결할 주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함과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의 당원이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으로 기본소득제 실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회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어딘가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꿈꾸며 묵묵히 기본소득 운동을 하며 살아가는 기본소득 연구자, 활동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청소년 페미니즘에서 기본소득 정치로

양지혜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실  
비서관

“제가 교복을 입고 마스크를 벗고 처음 얘기해보는 자리예요”

스쿨미투 집회에서 한 청소년이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이가 침묵을 지키고 자신을 숨겨야 했을 시간이 느껴져, 마음이 아렸다. 말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 여학생들이 스쿨미투 운동을 통해, 자기 경험을 고발하고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은 ‘기특한 여고생’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주체가 되고자 했다. 나는 페미니스트 동료들과 함께 학교 담장을 넘어, 교육청으로, 국회로, 국제사회로 스쿨미투를 알렸다.

누군가는 페미니스트는 ‘치우친’ 사람이므로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치우친 위치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있다. 말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졌던, ‘국민’이 아니라고 대우받았던 이들의 목소리다. 나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부터 어리거나 여성이어도, 똑똑하지 않고 돈이 많지 않아도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다. 그렇게 기본소득당의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다.

## 청소년도 돈이 필요하다

청소년기, 내 주변엔 집을 나오고 싶은 친구들이 많았다. ‘부모의 폭력이 싫어서’, ‘나답게 살고 싶어서’……. 이유는 다양했지만 갈 곳이 없

는 것은 똑같았다. 하루는 친구에게 “집을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애써 침착한 척 “방법을 찾아 보자”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막막했다. 청소년인 우리에게 ‘자립’이라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때, 궁금해졌다. 청소년은 “말 안 들으면 집 나가”라는 부모의 협박을 견뎌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걸까?

대학을 졸업한 친구는 수십 개의 이력서를 쓰고, 면접에서 떨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제 뭘 더 열심히 해야될지 모르겠어”라고 말하는 친구의 막막함을 들으며, 나는 궁금해진다.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아야 할까? 입시경쟁에 시달리고 학자금 대출에 짓눌리며,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다. 나와 친구들이 정상가족에 있지 않아도, 임금노동을 하지 않아도, 쓸모와 능력을 증명하지 않아도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그 세상에 기본소득이 있었다.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건져지지 않는 여성, 청소년, 청년, 소수자의 삶과 함께한다. 나는 누구나 나답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본소득 정치를 결심했다.

내가 생각하는 기본소득 정치는 모든 시민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다. 코로나19 이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청소년은 자신의 몫을 누리지 못했다. 청소년의 재난지원금을 보호자가 대리 수령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신의 몫을 가져본 적 없는 시민에게는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소득 역시 ‘자기 돈’이 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모두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정치는 모두에게 경제적 권리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나는 기본소득당에 입당하고 <청소년도 돈이 필요하다>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하고 싶은 말은 간단했다. 청소년도 돈이 필요하다! 청소년에게는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시설의 규율에 따르지 않아도, 열악한 노동을 견디지 않아도, 존엄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돈이 필요하다.

우리는 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민법에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를 명시하고, 청소년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공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내게 기본소득 정치를 구체화하는 시간은 소수자의 관점에서 기본소득 이후의 사회를 설계하는 과정이었다.

## 성과지표보다 중요한 모두의 삶

나는 서태성 기본소득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경기도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제안했다. 우리의 핵심 공약은 전 도민 기본소득 10만 원으로, 경기도 기본소득을 청년, 농민에 이어 경기도민 전체에게 확대하자는 내용이었다. 부동산 취득세를 포함한 공유부에 해당하는 경기도의 재원과 순세계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삼았다.

우리는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당사자들을 직접 만났다. 참여자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등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이 아니라, 나의 욕구에 맞추어 쓸 수 있는 돈이었다. 그러나 만 24세에게만 지급되기에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기보다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주는 ‘도움’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험을 나누며, 만약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도움’보다는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나눴다.

청년기본소득을 확대하는 일은 경기도민 모두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기도 했다. 하루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기 위해 ‘경기지역화폐’ 어플을 깔 적이 있다. ‘경기지역화폐’의 용도를 소개하는 문구 중 하나로 ‘자녀 용돈 카드’가 눈에 띄었다. 경기지역화폐로 부모가 자녀의 소비 내역을 세세하게 확인하고 용도별로 통제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지역화폐 서비스가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면, 지역화폐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달갑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함께한 기본소득당 경기도 선거운동본부는 기본소득을 아동청소년 친화적으로 구성하고자 노력했다. 먼저 어린이 기본소득을 지급했던 판동초등학교에 방문했다. 조건 없이 동등하게 지급되고, 심사 없이 원하는 데에 쓸 수 있는 어린이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자유와 책임을 배우는 계기였다는 얘기를 들었다. 청소년인권단체를 만나, 기본소득이 청소년의 권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고민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의 영향력을 줄여나가고,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화를 나눴다.

때로는 기본소득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물론 선별 복지의 행정비용과 사각지대를 고려할 때, 기본소득이 더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효율성’과 ‘성과지표’만을 따져온 기존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단기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시민들의 자율성과 권리를 복돋울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있다.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조건과 심사 없는,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기본소득당 경기도 선거운동본부는 선거 과정에서 청소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단체들을 방문했다. ‘일하는 학교’에서는 취업률을 따지기보다는 청년의 삶 자체를 지원했다. 조건 없이 식비 바우처를 제공하고 참여자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교육과 일자리를 매칭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청소년들은 동사무소 가는 것부터 망설인다고, 단순한 ‘바우처’나 ‘복지혜택’으로 주거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당장의 성과지표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삶을 존중하는 통합적이고 밀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정치의 몫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 기본소득이 대변할 더 많은 얼굴들

“누군가는 제가 정치인의 자질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저는 20대 여성이며, 경험이 없고 미숙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대학을 가지 않았고, 정치를 하기에는 멍청하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페

미니스트입니다. ‘중립’을 지키지 않고, 여성, 청소년, 쿼어,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에게 ‘치우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제가 정치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 양지혜, 기본소득당 경기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출마선언문 中-

기본소득당의 후보로서 생애 첫 출마를 결심하기까지, 내게도 망설임이 있었다. 함께 출마를 결심한 여성 청년 동료들이 없었다면, 도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여성 청년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했다. 여성 청년의 삶은 대선 시기에는 반짝 다뤄진 뒤, 사라졌다. 우리 사회는 20대 여성인, 학벌이 좋지 않은, 페미니스트인 시민들의 삶은 정치의 주제가 아닌 양 굴었다.

나는 나와 비슷한 또래 여성들에게 ‘덜 나쁜 선택지’가 아닌 ‘괜찮은 선택지’가 되고 싶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스스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여성, 청년, 대학거부자, 청소년인권활동가, 그리고 페미니스트로 기본소득 정치를 하며, 기본소득이 바꿀 삶의 가능성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었다.

기본소득당은 경기도의회의원 비례투표에서 13,487명의 표를 받았고, 나는 0.23%로 낙선했다. 내게 득표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선거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였다. 스쿨미투 기자회견에 참석한 내 손을 잡아준 익명의 시민 분, 투표권이 없어 아쉽다며 응원을 전해주셨던 청소년 시민 분, 전 도민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유세차에 올라 매번 발언하셨던 선본원 분들이었다.

선거는 끝났지만, 기본소득 정치는 이어진다. 나는 8월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실의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청소년 인권, 페미니즘 등의 의제에서 활약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이 대변하고자 하는 ‘모두의 삶’을 보다 구체적인 얼굴로 제시하고자 한다. 기울어진 정치판에서 여성, 청소년, 청년, 성소수자 등 지워진 존재를 다시 호명하고자 한다. 내게 기본소득 정치는 말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 이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질문을 던지는 정치다.

## 넓고 거센 기본소득 파도를 만들자

윤김진서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우리 기본소득 선거할래?

대통령 선거가 끝난 날, 나는 기본소득당의 동료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며 개표 방송을 보고 있었다. 오준호 후보가 몇 표를 얻었는지, 과연 이 고리타분한 언론이 오준호 득표율을 보여주는지, 오준호 후보 사진이 나올지 궁금해하며 우리는 TV 앞에 앉았다. 한참이 지난 새벽에야 결과가 정해지고 우리는 모두 한숨을 푹푹 쉬며 헤어졌다. 트위터 타임라인에는 비명이 가득했고 페이스북 타임라인은 조금 더 길고 구체적인 글로 절망을 공유하는 중이었다. 나는 다음 날 잠에서 깬 순간까지도 내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의 충격은 단순히 누가 당선됐다는 사실에 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대선 기간 내내 나의 많은 후보들의 행보는 실망스러웠고 어떤 부분은 뻔할 만큼 구렸다. 윤석열의 ‘여성가족부 폐지’ 게시글을 봤을 때, 이건 진짜 계정 해킹이리라 생각했고 이재명이 디씨(디씨갤러리)에 갤주(갤러리 주인)라며 글을 썼을 때에는 이번 대선 없던 일로 하면 안되나 싶었다. 심지어 기본소득의 선봉장처럼 굴던 이재명의 본선거 기간 행보를 보면서는 오준호 빼고 다 사퇴하라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혐오를 대변하고 기본을 포기하는 대선이었다. 기본소득을 비롯해 평등을 목 터져라 말하는 오준호 후보를 비롯한 소수정당 후보들은 잘 드러나기 어려웠고 기본소득 연대를 구축하는 일은 어려웠다. 누가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마 비슷하게 절망했을 것이다.

윤석열 뒤에 후보가 아닌 당선인 세 글자를 붙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전에 두 번이나 거절했던 기본소득당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출마를 결심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거기에 없어 서울시장 후보의 선본장까지 되어 있었다.

### 기본소득을 지지하는-페미니스트

물론 지방선거에 출마를 결심한 것이 단순히 분노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나에게 기본소득은 나와 나의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대안이었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에서 기본소득을 말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았다. 나는 성폭력과 데이트폭력을 겪었고, 20대 중반까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했으며, 혼자 상경해 비좁은 원룸 생활을 몇 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다. 또래의 여성 친구들과 모이면 일상에서 성폭력과 차별이 얼마나 흔한지 말하고, 취업한 친구들을 만나면 일하기 너무 힘들고 싫다는 토로를 듣고,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과는 서울에서 살만한 집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푸념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은 너무나도 많은 차별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다. 나와 친구들의 삶에서 복잡하게 교차하는 차별을 발견했을 때, 나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가 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에게서 차별과 선별을, 분배와 소득을 처음부터 다시 써내려가는 정치가 필요했다.

기본소득이 말하는 새로운 세상, 평등한 미래라는 것은 페미니즘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장면이었다. 따라서 페미니즘과 기본소득이 만났을 때, 고루한 차별을 향한 새로운 질문은 큰 파괴력을 가진다. 여성을 가족 관계 속에서 아내나 딸, 엄마로만 바라보는 사회에 우리는 여성도 개인이라는 페미니즘적인 접근과 가족이 아닌 개인의 존엄을 말하는 기본소득의 접근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재난 상황에 유독 비정규, 불안 노동으로 여성이 많이 배치되거나 쉽게 해고되는 문제에도 노동시장의 여성 차별을 고발함과 동시에 노동중심성을 비판하고 새로운 재분배 패러다임을 제시해야만 한다. 폭력에 노출된 여성이 기꺼이 그 공간을 벗어나 자립할 수 있으려면 기본소득의 지원과 페미니즘의 새로운 상상력이 모두 필요하다.

선거 기간 동안 언론에도 잘 나지 않는 소수 정당의 후보이자 선본장으로서 어떻게든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공보물로, 글로, 유세로 갖은 애를 썼다. 나는 우리에게 페미니즘 관점의 기본소득과 기본소득 관점의 페미니즘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건네는 선거를 만들고 싶었다. 특히 박원순과 오세훈이 차례로 시장을 역임한 서울에서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을 말하는 후보는 꼭 필요했다. 감사하게도 작은 유세차에서 신지혜 후보나 내가 마이크를 잡고 있으면 정말 많은 젊은 여성들이 인사를 하거나 환호를 하고 지나갔다. 그들은 젊은 여성 후보를 신기해하고, 좋아했으며, 기본소득이라는 대안에 기꺼이 귀를 기울였다. 왜 기본소득당이 페미니즘을 주요한 가치로 말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려고 했으며, 기본소득당이 말하는 평등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실리는 거대 양당 후



보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도 아니었지만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을 대변하고 싶었다. 기본소득당이 페미니즘 정책을 잘 짰더라, 젊은 여성 후보들이 많더라 하는 반응은 나에게 가장 큰 동력이었다.

### 더 너른 연대를 향해

페미니즘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반감 섞인 눈빛이나 작게 읊조리는 욕설은 충분히 예상한 일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를 고민에 빠지게 한 어떤 남성이 있었다. 본선거 유세 막바지에 사람 많은 홍대에서 유세를 하던 중이었다. 나는 바쁘게 일만 하며 사는 게 힘들지 않냐면서 여유있는 일상을 기본소득으로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일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싫을 때도 있잖아요?”라는 나의 말에 지나가던 젊은 남성이 “안 힘들어 \*\*년아” 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는 정말 약삭빠르게도 유세차를 거의 다 지나가던 중에 욕설을 날리고 내가 쳐다보자 후다닥 유세차 뒤로 사라졌다. 젊은 여성 후보에게 쉽게 욕설을 뱉는 남성 문화는 뒤로 하고, 페미니즘도 아닌 일과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반감을 내비치는 것이 처음이라 나는 좀 신기하면서도 걱정스러웠다. 일하는 게 힘들지 않냐는 얘기가 심기를 건드렸나? 노동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가? 일 안해도 된다고 하면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면 어찌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상상력을 제각기 다른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엮어서 전달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들었다. 그가 언젠가 그의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길 바라면서도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이 언젠가 그의 삶까지 바꿀 수 있도록 선거 이후에도 우리가 해나갈 일들이 머리 속을 채웠다.

이번 지방선거는 기본소득을 계기로 한 너른 연대의 작은 시작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기본소득당의 후보로서 페미니즘과 청소년 인권, 동물권과 기후정의를 말했고 차별의 문제를 더욱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이 바뀌낼 세상에 나는 아주 많은 가치가 공존하리라고 믿는다. 그 가치들과 기본소득을 잘 엮어내고 너른 연대를 확장하는 것이야말로 선거 이후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아닐까? 더 소란스럽고 부산스럽게 기본소득 정치를 함께 해나갈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욱 단단하고 끈끈해지기를 기대해본다.

## 우리가 기본소득을 원하는 이유

### 진형익

창원특례시의회  
시의원(더불어민주  
당 비례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회원 진형익입니다.

다시 한번 계간지를 통해 회원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아 참! 그리고 얼마 전에 저의 일상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지난 6월 1일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창원특례시의회)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응원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또 다른 일상에서 기본소득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고민하게 된 계기는 바로 ‘삼성서비스센터’입니다.

대략 2014년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공과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공과대 친구들끼리 나눈 이야기는 “학점과 토익 점수만 잘 관리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괜찮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배나 친구들도 그렇게 취업에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서관과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학점과 토익 점수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교하는 길에 삼성서비스센터의 수리기사님들이 길거리에서 농성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공과생이기도 했고, 단순히 ‘삼성’이라는 것 때문에 관심이 가서, 잠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

보았습니다. 사회를 잘 몰랐던 저에게 기사님들이 말해주는 이야기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선 그 당시 저는 삼성서비스센터 수리기사님들이 삼성그룹의 정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이 아니었습니다.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지도 않았고, 외주 용역으로 고용하고 있었던 사실에, “삼성이라는 글자가 붙는다고 삼성의 직원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우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월급제라기보다 오히려 건당 보수를 받는 임금체계였던 것 같습니다. 성수기에는 서비스 업무상 초과근로가 대부분이었고, 24시간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하지만 비성수기에는 최저 생활비도 벌지 못해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수리기사님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센터를 돌연 폐업(위장 폐업)하는 방법 등을 통해 수리기사님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학점과 자격증을 유지하면 취업할 수 있고,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더이상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참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본소득’ 말고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질수록, 우리 사회 다양한 격차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일자리 형태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었고 이에 대부분 시민은 좋은 일자리 보다는 그렇지 못한 일자리로 이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접하기도 했습니다. 로봇, 키오스크, 애플리케이션의 등장은 단순 기계조작, 판매·청소·경비·주문 등의 노동을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했고 디지털 플랫폼 배달 대행, 프리랜서 등의 등장은 고용불안과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동자, 임시계약직 및 불안정 고용 노동자, 사회적 취약 계층은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것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산업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는 높아지고, 내 집 마련, 내 일 마련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에 대해 고민하다, ‘기본소득’을 알게 되었고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을 떠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가장 근접한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었습니다.

제가 7년간 알아 온 30살 된 동생이 있습니다.

장애(3급)를 가지고 있으며, 부모님에게 버려져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워서 4년 전 수도권(인천)으로 올라갔습니다. 수도권으로 올라간 이유는 창원보다 아르바이트 수도 많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때문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행사 무대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이 사라졌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먹고 살기 위해 도보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토바이 배달보다 도보 배달을 선택했습니다.

도보 배달 일을 하면서 한 달에 평균 20~3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 벌어?”라고 질문하실 수 있지만, 도보로 배달하는 한계, 배달 수수료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서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은 휴대폰 요금, 교통비, 월세인데, 동생에게 휴대폰 요금과 교통비는 배달 노동의 생존과 맞닿아 있는 지출입니다. 물론 다른 직장을 안 구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번번이 직장 구하는 건 실패했습니다.

구청, 시청, 행정복지센터, 국회의원 사무실, 의회 등에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담당이 아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상담을 안 하고 있으니 돌아가라’라는 대답만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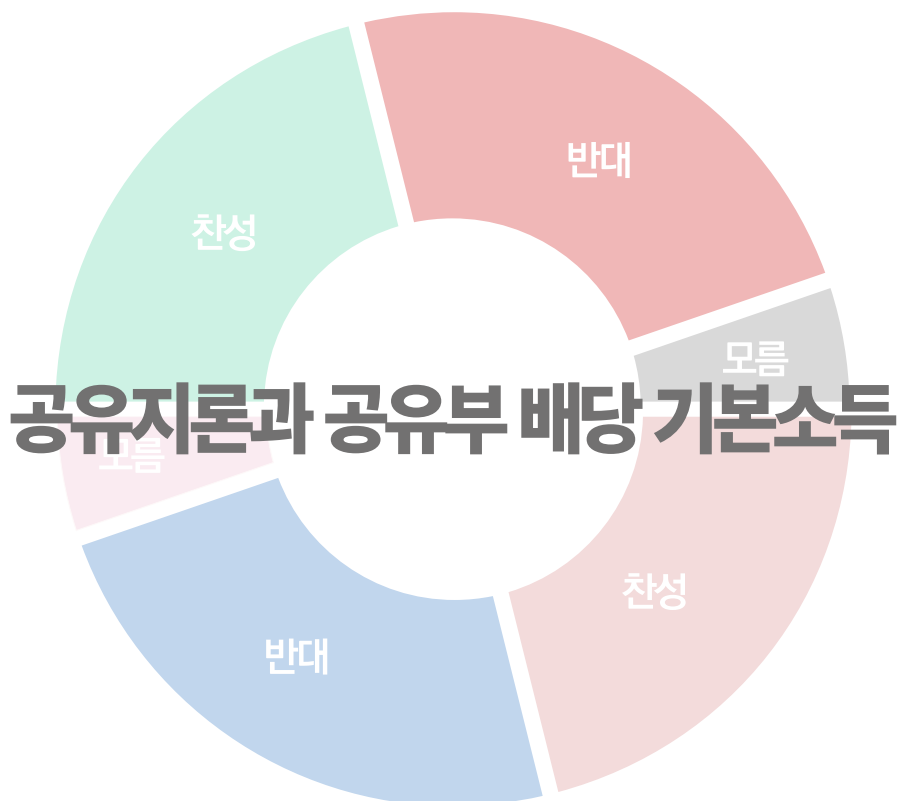
동생은 저한테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도 하는데, 통장은 자꾸 마이너스인 게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최소한 인간답게 살고 싶고, 거리 노숙자가 되긴 싫어요”, “그래도 한 번씩은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싶어요”.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상황에 직면한 시민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중 최소한의 소득 보장이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 정책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엄하고, 최소한의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기본소득’ 말고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도 저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다양한 고민과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정 활동하면서 ‘기본소득’을 풀어나가는 것도 저에게는 새로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과제에 있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함께 고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BasicIncome: 논점



## [기획자의 말]

기본소득의 정당성으로 실질적 자유주의론, 공화주의적 자유주의론, 플랫폼자본주의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능적 필요성론 등이 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들 기본소득의 정당성론들이 공유하고 있는 근저에는 공유부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공유부에 대한 정기적 현금배당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부common wealth 논의는 오랜 시간동안 논의가 있어왔던 공유지commons론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지, 공유자commoner, 공유화commoning에 대한 학술적, 실천적 관심은 오랜동안 있어왔지만, 공유부 배당론으로의 연결지점은 주목을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간 기본소득에서는 이번호 부터 공유지론과 공유부 배당론 사이의 결합지점들을 찾아보고자 몇 차례에 걸쳐 기획으로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호는 그동안 공유지론에 꾸준히 천착하여 연구해오신 정영신, 정남영 두 분으로 부터 공유지 패러다임, 공유지 운동의 현실과 전망을 짚어보았습니다.

# 커먼즈 패러다임과 기본소득

정남영 독립연구자(전 가천대 교수)

남성은 몸이 일할 만한 상태일 때 일을 하는 한에서는 일을 하든 안 하든 죽는 날까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여성은 몸이 일할 만한 상태일 때 일을 하는—살림을 하거나 아이들을 키우거나 하는—한에서는 일을 하든 안 하든 죽는 날까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살아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D. H. 로런스, 1915년 2월 12일 버트런드 러셀에게 보낸 편지.

우리는 삶형태의 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서있다. 근대 이후 자본이 스스로를 (재)생산 하면서 사회적 삶을 (재)생산해왔고 이 방식이 지구 전체를 포섭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제 그 결과로 지구에서의 삶이 크나큰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경제가 삶의 유지와 번영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에서 커먼즈 패러다임이 자본의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기본소득(보장소득, 시민소득)이라고 불리는 것이 이 패러다임의 주요한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임을 말하고자 한다. 지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이 상세히 설명되지 못한 채로 제시될 것이다. 이는 다른 곳에서 (꼭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보완되리라고 생각한다.

## 삶과 자본주의

스피노자Baruch Spinoza에 따르면 한 사회의 상태의 핵심은 그 구성원들의 활력이 협동적으로 연결되어 도달한 상태 즉 “각 개인의 활력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정신에 의해 인도되듯이 인도되는 다중의 활력<sup>1)</sup>potentia”의 상태이다. 이는 곧 그 사회의 삶의 상태이다. 그리고 삶의 관점에서 경제란 몸들이 모여 이룬 ‘더 큰 몸’으로서의 다중의 활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도 다중의 활력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방해하는가의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맑스Karl Marx의 자본분석의 장점은 이 측면을 균형 있게 포착한 데 있다.

사실 활력의 유지와 증가 그리고 ‘더 큰 몸’의 형성은 생명이 지구에 출현한 후 진화해온 과정의 핵심이다. 단세포생물에서 생명이 출현한 후 현재의 지구 규모의 인간의 삶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생명체에서 고도로 복잡한 유기체로 변전해온 삶은 항상 두 가지 유형의 상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현재의 상태의 유지이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더 고도의 상태로의 상승이다. 전자를 뇌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Antonio Damasio는 호메오스타시스homeostasis의 첫째 측면 - ‘생존’ - 이

1) 스피노자, 『정치론』3장 2절.

라고 부르고 후자는 호메오스타시스의 둘째 측면 - ‘미래로의 투사’ - 이라고 부른다.<sup>2)</sup>

스피노자의 용어를 빌자면, 전자는 ‘코나투스(conatus)’(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노력), 후자는 ‘아모르(amor)’(다른 몸과 함께 더 큰 몸의 형성)에 상응한다. 이 글에서는 그냥 전자를 활력의 유지, 후자를 활력의 증가라고 부르기로 하자. 전자가 환경과의 평형관계의 유지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환경과의 새로운, 더 활력있는 관계로의 도약을 의미한다. 만일 전자가 없었다면 생명은 출현하자마자 스러지고 말았을 것이며, 후자가 없었다면 아직도 지구는 박테리아들만의 세계일 것이다.

어떤 환경을 가정할 때 그 환경 속의 몸들의 활력이 잘 유지되고 더 나아가 증가되려면 힘들의 흐름이 원활해야 한다.<sup>3)</sup> 호메오스타시스란 힘의 출입을 조절하는 것이지 들어온 힘을 놓지 않고 구두쇠처럼 꺾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환경 안의 모든 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힘의 흐름이 원활할 때 그 환경 자체가 하나의 몸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맑스가 자연을 인간의 ‘비유기적 몸’이라고 말했을 때 맑스는 지구 전체가 하나의 몸이라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다. 자본주의의 출현은 이 큰 몸이 분리되는 과정, 인간의 유기적 몸과 비유기적 몸 사이의 물질대사가 단절되는 과정을 전제로 일어났다. 국가가 맹활약을 한 이른바 시초축적 과정은 바로 이러한 분리로 향한 길

을 다지는 과정이며, 맑스가 말한 ‘소외’의 핵심도 (무슨 추상적인 본질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바로 이것, 즉 힘들의 흐름의 단절이다. “역사적과정은 지금까지 결합되어 있었던 요소들의 분리였다. 그 결과는 따라서 요소 중 하나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것에 대해서 부정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에는 (잠재적으로) 자유로운 노동자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잠재적으로) 자본이 존재한다.”<sup>4)</sup>

### 자본주의와 생산력의 발전

물론 자본주의가 단절과 분리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삶권력(biopower)인 한에서 자본은 “살게 만들고 죽게 ‘내두는’ 권력”이다.<sup>5)</sup> 자본의 ‘살게 만드는’ 측면은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서 맑스가 명시한 “자본의 사명”인 “노동의 생산적 힘들의 발전”(325)을 달성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인류가 삶의 유지를 넘어 삶의 “전진적 재생산 과정 즉 항상 더 확대되는 풍요로움을 낳는 재생산과정”(325)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데 자본이 기여한 바이다. 물질의 흐름이라는 주제와 연관해서 말하자면, 자본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맑스가 “외부교역이 주는 문명화하는 영향”(256)이라고 말한 것, 네그리-하트가 말한, 사회적 관계와 삶 형태를 창출하는 자본주의의 힘이 바로 그것이다.

2) Antonio Damasio, *The Strange Order of Things*, p. 24. Knopf Doubleday Publishing Group. Kindle Edition. 다마지오는 ‘homeostasis’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homeodynamics’라는 용어를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더 선호한다. 자기조직화의 역동성을 더 잘 표현하기 때문이다.

3) 나는 이 글에서 대체로 ‘힘’은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활력’은 좁은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모든 사물은 그 자체로 힘이다. 그러나 힘이 ‘활력’으로 작용하는가 아닌가는 작용대상의 특성과 작용하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가령 거의 모든 인간을 죽일 수 있는 독약은 인간에게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파괴력이 아닌 ‘활력’이 아니다. 또한 인간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기에 일반적으로 활력의 담지자인 물질자라도 홍수의 경우처럼 많은 양이 한데 모여 움직이면 거대한 파괴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4) Karl Marx, *Grundrisse: Foundations of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Rough Draft)*, trans. Martin Nicolau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93, p. 503. 앞으로 이 저작에서의 인용은 면수만 본문에 표시하기로 한다. 인용 면수는 편의상 펄컨 영어본을 기준으로 했으나 우리말 옮김은 독일어본을 기준으로 하였다. [한국어본 : 김호균 옮김,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I, II, III, 백의, 2002.].

5) Michel Foucault, “Society Must Be Defended”: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6-77*, trans. David Macey, London: Picador, 2003, p. 241.

새로운 흐름이란 새로운 생산능력과 새로운 욕구를 의미한다. 이는 새로운 삶형태로의 전진을 향한 벡터인 것이다.

맑스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이러한 ‘사명’의 정점에서 자본 이후의 사회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 놓는다. 이 조건이란 객체의 측면에서는 전지구적 연결성이며,<sup>6)</sup> 주체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지구 규모로 전면화된 연결관계를 지성과 감성에 내장한 ‘사회적 개인’의 출현이다. 맑스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그 사명을 다한 후 죽은 피부처럼 벗겨져나갈 것으로 추론한다. “인간의 활동이 취하는 마지막 형태의 노예상태—한편으로는 임금노동,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은 따라서 이렇게 피부처럼 벗겨지며 이러한 탈피는 자본에 상응하는 생산방식의 결과이다.”(749) 그러나 “죽게 놔두는 권력”으로서의 자본이 행한 일은 결코 무시될 수 없다. 사실 “죽게 놔두는”이라는 말은 불충분하다. 흐름의 단절을 바탕으로 출현하였으며 자신의 증식을 위해 삶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본은 그 본성대로 물질의 흐름에 단절과 왜곡을 가져오기를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론』1권 15장 10절과 3권 47장 5절에서 맑스가 짚은 핵심은 ‘인간과 토지 사이의 물질대사’의 교란이다. 토지는 인간의 또 다른 몸, 즉 ‘비유기적 몸’의 주요한 일부이다. 이 몸이 파열된 결과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환경파괴와 그에 따른 기후위기이다.

자본이 행한 더 치명적인 일은 앞에서 말한 자본주의적 주체성의 형성을 통해 일어난 일, 즉 많은 사람들을 삶에 대한 감각, 삶을 위한 감각으로부터 분리시킨 것이다. 이제 자본이 삶을 위한 자원이란 생각이 아니라 삶이 자본을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라는 생각이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 속에 굳게 자리잡게 되었으며, 따라서 자본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감지하는 감각이 삶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감지하는 감각을 압도하게 되었다. 삶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감지하는 능력을 뇌과학자들은 ‘감정가(感情價)’(valence)라고 부른다. 다마지오에 따르면 ‘감정가’의 기원은 신경체계와 정신mind이 출현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생명의 역사 전체에 걸쳐 지속되어온 능력을 훼손한 것이다. 『1844년 경제철학수고』에서 맑스가 말한, 사적 소유가 가져오는 “모든 감각들의 순전한 소외”는 주체성의 구성에 직결되는 것이기에 결코 (정치나 경제보다 부차적이라는 뉘앙스를 가진) ‘문화적’이기만 한 현상이 아니다. 삶에 대한 감각을 잃은 집단은 아무리 높은 생산력을 가지더라도 삶을 유지하고 번영시키는 경제를 이루는 데 큰 결함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사용가치를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용가치란 재화가 가진 특이한 힘을 가리키며 바로 이 힘이 생명체의 활력과 조우할 때 그 생명체에 감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치를 의미하는 ‘valor’(=value)는 라틴어 ‘valere’(활력이 있다, 건강하다)에서 왔으며 이에 따르면 ‘가치있다’는 ‘활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 생산된 재화의 경우 그 재화의 사용가치 즉 힘은 ① 노동력의 지출을 통해 형성되며 ② 재화 사용자(소비자)의 활력과 만나서 (일반적인 경우) 사용자의 활력을 증가시킨다. 함께 자유로운 삶의 공동체라면 ①과 관련해서는 지출된 노동력을 온전한 상태로 보전補塲해줄 의무를 진다. 구성원의 활력을 감소시키는 것은 공동체의 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②와 관련해서는 활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분배를 기획할 의무를 진다. 잘못된 분배는 재화의 낭비 및 구성원의 활력의 감소를 낳을 수 있고 그 결과로 공동체의 활력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6) 여기에는 자연과학의 발전, 그리고 그 지식의 기계와의 결합(‘일반 지성’)이 포함된다.



자본주의적 방식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생산 과정에서의 노동력의 지출, 특히 과잉지출(잉여 노동 → 잉여가치)이 이윤 증식의 원천이 되며 자본가의 사유재산을 불러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합법적으로’ 간주된다. 노동자의 지출된 활력을 보전하는 의무는 일정한 액수의 임금을 주는 것으로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sup>7)</sup> 재화의 분배과정은 잉여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자본가는 물건을 판매하여 손에 판매대금을 쥐는 순간 그 판매된 재화(힘의 담지자)의 향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결국 화폐의 흐름이 물질적 힘들의 흐름을 가리게 되는 것이며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환경파괴 및 그 결과로서의 기후위기인 것이다.

### 커먼즈 패러다임

‘더 큰 몸’을 형성하여 더 증가된 활력의 관계를 구성하는 원리가 바로 ‘공통적인 것’이며,<sup>8)</sup> 이 원리의 실현태가 바로 커먼즈(공동체)이다. 이것이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공통적인 것과 커먼즈에

대한 가장 간결한 정의이다.<sup>9)</sup>

자본은 생산적인 한에서는 ‘공통적인 것’의 확대를 추진해왔다. 자본이 제고한 생산력의 핵심이 바로 ‘공통적인 것’의 확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은 오로지 착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며, 이제 이 착취(사회적 생산의 결실을 사유재산화하는 것)라는 목적 자체가 삶 공동체의 전개에 장애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달리 커먼즈 패러다임은 자본에 의한 매개 없이 순전히 삶에 바쳐지는 경제를 기획한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의 활력의 유지를 견실히 확보하고 흘러넘치는 활력이 삶의 번영에 집중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여기에는 모두의 재화인 공통의 부(혹은 ‘공통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의미의 부는 서로 협동관계로 연결된 ‘다중의 활력’ 자체이지만,<sup>10)</sup> 이 활력의 객체 측면의 조건으로서 모두에 의해 공유되는 재화가 필요한 것이다.<sup>11)</sup> 공통의 부는 구성원들의 활력의 재생산에도 할당되고 여분이 있으면 새로운 삶으로의 도약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된다. 공통의 부는 자본주의에서라면 사유재산으로서의 자본의 증식에 들어갈 것이고 따라서 그것의 사용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즉 자본가들 및 자본가들이 위임한 자들에게 맡겨질 것이다. 커먼즈에서는 모든 것이 공동으로 생산되고 그 분배와 비축이 모두의 논의에 의해 결정된다.

7) 임금의 부족분(여기에는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의 임금도 포함된다)을 보충해주는 복지기금은 비록 그것이 노동자들이 힘이 있었을 때 제도화된 것일지라도, 노동자의 임금이 지출된 노동력의 재생산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시기에 들어와서 등장한 가계부채는 임금이 노동력 재생산에 못 미치는 정도가 더욱더 커졌음을 의미한다. (맑스는 「제임스 밀에 대한 논평」에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예외적인 것, 규칙이 아닌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제 이것이 규칙이 되었다.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는 고전경제학자들과 맑스가 분석한 자본주의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 것인가.)

8) 이런 의미에서 ‘공통적인 것’은 단지 인간 역사의 특정 국면의 소산이 아니라 생명 진화의 역사 전체에 걸쳐서 작용해왔다고 할 수 있다. 다마지오는 긴 생명 진화의 과정에서 작동해온 “협동의 원칙”을 이렇게 설명한다. “협동의 원칙은 항상 같다. 유기체들이 다른 유기체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얻는 대신에 무언가를 포기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그들의 삶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그들의 생존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 박테리아든 유핵세포든 세포조직이든 장기들이든 일반적으로 독립성을 포기한다. 그 대신 그것들은 공동체(커먼즈)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즉 협동적 배치로부터 생기는 재화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ntonio Damasio, *The Strange Order of Things*, p. 54.

9) 실제로 ‘커먼즈’의 정의는 단순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데이빗 볼리어David Bollier의 책 『공유인으로 사고하라』(갈무리, 2015)와 <http://commonstrans.net>의 여러 글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10) “삶 말고는 부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 기쁨, 그리고 경탄의 모든 힘들을 포함하는 삶.”(John Rukin, *Unto This Last*, § 77)

11)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가 “잘 정비된 공화국은 공공을 부유하게 유지하고 시민은 가난하게 유지해야 한다”(『로마사 논고』 1권 37장)고 말했을 때 그는 자유로운 공동체에서 공통의 부의 필요성을 말한 셈이다. 이 공통의 부를 관리하는 권리가 바로 스피노자가 말한 “사회의 최고의 권리summum Civitatis Jus”이다.(『정치론』6장 5절) 이 권리를 누구에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사회 상태가 전통적으로 왕정, 귀족정, 공화정(민주정)으로 나뉘는 것이다.

커먼즈 패러다임이 자본의 패러다임의 뒤를 잇기 위해서는 자본이 이루어놓은 생산력보다 적어도 더 낮지는 않은, 바람직하기로는 더 높은 생산력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다음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커먼즈 패러다임은 소유자, 생산자, 분배자의 통일을 전제로 한다. 우선 이윤의 제거는 생산에서의 낭비를 방지한다. 애초에 한 사회의 활력의 총합은 “각 개인의 활력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정신에 의해 인도되듯이 인도되는 다중의 활력”에 의해 결정된다. 이윤은 이 총합에서 빼내어진 것이며 자본가는 이윤을 이 총합으로 되돌리는 것을 의식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더욱이 현대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주된 부분은 아예 생산과 정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이윤(이자)의 추출을 노린다. 이제 자본은 스스로를 (재)생산하면서 사회를 (재)생산하는 ‘생산의 제왕’이 아니며, 생산에의 족쇄이다.

둘째, 모두에 의한 결정이 공통의 부가 가장 생산적으로 쓰이는 방향을 정한다.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란 공통의 부로 들어가야 할 것을 몇몇 개인들이 사유재산으로 축적하고 그 축적된 부의 사용을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수가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문제점은 왕정이나 귀족정의 문제점과 원리상 동일하다. 민주정 혹은 공화정에서도 다중의 결정이 잘못될 수 있다. 그러나 1인이나 소수의 결정에 맡기는 데 비하면 더 현명하고 더 안전하다.<sup>12)</sup> 따라서 현재 축적된 모든 부를 가장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모두에 의한 결정을 통해서이며, 이렇게 관리된 부가 가장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것이다.

12) 마키아벨리가 『로마사 논고』 1권 58장에서 이러한 견해를 피력한다. 스피노자도 이렇게 말한다. “안전하고 좋은 삶을 살려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한다.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무제한의 권리를 공동의 소유 아래 두어야 하며 이 권리는 더 이상 개인의 강함과 욕구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의 힘과 의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신학정치론』 16장)

셋째,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재화 혹은 비물질적 생산물의 등장은 자본을 큰 곤란에 빠뜨렸다. 자본은 애초에 교환관계에서 나왔고 교환은 기본적으로 희소성에 기반을 둔다. 그런데 디지털 재화는 희소성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은 희소하지 않은 것을 희소하게 만들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울타리를 세워서 디지털 재화에의 접근을 제한한다. (‘제2의 종획’) 지식·정보·데이터는 자유롭게 공유될수록 사회의 생산능력을 높이는 데, 자본의 ‘제2의 종획’은 이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커먼즈 패러다임에서는 디지털 재화는 전지구적으로 자유롭게 공유되고 물질적 재화의 흐름은 지역에서 순환되는 것으로 기획된다.<sup>13)</sup>

### 커먼즈에서의 분배와 기본소득

소유자, 생산자, 분배자의 통일을 전제로 하는 커먼즈는 복지국가의 ‘재분배’를 넘어서 ‘선분배 pre-distribution’을 지향한다. ‘선분배’라는 용어는 예일대의 정치학자 해커 Jacob Hacker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내용상으로는 이미 맑스가 사회화된 생산에서 추론했던 바 있다.

둘째 경우에는 전제 그 자체가 이미 매개되어 있다. 즉 공동체적 생산, 생산의 토대로서의 공동체성이 전제되어 있다. 개인의 노동은 처음부터 사회적 노동으로서 정립된다. 그래서 그가 창조하거나 그 창조작업을 돕는 생산물의 특수한 물질적 형상이 무엇

13)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 ‘전지구적 수준에서 디자인하고, 지역 수준에서 제조하라’(Design Globally, Manufacture Locally, DGM)이다. 이는 전지구적 규모의 오픈소스/오픈디자인 생산논리를 지역 규모의 지역-네트워크 생산과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http://commonstrans.net/?p=797> 참조.

이든, 그가 자신의 노동으로 산 것은 특성의 특수한 생산물이 아니라 공동체적 생산에의 특성의 참여이다. 따라서 그는 교환해야 할 특수한 생산물이 없다. 자신의 생산물은 교환가치가 아니다. 생산물은 각자에게 일반적 성격을 가지기 이전에 먼저 특수한 형태[화폐—인용자]로 옮겨져야 할 필요가 없다. 교환가치의 교환에서 필연적으로 창출되는 분업 대신에 각자가 공동체적 소비에 참여하게 되는 노동의 조직화가 발생한다.(172. 밑줄은 인용자의 것.)

모두가 공동체적 생산에 참여하고 공동체적 소비에 참여하는 것은 커먼즈 공동체의 기본적 성격에 속한다. 여기서는 ‘선분배’가 필연적이다. 생산에 투여되는 힘들이 ‘언제나 이미’ 흘러넘치도록 충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자본주의의 현실적 작동에서 노동력은 판매됨으로써만, 교환에 의해 매개됨으로써만, 즉 ‘사후에’ 사회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다시 말해서, ‘사후분배’이다. 이러한 분배방식이 노동력의 재생산에 미흡하게 될 때, 그리고 노동자들의 힘이 강할 때 ‘재분배’가 ‘복지’의 이름으로 등장할 수 있다. ‘재분배’는 ‘사후분배’를 보완하지만,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한계를 넘어서 수 없다. ‘사후분배’는 삶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판매되지 못한 노동력, 즉 발휘되지 못한 힘들의 낭비를 낳는데, ‘재분배’는 이 낭비를 다소 완화시킬 뿐이다.

우리에게는 나중에 최선으로 보충을 받아야 겨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힘이 아니라 이미 넘쳐흐르는 힘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힘의 과도함이야말로 힘의 증거이다.”<sup>14)</sup> ‘선분배’에 기

반을 둔 커먼즈 패러다임은 맑스가 말한 “개인들의 보편적 발전과 그 공동체적, 사회적 생산성을 사회적 부로 삼는 데 기반을 둔 자유로운 개인성”(153)의 실현을 지향한다. 이러한 자유로운 개인들의 전지구적 네트워크-‘커먼즈들의 커먼즈’-만이 지구에서의 삶이 처한 위기에 가장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기본소득은 ‘선분배’의 특정 국면, 특정 맥락에서의 이름이다.<sup>15)</sup> 사실 ‘선분배’란 말은 ‘분배’, ‘재분배’ 등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와 연관된 용어들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근본적이지는 않다. (정상적인 가족의 경우 우리는 소득이 가족들 사이에 ‘분배’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분배’라는 말 대신에 삶의 활력의 유지 -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삶의 미래로의 투사를 위한 준비로서의 유지 -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살림’이 가진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리라. 자본의 관점에서 ‘household economy’(가정경제)가 확대되어 ‘political economy’(정치경제) ‘national economy’(국민경제)가 되었다면, 이제 삶의 관점에서는 한 집의 ‘살림’이 확대되어 사회라는 큰 집의 ‘살림’이 된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결코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의 생각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든 우연한 일로든 오랫동안 성찰해온 과정의 끝에서든) 크게 바뀌는 ‘돈오頓悟’의 순간이 있지만, 그 사람의 몸과 정신이 전부 바뀌기 위해서는 ‘점수漸修’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 사회변화도 이와 꼭 같다. 거대한 전환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른 점진적 변화의 연속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기본소득은 이 점진적 변화 가운데 하나의 목표로서 인류의 시야에 떠오른 것이다.

14) Nietzsche, Friedrich, Twilight of the Idols or, How to Philosophize with the Hammer, trans. Richard Polt, Indianapolis and 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1997, p. 3.

15) 커먼즈에서의 ‘선분배’는 파트너 국가에 의한 기본소득 정책 시행과 동일하지 않지만, 양자 모두 커먼즈 패러다임이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커먼즈 패러다임을 말하는 것은 실제 커먼즈를 구축하는 운동보다 더 포괄적이다.

# 공동자원의 섬 제주의 현실과 커먼즈운동의 전망

정영신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2016년에 제주대학교 공동자원연구센터에서 펴낸 두 권의 저서는 당시까지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던 커먼즈commons 연구의 성과를 집대성한 것으로, 『공동자원의 섬 제주1, 2』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커먼즈는 공유지, 공유재, 공동자원, 공통자원, 공통재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마을숲, 마을공동목장, 마을공동어장, 공동우물 등 지역 공동체가 함께 이용하고 관리하던 자연자원과 그 관리제도를 지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현대사회 속에서도 생산되는 도시공원이나 거리, 마을축제, 시간은행 등의 사회적 커먼즈, 위키피디아 등의 지식 커먼즈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여, 현대적인 도시 자체를 커먼즈로 사고하는 흐름도 등장하고 있다.

한국에서 커먼즈는 식민지 지배, 전쟁, 분단, 국가폭력, 그리고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대부분 해체되거나 파괴되어 왔다. 또한 그것을 지칭하는 용어도 소실되어, 오늘날 공유지나 공동자원, 공통재를 이야기하자면 한참이나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커먼즈가 해체되어 온 과정은 미국의 인구학자였던 가렛 하딘Garrett Hardin이 이용자 집단 내부의 협력의 부재로 인해 커먼즈가 파멸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커먼즈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과는 다르다. 오히려 공동체 외부의 국가권력과 자본에 의한 압력으로 공동체가 파괴되거나 공동

체와 공동자원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는 ‘공동체의 비극’에 가까웠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도 농촌 마을에 마을숲이 존재하거나 어촌 마을에 공동어장이 존재하는 곳이 있지만, 전통적인 커먼즈는 우리 주변에서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제주도에는 여전히 마을공동목장이나 공동어장과 같은 전통적인 커먼즈가 상대적으로 풍부하며, ‘공동자원의 섬’이라는 호명은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잘 포착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커먼즈 연구 역시 제주도의 사례를 많이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의 상황도 녹록하지 않으며 그 내실은 복잡하다. 육지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근대화가 진행될 때, 제주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태였다. 4·3사건으로 제주의 지역 공동체들이 파괴되었지만, 1950~60년대 목축산업과 수산업이 빠르게 회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마을공동목장과 어촌계도 재편되고 회복되었다. 제주의 상대적 ‘낙후성’이 역설적으로 ‘공동자원의 섬’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국가의 관광개발정책에 의해 제주가 근대화된 한국 경제의 하위 식민지로 재편됨에 따라 ‘공동자원의 섬’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감귤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목초지는 감귤 밭으로 전환되었고, 비료와 농기계가 보급되면서 농업과 목축업의 순환고리가 파괴되었다. 특히 1980

년대 중후반, 두 번에 걸친 ‘소값 파동’은 마을공동목장 위주의 제주 목축산업에 괴멸적인 타격을 가져왔다. 이전까지 농가 당 1~2마리의 소, 말, 돼지를 기르던 제주의 농가들은 더 이상 목축을 하지 않게 되었고, 목초지와 숲으로 이루어진 공동목장은 커먼즈에서 부동산으로 재인식되기 시작했다. 때마침 육지의 자본이 들어오면서 제주의 마을공동목장은 리조트나 골프장의 부지로 팔려나갔다. 제주도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 67개소에 달하던 제주의 공동목장은 2021년에는 51개소(마을공동목장은 33개소)로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형태의 커먼즈가 급속하게 축소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커먼즈를 주목해 보아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커먼즈론은 인간의 삶의 방식이 지닌 세 가지 ‘공동성’에 주목한다. 우선, 인류는 지구라는 복합적인 생태계 속에서 진화하고 생존해 왔으며, 그 삶의 터전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상속받아 왔다. 각 국가별로 엄밀한 영토적 경계를 지니고 있고 토지가 각 개인들의 소유물로 취급되고 있는 오늘날, 이 같은 주장은 논쟁적일 수 있다. 하지만 자연적 자원과 공간, 세계문화유산과 같은 인류 공동의 유산을 누군가 독점하려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부당하게 느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철 해변가에서 함께 해수욕을 즐기거나 한강 수변공원에서 나들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은 지구의 공간과 자연자원, 역사적 유산을 우리 모두가 함께 물려받았으며 다 같이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상식에 기초하고 있다.

둘째, 커먼즈의 대상이 되는 공동자원은 공동으로 물려받는 자연자원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구성 원리가 지닌 공동성으로부터도 형성된다. 현대사회의 구성 원리를 밝힌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사회의 구성원들은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과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정치공동체

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는 생명과 생계 보장에 꼭 필요한 필수재를 구성원들에게 제공하거나 필수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깨끗한 물과 공기, 식량, 현대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나 에너지, 더 나아가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접근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공동의 노동과 활동을 통해 공동의 부를 생산하며, 공동의 부를 활용하거나 소비함으로써 생산과 재생산 활동을 벌인다. 예컨대, 우리는 언어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태어나 언어 사용과 관련한 규칙을 습득함으로써 비로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며, 기존의 지식 생태계 내에서 오래된 지식 자원을 습득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창조한다. 노동 과정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현대의 사적소유권 제도 하에서 우리는 창출된 공동의 부를 각 개인들이 나눠 가지거나 자본의 소유자가 통제하는 방식에 익숙하다. 하지만 위키피디아처럼 지식 자원을 공동의 부를 늘리는 방식으로 생산하거나, 지역의 마을 축제나 시간은행처럼 개인들의 시간이나 자원을 공동의 부의 일부로 기탁하거나 양도할 수도 있다.

이처럼 전통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삶도 공동의 자원과 부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의 부를 생산하거나 분배하는 과정에 무임승차를 하거나, 공동의 부를 수탈하는 과정을 장려하는 사회적 과정이 진행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 이념 하에서 추진된 민영화와 사유화 정책이나 제주도의 근대화 과정을 규정해 온 관광개발정책 역시 공동의 부와 자원을 소수의 자본가나 개발업자에게 이전하려는 시도였다. 페데리치(Silvia Federici)와 같은 학자들은 1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국가와 자본에 의해 이루어진 공동의 부에 대한 전지구적인 수탈 과정을 뉴인클로저(New Enclosure)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 과

정에서 오히려 커먼즈가 재발견되었으며, 뉴인클로저에 저항하고 커먼즈를 지키기 위한 저항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최근 제주에서 가장 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제2공항 건설 문제’ 역시 새로운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세력과 공동의 부와 자연을 지키려는 세력 사이의 투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어장이나 마을공동목장 등 전통적 커먼즈를 둘러싼 갈등도 빈번해지고 있다. 마을어장의 경우에는 어장의 수산자원을 이용하려는 해녀들과 바다를 레저스포츠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스쿠버다이버 사이의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고, 바다에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려는 정부와 이를 저지하려는 어촌계 사이의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기후변화와 바다오염에 의해 수산자원이 점차 고갈되고 있으며, 마을어장 이용자인 해녀들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마을공동목장의 경우에 그 숫자와 면적이 줄어들고 있지만, 농민들의 목축 문화가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어서 목초지와 숲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식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공동자원의 섬’인 제주의 커먼즈를 지키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자원 보전 조례’ 등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커먼즈의 존재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마을어장이나 공동목장 등 전통적인 커먼즈들은 지역 공동체의 커먼즈community commons로 인식되고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여기에서 폐쇄성이 더 커지면, 소수의 소유물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지닌 공동성에 주목한다면 커먼즈가 지닌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는 구상이 필요하다. 커먼즈를 지키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개별 커먼즈들을 연결하여 커먼즈

의 생태계를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커먼즈가 지닌 공공성에 주목하여 공공 커먼즈public commons를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가의 관광개발정책과 개발주의 정책 등에 노출되어 위협받고 있는 마을어장이나 마을공동목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별 커먼즈들의 연합을 통해 커먼즈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제주의 풍부한 바람 자원을 활용한 풍력 발전을 민간사업자와 개별 공동체와의 계약에 맡겨 두거나 제주도정의 독단적인 관리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도민의 민주적 참여와 통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지하수를 공수公水로 관리하고 있지만, 민주적 통제가 미비하며 지하수 개발의 수익 역시 제대로 배분되지 않고 있다. 公水=官水를 진정한 의미의 공공재, 공공 커먼즈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지하수)에서 출발하여 바람과 공기, 토지, 숲, 바다와 해안 등이 지닌 공공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커먼즈운동의 지향이 될 것이다. 공동의 부를 확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공동의 부를 보호하고 도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필수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공동자원의 섬’이라는 호명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객관적 묘사라기보다는 공동의 미래를 위한 전환을 바라는 정치적·학술적 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내 삶에서 튀어나온 기본소득, 이제는 정치의 장으로”

문지영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 대표

인터뷰어

한인정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

편집자주: 75년생 문지영.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기본소득운동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익숙하다. 그런 그가 지난 8회 지방선거 전남 광역비례의원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주변 반응을 물어보니, ‘그럴 줄 알았다’는 답이 이어진다. 이런 답을 듣는 경우는 크게 두 부류다. 정치인이 되겠다고 여기저기에 말을 하고 다닌 과거가 있거나, 정치인이 될 수 밖에 없는 삶을 살아온 경우다. 우선 그는 ‘나는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말한다. 궁금해졌다.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길래 주변에서 정치인이 될 수 밖에 없는 삶이라고 간주하는 걸까. 그리곤 시작된 인터뷰. 인터뷰가 끝나 갈 때쯤 나도 느꼈다. ‘그래, 이런 사람이 정치해야지. 그럴 줄 알았네’라고 말이다. 혼자 담아두기, 너무 가까운 이야기라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 나누고 싶다. 독자 여러분도 한 번 그의 삶 속으로 빠져보셔라. 글은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쓰여 졌으며, 그의 입장에 서서 그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경험에 대해 그의 말투로 풀어내고 있다. 인터뷰 방식의 지면에서 이런 글쓰기를 진행한 점에 대해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 수학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한 가장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숫자가 너무 좋았다. 인문계를 가고, 교대를 가고,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했지만, 그저 헛된 ‘바람’이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작은 마을이다. 길잡이도 없을뿐더러, 아버지와 일찍부터 함께 살지 않아 4남매 중 큰 딸로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우선이었다.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하기도 벅찼다. 중학교를 졸업하곤 방직공장에 취직하려 했지만, 선생님의 설득으로 장학금을 받고 실업계에 들어갔다. 19살에는 안산에 있는 제약회사에 취직을 하면서 수도권으로 올라갔다. 또래들이 캠퍼스라이프를 즐길 시간, 데모를 한다며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거리를 걸을 시간, 아침부터 밤까지 주중부터 주말까지, 돌아가는 기계 앞에 서 있었다. 받는 월급은 대부분 집에 부쳤다. 나만 조금 고생하면, 먹고 사는 걱정도 동생들의 학비가 밀릴 일도 없었으니 말이다. 그렇게 나의 20대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24살,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고향에 내려오게 됐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뭐라도 해야 했었다. 그 때 피부관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직원부터, 실장까지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았다. 살아냈다고 보는 게 맞겠다.

노동자노래기획단 ‘바람꽃’이라는 곳에서 활동하던 친구가 어느 날, 몇 시, 어디로 오라는 이야기에 들어간 민중가

요동호회 ‘벗’. 그 곳에서 만난 인연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운명이었던 것 같다. 이후엔 동아리를 통해 인연이 닿아, 평화캠프 목포지부 공세알인연맹기학교 자원활동도 시작했다. 월 2회 발달장애 어린이와 만나는 활동이다. 생각이 깨지기 시작했다. 가난했던 시절을 개인적인 노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만 생각하다가, 이것이 사회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도 배우기 시작했다. 정치의 중요성도 깨달았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누군가의 일일 뿐, 나의 일은 아니었으니.’

그러다, 꽤나 큰 변곡점을 만났다. 40살, 산티아고다. 인생의 여러 질곡들을 무사히 치러냈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쳤으니, 이제 내 삶을 시작해볼까 그런 마음이었다. 우연히 마주친 산티아고 순례길의 사진이 끌렸다. 3년짜리 적금의 만기가 되던 날 하던 일을 모두 멈춰두고 산티아고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산티아고 순례길, 힘들었던 만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제가 사람들에게 산티아고 ‘걷기 전의 지영과 걷고 나서의 지영’이 있다고 해요. 제가 영어, 스페인어 잘 못하니까 순례길을 걷는 동안 주변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보니 말을 안 하게 되고, 혼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엔 스쳐 가는 생각도, 깊어지는 생각도 있었어요. 특히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원망,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 등등을 돌아보고 남아있는 감정을 살펴보게 됐죠.”

나와의 대화가 시작됐다는 건, 내 삶을 반추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다. 특히 자원봉사, 민중가요 동아리 활동 등에서 빈곤, 장애를 공적인 시선으로 돌아보는 훈련이 몸에 배인 터였다. 나와 가족 속에 얹혀있던 온갖 사회문제들의 이면이 보였다. 그제야 얹히고 설킨 감정의 화살들을 우리를 그 자리에 홀로 내버려 둔 국가에 돌릴 수 있게 됐다. 이제 조금씩 서로를, 또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그 뿐 아니다.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앞으로를 바꾸기 위한 용기도 생겼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슈가 무르익을 때였다. 선배가 정당 활동을 제안했다. 생각해본 적 없는 일이라 처음엔 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서울 촛불집회를 다녀오며 마음이 바뀌었다. 사회문제가 내 삶에 그토록 영향을 미쳤다고 여긴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그냥 이렇게 한 걸음 뒤에 서서 바라보기만 해도 괜찮은 걸까. 이 소극적 동조가 불평등, 부패를 강화하는 것은 아닐까. 정치가 내 맘으로 다가왔다. 정치로, 정책으로 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꿔보겠다는 결심이 짙어졌다. 2017년 2월 말, 하던 일을 모두 접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다.

## 내가 사는 곳을 바뀌나가는 정치, 기본소득은 그 기반!

그렇게 정치를 하던 중, 2020년 기본소득당 창당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 사실 기본소득은 맘에 오래 품어온 생각이다. 우연히 봤던 다큐멘터리가 시발점이었다. 북유럽의 복지 이야기로 여러 복지 시리즈를 다뤘다. 그 중에서도 호스피스, 안락사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다.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다. 죽음을 다룬다고? 당장 내 주변도, 그리고 나도 오

늘을 살아내기에 급급한 상태였다. 죽음을 고민하는 건 호사스러운 일이었다. 복지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야기도 낯설었다. 영세민(현재 기초생활수급자)으로 살아왔던 기억, 선별하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낙인, 증명하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의심의 눈초리, 의도적으로 자존감이 짓밟힌 시간이 어제 일 같은데 말이다. 같은 시대, 같은 지구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토록 다를 수 있을까? 도대체 지구 저 건너편에선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조성된 건지 궁금증이 깊어졌다.

“진짜 이상하죠. 어떻게 이토록 다를 수 있냐는 말이에요. 몇십 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최근에 집에 동거인 한 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수급신청부터 장애등록, 바우처 활용까지 다 혼자 신청해야 하는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 내가 혼자였다면 할 수 있었을까. 또 정보를 알려준다고 쳐도, 한국처럼 빈곤이 최악시되는 사회에서 그 굴욕적인 시선을 견뎌가며 제도 안으로 들어올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행복하다고 볼 수 있냐는 거죠.”

여러 정보들을 취합하면서 삶에 필요한 교육, 의료, 주거 등등이 공적으로 제공되고 누구든 최소한의 선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졌다. 그중 가장 와 닿는 지점은, 기본소득이다. 모두의 ‘나다움’을 공적으로 보장하는 기초다. 만약 기본소득이 있다면, 어떤 사회가 펼쳐질까. 과거에 나에게 기본소득이 있었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나와 같은 이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선사하고 싶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찾아 회원가입을 하고,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를 통해 기본소득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 와중에 방송통신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올해부터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발간하는 뉴스레터의 공동편집위원장을 맡아 기본소득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기도 하다. 기본소득이 뭐냐고 물어보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냐.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사람 위에 군림한 지 오래 됐다고 생각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물어보는 첫마디가 너 피부관리샵 하면 돈 많이 모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돈이 삶의 질을 담보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아예 돈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돈이 안 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삶의 질을 담보받지 못하는 거죠. 국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판단기준에 따라 기초가 보장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거죠. 목줄 잡고 흔드는 거잖아요. 그걸 과연 ‘나다운’ 삶의 기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정당활동으로 바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약간 뒤에서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지역에서 자원활동을 하는 것과 정치인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되기 위해선 지역의 의제를 끌어내야 했다. 심지어 그렇다

고 하더라도 기성 정치권의 공천을 받기 위해선 의제나 정책보단, 남성-고학력-유지 등의 조건이 필요했다. 주저하는 마음이 꽤나 길게 남았다.

“저는 비혼 여성이며, 빈곤했고, 군 단위 출신에, 실업계를 나왔어요.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집단의 전형성과 거리가 멀죠. 우선 지역 의회에 여성 자체가 적어요. 대부분 50~60대 고학력 남성들이 공천을 받죠. 비례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고학력, 전문직 여성 정도죠. 혹은 지역의 유지 남편이 있거나요. 왜, 지역에서 명문대 갔다고 학교 앞에 현수막을 버젓이 붙여놓는 그런 분들이 금의환향하는 자리죠. 또는 중앙정치로 가려는 디딤돌이 되고요.”

그럼에도 올해 초, 기본소득당에서 전남 광역도의회 비례대표 출마를 권유했을 때는 마음을 먹었다. 아마도 그만큼의 시간이 쌓여서다. 이 지역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지만,

늘 없는 것처럼 여겨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서다. 나의 이야기였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비혼 여성으로, 빈민으로, 저학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림자 같은 존재들. 대표되지 못하는 목소리.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경험을 하고 있는지 말하고 싶었다. 당선 가능성을 점치기보다, 이 공간에 그런 사람이 최소한 ‘있다’는 것을 말해야 했다. 그래야 변화의 수레바퀴가 굴러갈 동력이 생길 테니.

선거기간, 비례후보 선거운동은 마이크를 사용할 수도 없었다. 연설도 불가능했다. 기본소득당이라는 명함을 돌리며 열심히 인사했다. 선거차량 음악에 맞춰 춤을 추진 않았지만, 진심을 다해 선거운동에 임했다. 나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 정치가 별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썼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난생처음 들어봤다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다. 최종 결과로는 낙선했지만, 실망보다 독려가 되는 시간이었다. 최소 13,755명의 시민들이 나를 믿고 기본소득이라는 미래를 함께 상상한 셈이다. 그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 정치가 쉽지는 않지만, 꾸준히 해볼 계획이다.

특히 지역의 각종 공유지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공유부를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정치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가 남는다. 모든 것이 공유지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우선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유부를 찾아내고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방식을 고민할 것이다. 토지세, 신재생에너지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물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는 근본적으로 지소지산(소비하는 곳에서 생산하는) 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농촌을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화하는 방식은 지양하기 때문이다.

“분명 쉽진 않은 길이라 생각해요. 근데 똑같아요. 제가 18년간 피부관리를 했거든요. 이제는 들어오는 자 세만 봐도 뒷목을 어떻게 풀 것인가, 머리 마사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보여요. (웃음) 저는 제가 전형

적인 정치인은 아닐지 몰라도, 당사자 정치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이렇게도 생각해요. 이 공유지를 구성하는 수많은 공유자에게서 전형성이 있을까요? 오히려 비전형성을 드러내는 정치야말로, 모두를 대표해나가는 과정 아닐까 하는 거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잘’ 나고 ‘못’ 난 사람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될 때까지 이 길을 걸으려고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요.” (끝)

## 파문

[기획자의 말]

기본소득의 잠재성과 실현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머지않아 도래(해야)할 기본소득 세상을 다각적으로 상상해보는 지상중계 ‘파문’의 이번 호 초대손님은 ‘아주 작은 페미니즘 학교 탱자’의 탱자 씨 박이은실과 시인 이문재 두 분이다.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우리가 한 약속,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리산 산내마을에서 귀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탱자 씨, 여성학자,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 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교수 등 범상치 않은 여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박이은실 선생은 지리산권의 귀촌 생활에서 터득하고 연마한 독특하면서도 실질적인 기본소득 로드맵과 액션플랜을 제시하고 있어 흥미롭다. 박이은실 선생은 무조건적인 성장을 향해 질주하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적 성체제의 견고한 결합이 지금의 젠더갈등과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기본소득이 파국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열쇠라고 강변한다. 박이은실 선생은 그러므로 기본소득은 우선 지구가 파괴되는 것을 눈앞에 보면서도 그 미친 질주를 멈추지 못하는 자본주의 특유의 성장 강박을 끊어낼 수 있도록 탈성장의 방향과 결합되어야 하고, 더불어 소멸해가는 지방의 마을을 되살리고 비시장적 교환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박이은실 선생은 5인 집단 귀촌 기본소득제와 기본토지제도, 그리고 지역화폐를 통한 비시장적 교환의 활성화 등을 그 실행 방안으로 제시하는 바, 이러한 박이은실 선생의 제안은 지리산의 귀촌 경험 속에서 대안적 삶의 즐거움을 맛본 이만이 제시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그것이라 할 만하다. 우리가 박이은실 선생의 기본소득 로드맵을 두고 ‘지리산이 찾은 기본소득’이라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여러 많은 시인들과 마찬가지로 서정시에서 출발했으나 최근에는 누구보다도 앞서서 지구의 인류세적 재앙을 경고하고 ‘지속가능한 인류세’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시인 이문재는 기본소득을 ‘지속가능한 인류세’를 위한 최후의 보루, 혹은 그것을 위한 유일하면서도 최선(最先, 最善)의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어 인상적이다. 이문재 시인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그간 미래 세대의 몫을 일방적으로 끌어다 써 지구를 망친 노년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미래를 돌려주는 제도이자 경제적 공포에 꿈을 잃어버린 청년세대가 자기-이야기와 자기-꿈을 가질 수 있는 단단한 발판이며, 그러므로 제대로 된 기본소득의 도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동시에 시인은 기본소득 제도가 빠르게 도입되고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우리 모두의 자기성찰의 과정과 결부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지금의 생태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모든 것은 땅으로부터’의 관점이 요구되며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 농촌기본소득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한다. 들을 말이 많다.

# 지리산이 찾은 기본소득

- ‘파문’ 지상중계 #3, 박이은실 편

## 제 1부: 탕자씨의 산내마을 귀촌기

지리산 자락의 기본소득 교수 박이은실

한인정: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고정 MC 팔매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박이은실 선생님이 계신 곳 이죠, 지금 저희는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원 산내마을에 왔 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진행을 해줄 객원MC 문지영 님을 소개합니다. 지영 님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문지영: 안녕하세요? 저는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에 서 활동하고 있는 문지영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까지 는 해마다 지리산에 올랐었는데 그때마다 산내마을을 지났 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기본소득 고수를 만나려고 하니 더 떨립니다. 인정님, 오늘 함께하실 게스트는 누구시죠?

한인정: 네,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탕 자, 여성학자,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 지식순환협동조 합 대안대학 교수 등 이렇게 여러 호칭을 가지고 계신 분입 니다. 『월경의 정치학』, 『양생애』, 『페미니즘 탐구 생활』을 포 함해서 몇 권의 책을 한국어로 옮기셨고요, 《한겨레신문》의 <박이은실의 지리산 책읽기> 《한겨레신문》 토요일판의 <지리 산에서 페미니즘을>을 연재하기도 하셨어요. 몇 년 전부터 전북 남원시의 산내마을에 내려와 살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 고 계신 박이은실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박이은실: 네, 안녕하세요.

‘예전처럼은 살지 않겠다’;

기본소득의 고수가 산내마을로 귀촌한 까닭은?

문지영: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을 기본소득한국네트 워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처음 만나고 이후 강연에서 뵈 적 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지리산 자락에서 선생님을 뵈 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도시를 떠나 귀농을 해 야 되겠다는 생각을 언제 처음 하셨을까요?

박이은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귀농한 것은 아니 라고 말씀드려야 할 거 같아요. 귀농은 농사를 전업으로 지으 시는 분들을 일컫는 호칭인 것 같아요. 저는 귀촌 정도예요. 농사를 안 짓는 건 아니지만 아주 소규모, 전업이 아닌 농사 를 짓고 있으니까 귀촌한 경우인데, 지금 여기서 살게 된 지 가 한 7년 정도 됐으니까, 7년 전에 귀촌을 하게 된 거죠.

문지영: 귀촌을 결심하셔도 결단을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귀촌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실까요?

박이은실: 제가 이 질문을 사적으로도 받아보고 그랬었 거든요. 사실 이게 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세월호 사건이 계기였기 때문이에요. 세월호 사건을 얘기하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잖아요, 함부로 입에 올리기도 그렇고, 개인적인 이주 결정의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다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세월호 사건이 계기가 되었어요. 그때 우리가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다음에 나도 그렇게 돌아가는 데 어느 정도는,





한인정

어쩌면 상당히 일조를 했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즈음에 제가 하고 있던 일도 검사겸사 일종의 마무리 비슷하게 되면서, 제가 하고 있던 일들도 좀 다른 방편으로 해야 겠다고 생각했죠. 그 일에, 그 일 속에서

맺는 관계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세월호와 맞물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굳이 계기가 뭐였냐고 물어보면 세월호 사건이었다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세월호 사건 이전과 이후

문지영: ‘이전처럼’, ‘관계’,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전처럼’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걸까요?

박이은실: 제가 도시에서 살았는데요. 세월호 있고 나서 제일 저에게 힘들었던 거는 그동안에 해왔던 얘기들이나 썼던 글들이 너무 무의미한 거예요. 항상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말도 없이 항상 뭔가를 쓰고 말하고 공부하고 강의하고 뭔가를 항상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너무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약간 무기력 중에 한동안 빠져 있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다시는 쓰고 싶지도 않고 뭘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것들 자체가 너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있고. 그때 몸 담고 있던 소위 제도권 학교나 학자들의 모임이랄까 아니면 그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활동들 안에서 좋은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경쟁과 성장과 이런 얘기들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또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관계들 속에서 보이는 어떤 안타까운 것들도 있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저로서는 세월호 이후의 삶

이어야 했어요. 우리가 했던 약속들이 이런 것이었잖아요. ‘잊지 않겠다’ ‘함께하겠다’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 약속에 대한 저 나름의 약속을 지키는 방법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굳이 거창하게 얘기하면요. 물론 사소하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 산내마을의 잠재성과 산내마을 정착기

한인정: 이런 결단을 이 산내마을이라는 공간과 함께 하셨잖아요? 사실 여기 들어오면 처음 봤을 때 느슨한 공동체라고 되어 있던데, 이 판넬이 산내마을을 표현해주는 거 같아요. 여기에 자리 잡으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박이은실: 우선 산내는 여기 실상사라는 절이 있어요. 근데 그 절이 표방하는 게 마을 절이에요. 저는 그 말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특정한 종교가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마을 절, 실상사가 그동안 ‘인드라망’이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귀농 운동의 본산 같은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20여 년 혹은 30여 년 동안 그 루트를 통해서 귀농을 하신 분들이 워낙에 많이 계셨어요. 여기에 저처럼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이미 많이 와 있었고. 다른 곳들, 다른 농촌 지역들보다는 저에게 문화적인 친근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위기가 도시에서 살다가 여기에 정착한 분들이 많으니까 도시에서 온 사람들에게 대한 이해심도 있어요. 여기에 처음 오면 어쩔 수 없이 약간 버벅거리고 뭘 몰라서 저지르는 행태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는 지인한테 당시에 어떤 밭의 도라지꽃이 너무 예쁘길래 “도라지 너무 예쁘다, 저거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가 혼쭐 난 적이 있거든요. 남이 열심히 농사짓고 한 것을 그렇게 무상으로 무턱대고 얻으려는 그런 고약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너는 도시에 가서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 많다고 주인장한테 “물건이 너무 많은데 하나만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왜 여기서는 그런 소리를 하냐는 말을 들었죠. 너무 따끔하게 혼이 나고 그랬죠. 혼내는 사람도 약간 이해심 있게 혼을 낸 거죠. 그럴 법하다, 너가 아직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런 혼은 내야 되겠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다른 시골 마을보



“도시라는 곳은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내가 구매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있어야 하고 현금을 갖기 위해서는 내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고 싶은 종돈 간에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저는 썩을 되게 좋아하는데 봄이 되면 여기에 썩이 되게 많거든요, 썩을 캐 먹어요. 그러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땅이 준 선물 같은 거잖아요.”

다는 들어와서 살기에 약간 진입 장벽이 낮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게다가 여기에 지인들이 그 당시에 서너 명 살고 있어서, 그 지인들은 이 동네에 오래 살고 있었어요, 아직 귀촌하겠다는 생각이 없었을 때 왔다갔다 하다가 이 마을을 알게 됐고, 그래서인지 귀촌을 해야 하겠다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곳이 여기였고. 물론 다른 곳도 좀 돌아봤죠. 여기 저기. 다른 곳은 어떤가, 정읍도 가보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데 그때는 산내에 오겠다고 마음 먹고 다른 곳을 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왔죠.

#### 도시에서 산다는 것과 농촌에서 산다는 것

한인정: 선생님은 이미 여러 글에서 도시의 임금노동에 의존해야 되는 걸 탈피하는 대안 중의 하나로 귀촌을 제시하셨었는데, 도시에서 사는 것과 농촌에서 사는 것의 실질적인 차이점이, 아까 얘기하신 도라지 같은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이은실: 제가 여기 내려와서 살게 된 후 1년쯤 되었었나요?, 저는 여기 내려와서도 매주 한 번쯤은 일 때문에 도시에 갔었는데, 왔다갔다 할 때 잘 몰랐다가 어느 날 문득 도시에 가서 물을 먹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물을 꼭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물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차이가 너무 확 와 닿은 거죠. 도시라는 곳은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내가 구매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있어야 하고 현금을 갖기 위해서는 내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고 싶은 종돈 간에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저는 썩을 되게 좋아하는데 봄이 되면 여기에 썩이 되게 많거든요, 썩을 캐 먹어요. 그러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땅이 준 선물 같은 거잖아요. 무상의 선물이죠. 저는 그냥 감사히 먹는 거 그거밖에 하지 않고. 예를 들면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웃들이 그냥 관계가 만들어지면 먹거리도 나눠 줄 때도 있

고 뭔가 필요한 거, 이런 것도 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나에게 당장 현금이 없는데도 내가 구매하지 않은 것들이 자꾸 집에 생긴다, 그래서 뭔가 괜히 풍족하다, 이런 게 굉장히 큰 차이 같고. 그리고 도시에서는 아무리 이웃 하고 가깝게 지낸다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이웃끼리 서로 의지가 되지는 않는 거 같아요. 물론 여기도 이웃사촌이라고까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의지처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도시에서 있을 때는 내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소위 고독사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게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었거든요. 죽는 건 다 죽는 거지만 아무튼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동네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뒤를 어떻게든 봐주겠다, 그 사람들이 오겠지, 그리고 나의 죽음을 알게 하겠지 수습을 하고 이렇게 하겠지 하는 어떤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 차이들이 되게 큰 차이 같아요. 도시 생활 하고는 다른.

문지영: 선생님이 계신 곳에 와보니까 천왕봉도 바로 보이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갈지 모를 거 같거든요. 이곳에서 주로 무엇을 하며 보내시는지 하루 일과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박이은실: 굉장히 바쁘거든요. 일단 저는 식구가 셋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식구들의 먹거리를 챙기죠. 다 제가 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챙겨 먹지 못하는 우리가 키우게 된 ‘동물 반려인’들이라서. 반려 동물들, ‘동물 반려인’ 제가 그분들을 사람이라고 불려서... “야, 이 사람야” 이러면서... 아무튼 그들 먹거리를 챙기고, 그다음에 작은 텃밭에, 올해 텃밭을 시작했는데, 아침에 가서 물도 줘야되고 풀이 얼마큼 자랐는지도 보고... 엇그저께 고추도 심었거든요. 그런 거 돌보는 일들을 아침에 또 해야 되니까. 그런 일 하고 돌아와서 저도 아침을 또 먹어야 되죠. 그다음에 마당이 있으니까 마당에 심어 놓은 나무들에 벌레는 없는지 꽃은 폈는지, 추위에 잘 지냈는지 살펴보죠. 최근에 또 모종도 심고 키우고 있어서 그런 거 돌봐야 되고 너무 일이 많아요. 아침에 그 걸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아침식사를 농칠 만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점심 나절 정도가 되면, 점심 직전이라

까 그 시간이 되면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 준비를 시작하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제가 있는 이 공간이 여러 용도로 활용되는데 그중 하나가 여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묵어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분들을 맞이하고 이런 일들을 또 해야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탕지에서 수업이 있거나 세미나가 있거나 외부에서 강의 요청이 오면 또 갔다 왔다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을에서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고 하면 그런 거 해야 되니까 너무 바빠요. 이게 기분 나쁜 바쁨이 아니고 그냥 알찬 바쁨 같은 거예요. 알찬 바쁨이라서 그냥 늘 잘 지내면서 바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문지영: 선생님, 들어보니까 바쁜 일상을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그 바쁨이 다 누군가를 돌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더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 아니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간이 혹시 있으세요?

박이은실: 그러게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에 누울 때 너무 좋아요. 하루를 살았다, 아이구 이제 쉴 수 있구나 하는 그 시간.(웃음) 그래서 저는 불면증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제 나이 때가 되면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또 그다음 갱년기가 있어서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 우울증 때문에 불면증이 있기도 하고 걱정거리가 있어서 불면증이 쌓이고 한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그런데 저는 꼭 자죠. 아침까지 꼭 자고, 중간에 깨는 일이 혹 가다 있지만,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고. 그 시간이 저를 돌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 여성이 시골에서 살아간다는 것

문지영: 그러면 여성이 지역에서, 시골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고충이 클 것 같은데 그건 어떠세요?

박이은실: 그렇죠.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시골로 귀촌하신 분들 중에서는 특히 마을 안으로 들어가신 분들,





문지영

기존에 있던 마을에 혼자 들어가신 여성분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런 경우 물론 그 마을에서 어떤 사람들이 꼭 그랬다기보다는 약간의 노출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살고 있다고 노출이 돼요. 그러다 보면 마을에서 도는 이야

기를 듣기도 하고, 간혹 성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유, 좀 걱정이다 싶은데, 우리 마을에도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어요? 그렇지 만 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꽤나 안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마을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죠. 여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저와 유사한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 도시에서 왔거나 한 분들이어서 어느 만큼 거리를 두고 어느 만큼 개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약간 합의가 되어 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손가락이 몇 개 있고 밥 공기가 몇 개 있고 그렇게 알지 않아요. 서로 거의 뭐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살고 그렇지만 또 필요하면 관계를 맺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건 좀 없는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장이 되신 분이 남자분이신데 여기에서 꽤나 오래 사셨던 거의 원주민 격인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여러 경로로 뵈는 적이 있는데 볼 때마다 저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거의 바깥을 잘 나가시지 않는 어떤 남자분은 되게 잘 아세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네트워크의 거점들이 만들어지는 형국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의 와이프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이 사람과 관계할 어떤 접점들이 별로 없고 그 사람도 이 사람과 접점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고. 물론 도시도 그런 남성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만 시골은 그게 좀 더 노골적인 것 같아요. 얼굴을 그래도 이렇게 봤으면 어디 어디 사는 누구라고 알 법도 한데 여전히 그분은 모르세요. 늘 만나면 저 윗

동네 어디 누구 집, 남자 이름을 거론하거든요. 누구네 집 그 옆집에 사시는 분이군요. 이렇게 얘기하신다거나 제가 말씀드릴 때도 모르시니까 제가 누구라고 해도 모르세요. 몇 번을 얘기해도. 그러니까 어떤 남자의 집을 얘기하면서 그 남자의 집에서 몇 번째 어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시는 거예요.(웃음)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여자들은 참 존재감을 가지기가 어렵구나 하는 그런 씁쓸함이 있죠. 그거 외에는 ....

#### 지리산 페미니즘의 발원지 '아주 작은 페미니즘 학교 탱자'

한인정: 그분이 페미니스트가 내려왔다는 걸 모르고(웃음)『월경의 정치학』을 선물로 드리고 싶네요. 시골살이를 하다 보면 '누구댁'으로 불리잖아요. 누구댁 왔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네요. 아까 이야기 중에 탱자 이야기가 나와서 빼놓고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작은 페미니즘 학교 탱자'가 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이은실: '아주 작은 페미니즘 학교 탱자'는 지금 4기째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계신 곳인데, 페미니즘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 정규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오픈 세미나가 있는데 정규 과정은 페미니즘 관련한 텍스트들을 18세기부터 생산된 것들을 쭉 훑어서 정말 페미니즘 공부를 진득하게 하는 과정이고 오픈 세미나는 특정한 주제를 잡아서 진행해요. 탱자 졸업생이라는 부담 없이, '아주 작은 페미니즘 학교 탱자' 졸업생이라고 하면 되게 어깨가 무거울 거 아니에요?(웃음), 이런 부담감 없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기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열었던 오픈 세미나 중에는 <자본> 세미나도 있었고 에코페미니즘 세미나도 있었고 지금 하고 있는 탈성장 세미나도 있는데, 그렇게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같이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두 축이 '아주 작은 페미니즘 학교 탱자'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정규 과정이 4기째입니다.

문지영: 지리산에서 열 수 있는 학교는 다양한 주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페미니즘을 주제

로 학교를 여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박이은실: 우선은 제가 여기에 7년 전에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즈음에 한국에서 페미니즘 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페미니즘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참에 마침 제가 여성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페미니스트이니까 내려왔더니 그런 분위기가 있고, 공부하고자 하는데 공부할 데가 없고, 그런데 그런 요구는 있고. 제가 아는 대안중고등학교에 다녔던 어떤 분은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역에는 이런 분들이 계시요. 젊은 여성 분이신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분에게 불러가서 거기서 수업을, 우리는 안 올라가니까 내려와서 해달라 해서 좋다 하고 가서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공부에 대한 요구와 저의 계획들이 잘 만난 거죠. 시기적으로. 그래서 페미니즘 학교를 열었는데 열고 나니까 우리 마을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너무 좋다,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공부를 하고, 멀리 계신 분들도 오고. 지리산에 페미니즘 학교가 있어? 이게 약간 신기한가 봐요. 겸사겸사 놀러도 오고 이러고 싶었는지 그분들이 오시고 했어요. 지리산에 학교가 많죠. 마을 학교도 있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핑을 주로 하는 곳, 그러니까 캠프 같은 거죠, 이런 거를 여는 학교도 있고. 여기 지리산이 되게 넓잖아요? 수도권이 있듯이, 우리는 지리산권이 있거든요. 수도권과 필적할 만한 그런 권이에요. 근데 지리산권은 지리산이 워낙 큰 산이다 보니까, 여기는 행정구역상 남원이지만 바로 옆 동네가 경남 함양이고 그 바로 옆으로 가면 또 하동이에요. 산청이 있고 하동이에요. 그다음에 하동 옆에 또 구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다 우리는 지리산 동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공부 움직임들이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다양한 가운데 저는 여성학자로서 페미니즘 공부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안 이상은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겸사겸사 해서 페미니즘 학교를 열게 되었죠. 잘한 것 같아요.

한인정: 멀리서 오신 분도 있고 가까이 사시는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같이 공부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되게 궁

금해요. 어떤 분들이 어떤 이유로 탕자를 찾았는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박이은실: 일단은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요. 20대 정 말 초초반에서부터 60대까지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고, 지역도 우리 마을 인근에 사시는 분, 제 이웃도 있어요, 가까이 사시는 분에서부터 서울이나 부산, 이런 멀리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이 왜 여기로 오실까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왜 굳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시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자랑 같지만 커리큘럼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페미니즘 공부를, 어지간한 여성학과 대학원이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안 읽을 수도 있는 그런 텍스트들도 여기서는 끈질기게 읽게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여기는 공부를 뽀세게 시킨다더라 소문이 났대요. 저희 1기들 졸업생들 덕분에. 1기분들이 잘 자리를 잡아주셔서, 그리고 1기분들이 입소문을 내셨나봐요.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저기 가서 해라, 그렇게 저렇게 해서 약간 주변에 알려지게 되었죠. 커리큘럼을 또 제가 당시에 열심히 만들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을 만날 일이 도시에서만 끝났으니까 폐북같은 SNS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중에 학교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런 공부를 한다, 이런 얘기 그런 걸 보시고 커리큘럼이 마음에 드셔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내마을이라는 곳이 좋아서, 그다음에 지리산에 이게 있다는 게 좋아서 그래서 호기심 반, 호감 반, 이런 것들 때문에 오신 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렇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인정: 정말 진짜 다양한 인연이 모이는 곳 같아요. 그래서 지역, 여성, 이런 다양한 ‘페미니즘 학교 탕자’에서 의제들이 서로 기대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얹혀있기 때문에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도 들구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입니다. 1부에서는 탕자 쌤의 귀촌기, 그리고 탕자 학교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2부에서는 이런 의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2부: 탕자씨는 페미니스트

### 페미니즘과 기본소득이 만났을 때

한인정: 새로운 기회와 출발선을 기본소득으로! 박이은 선생님과 나누는 이야기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의 이름을 처음 본 건 기본소득 논문에서였는데요. 이전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신 적이 있으신데 기본소득과는 언제 처음 만나셨을까요?

박이은살: 2011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정식으로 아직 만들어지기 직전인가 아마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기본소득 연구팀이 꾸려지면서 그 팀에 제가 합류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듣고 또 공부도 하게 되었죠.

문지영: 그러면 기본소득을 알기 전 그리고 알고 난 후에 선생님의 삶에 혹시 어떤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박이은살: 그렇죠.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섹슈얼리티에 관해서 썼어요. 여성학 안에서도 세부 전공들이 있는데 제 세부 전공이 섹슈얼리티예요. 기본소득은 소득 얘기니까 약간 경제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제가 경제 얘기를 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물론 학부를 다닐 때에 이런저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긴 했지만 경제적인 지점에서 이것들을 살피는 게 제 영역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것이 섹슈얼리티와 어떤 식으로 관계 맺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페미니즘 안에서 소득의 문제가 어떻게 다른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다라고 할까요?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기본소득이 사실은 소득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몫에 관한, 정당한 몫에 관한 자기 존재에 대한 인정에 관한 문제가

기도 하잖아요. 그런 시각을 조금 더 많이 접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여러 접점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여성학 안에서 해왔던 공부들과 고민들을 좀 더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죠. 기본소득이.

그리고 그 이후에 논문도 쓰고 논문을 쓰고 나니 여기저기서 강연, 페미니즘과 관련한 기본소득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페미니즘과 기본소득이 만나는 논문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 주제에 관한 요청이 여기저기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강의들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렇게 이어지면서 그게 지금은 탈성장까지 온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중간에 제가 여기서 살게 되면서 생태적인 사안이 사실은 여러 문제들과 접점이 있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답을 찾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이 풀리기 어렵다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에코페미니즘 관련한 공부도 했죠. 에코페미니즘 관련한 것도 일종의 디딤돌이 되긴 했지만 기본소득에 관한 공부를 했던 것들이 탈성장으로까지 지평을 넓혀줬다고 할 수 있어요.

### 가부장적 성체제 해체의 열쇠 기본소득

한인정: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2013년에 발표하신 「성체제와 기본소득」이라는 논문이 있잖아요? 거기서 기본소득이 현재의 젠더 문제에 의미 있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지, 같은 생각이시라면 기본소득이 성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이은살: 성체제라고 하면 막연하게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존 질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성, 두 젠더를 기반으로 해서 가부장제가 구성되어 있죠. 그 가부장제에 기반하여 자본주의가 덧씌워진 체제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체제, 가부장적 성체제 안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여성들이 소득을 얻는 방편으로 결혼과 결혼을 경유한 어떤 취업 두 종



“가부장적 성체제 안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여성들이 소득을 얻는 방편으로 결혼과 결혼을 경유한 어떤 취업 두 종류가 있었던 거죠. 이 성체제에서 여성들이 독립적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여지들이 이 그 체제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리를 끊어내는 데 기본소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주장인 거죠.”

류가 있었던 거죠. 이 성체제에서 여성들이 독립적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여지들이 그 체제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리를 끊어내는 데 기본소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주장인 거죠. 근데 그게 제 주장만 아니라 그 논문에서 주되게 참조하고 있는 낸시 프레이저나 케이트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캐롤 페이트먼, 캐롤 페이트먼 같은 분이 주장하는 것이기도 해요. 여성이 온전한 시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으려면 이 체제 안에서는 어려운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성들에게는 이성애적인 구도 안에서 어떤 사람의 아내 역할을 하는 것이 ‘정상’인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 속에서 있는 한 여성들의 기본 업무는 즉 본업은 가정주부인 거예요. 본업이 가정주부인데, 가정주부의 일은 무상이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상이 없죠. 어떤 인정도 없죠. 그리고 본업이 가정주부라고 상정되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일을 하든 간에 유상으로 노동 소득을 얻는다 하더라도 본업이 그 일이라고 상정된 남성들에 비해서 동일하게 평가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한국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큰 거예요.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작동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들고 계속 반복해서 재생산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체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체제를 바꿀 수 있는 틈이 필요한 거잖아요. 물론 기본소득이 만능 열쇠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만능 열쇠는 아니다, 이거 한다고 세상이 뒤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나 움짱달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이 체제 속에서 어떤 다른 틈을 열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기본 열쇠는 될 수가 있다. 이 열쇠에 더해서 다른 열쇠도 있어야 하지만 이 열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거기서 했었죠.

기본소득을 말할 때 ‘페미니즘’, ‘기후정의’, ‘탈성장’, ‘자본’을 같이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문지영: 제가 선생님의 강연이나 글을 보면서 뽑아본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페미니즘’, ‘기후정의’, ‘탈성장’, ‘자



본’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제들을 하나하나 떼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이것을 기본소득과 같이 엮어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박이은실: 페미니즘이 18세기부터 오랫동안 얘기되다 보니까 그 중간 중간에 논쟁도 많고 해서 페미니즘에 대한 상이 조금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정의에서 출발하면 크게 어긋나지 않고 얘기를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정의가 있어요. 이걸 벨 훅스라는 사람이 제안한 정의인데요.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 그리고 성차별주의에 입각한 모든 억압과 폭력과 착취를 종식시키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성차별주의도 종식시켜야 되고 성차별주의에 입각한 폭력과 억압과 착취도 종식시켜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이게 젠더라는 규범만, 이 규범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본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차별’이라고 하면 굉장히 단순한 문제 같지만 왜 차별이 일어나는지, 그 차별이 어떻게 해서 억압의 형태로 혹은 착취의 형태로 일어나는지, 왜 폭력은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지를 보다 보면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여러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가장 많이 뜯어먹은 세 요소가 있어요. 자본주의가 이것들 없이는 출발도 못 했고 지속도 못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가 바로 여성이에요. 여성들을 뜯어먹고 살아왔고 자본주의가, 무상으로 뜯어먹든가, 저렴하게 뜯어먹든가 아니면 정말 폭력적으로 뜯어먹든가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또 자연이 있는 거죠. 자연도 무상으로 갖다 쓰고 물도 막... 물이 만들어지는 데 1원 하나 보탠 게 없으면서 무상으로 가져와서 팔잖아요? 그래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맞물려 있는 지점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가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이 시점에서 왜 기후정의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문제 일으키는 사람 따로 있고 피해를 받는 사람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정의롭지 않은 거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피해를 입어 왔던 약자들에게 문제 해결의 짐을 독박 씌우는 방식으로 해결을하려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굉장히 정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기

후 문제가 만들어져 왔던 과정도 정의롭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방식도 지금 정의롭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자본주의가 사실은 기후가 이런 방식으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게끔, 그런 짓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그 안에 여성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정의 얘기 속에서 여성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여성을 뜯어먹으며 살아온 체제이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기후정의를 얘기하면서 페미니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페미니즘과 자본과 기후정의와 생태,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 탈성장과 기본소득의 양립가능성은?

한인정: 탈성장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기본소득이 어쨌든 현금을 지급해주는 건데 그 현금을 더 많이 주면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해서 자본주의가 더 확고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이은실: 저는 일견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를 이해하려고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에게 현금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것이 상품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현금을 준다는 것은 이걸로 상품을 사서 써라 이런 얘기이기도 한데, 그때 상품이라는 것은 시장을 전제하는 얘기죠. 그런데 모든 시장이 반드시 자본주의적 시장, 그러니까 시장 중심주의적인 시장일 필요는 또 없고 모든 교환이 상품의 형식으로 교환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현금이 반드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보편 화폐, 그 현금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기본소득 안에서 지역화폐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왜 지역화폐여야만 하는 건지 혹은 굳이 지역화폐여만 하지는 않다면 반반일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럼에도 지역화폐에 대한 이야기는 해야만 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저희 집 근처에 오일장이 열려요. 제가 오일장에 가서 무엇을 구매하는 것은 저에게도 이롭지만 판매하는 그분에게도 이로운 거예요. 근데 그 시장은 사실은

자본주의 상품시장과는 굉장히 다른 층위의 시장이거든요. 시장은 다 같은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혼돈이 생길 것 같아요. 시장들도 층위가 있고 어떤 층위에서의 교환은 괜찮다는 거죠. 제가 기본소득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지역화폐예요. 우리는 남원사랑상품권이 있거든요. 우리는 재난지원금이 나오면 꼭 그걸로 나와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남원사랑상품권을 가지고 오일장에 가서 거기에 있는 물건을 제가 구입하면 저는 그걸로 필요한 지역 산물들을 구입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 지역 안에서 어떤 것들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 식의 순환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거니까 그 모든 국민에게 현금이 매달 제공되었을 때는 엄청난 현금 순환이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은 우리 기본소득론자들이라면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역화폐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일 거고요. 어떤 교환과 어떤 시장과 어떤 소비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해야 하는 거죠. 이 소비가 자본주의를 살찌우는 소비가 아니라 지역을 살찌우는 지역을 순환시키는 소비일 수 있으면 어떤 것일 수 있을까, 어느 정도가 되는 게 좋을까를.

저는 한때는 기본소득이 200만 원은 돼야지라고 믿었어요.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볼 때 200만 원 이하를 주는 기본소득은 정치적 효과가 하나도 없다, 페미니즘의 정치 안에서. 지금의 고용과 남편에 종속되는 관계를 끊어내려면 200은 있어야 살아가지 않겠냐 했던 거죠. 굉장히 도시 중심적인 사고였어요. 지금은 액수에 대한 생각도 조금 달라졌고 지급 방식, 그러니까 어떤 화폐냐에 대한 생각도 조금 달라졌어요. 탈성장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과 같은 식의 생산과 소비가 지속되어서는 미래가 없죠. 사실 지금도 이미 미래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래는... 지금도 이미 뭔가 열심히 하면 나아지는 삶이 있는 미래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탈성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곧 재앙적인 미래가 닥칠 건데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그냥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죽을 거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재앙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괴롭게 죽을 거냐 아니면 전환의 방식들을 지금이라도 익혀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르게 사는 방식을 이미 알고 있다면 달라지지

않을까.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죠. 석유가 없으면 여러분이 여기에 어떻게 오셨겠어요? 여기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석유 에너지에 입각한 시스템이 2030년에 붕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카더라, 그럴 수도 있겠지가 아니라 도래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붕괴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붕괴하면 어떻게 할 거냐? 붕괴한다고 우리가 당장 죽지는 않거든요. 괴로울 거예요. 괴로운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면 다른 전환이 가능한 거잖아요. 다른 방식의 삶이요. 그래서 탈성장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 탈성장 안에서는 기존의 생산과 소비 방식은 안 된다는 얘기니까 기본소득을 제공할 때에도 이 점이 절대 간과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예요.

#### 5인의 집단 귀촌 기본소득과 지방 소멸 막기

한인정: 선생님께서 어느 강연에서 “지방 소멸은 이미 시작했다”, “탈 성장과 기본소득을 요구하자”고 이야기하시면서 제안하신 게 있으셨어요. 농어촌, 산촌의 과소화된 마을에 5인, 즉 사회복지사, 연구자, 문화기획자, 예술가, 마을택시 담당자가 집단 귀촌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개인당 매월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마을 100개 지역이 연대를 하고 그 마을들을 10년 동안 지원해달라고 국가에 요구하자라는 제안을 하셨는데요. 거기서 제일 궁금한 건 집단 귀촌을 하는 5인을 왜 그렇게 구성했는지 그리고 그 5인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예요.

박이은실: 왜 문화기획자 외 4인으로 구성했냐고요?(웃음) 이게 완벽한 조합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말하자면 제 머릿속에서 나온 조합인데 우선은 택시인데요. 저희 지역도 그렇듯, 농어촌은 대중교통이 굉장히 발달돼 있지 않죠. 그리고 그건 이유가 있어요. 여기 사는 사람 수도 적고 왕래도 적는데 도시처럼, 무슨 대도시처럼 10분 단위로 버스를 계속 보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이 어디를 갈 때 교통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더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멀리 있으니까.



시청을 간다 해도 멀고 병원도 그렇고. 제가 여기 내려와서 한 일 중 하나가 남원 지역의 여러 마을들을 방문할 기회를 얻어서 다닌 거예요. 그때 과소화마을이 어떤 형태인지 알았죠.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봤거든요. 노인분들이 많으시죠. 가장 힘든 게 바로 교통이에요. 어디 나가려고 해도 굉장히 힘드니까 택시를 부르는데 요금이 비싸잖아요? 이분들이 현금도 별로 없으신데... 이분들만 그런 게 아니죠. 대중교통이 나쁘다는 평이 난 곳은 젊은 사람들이 귀촌을 하려고 해도 거기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하니까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도 어디 나가야 되는데... 도시에서는 차 없이도 살아요. 저도 도시 살 때는 뚜벅이족이었거든요. 차는 절대... 차를 왜 가져? 이런 주의자였어요. 근데 여기 와서 2년 차가 됐을 때 애들 병원도 데리고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기저기 차 구걸을 한 거예요. 근데 응급실에는 빨리 이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버스는 바로바로 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와 닿았어요. 아, 이런 상태구나. 교통은 해결돼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게 하나 있었어요.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사회에 대한 어떤 여러 감각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고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떤 걸 제공하는 시스템인지 같은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역할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꼭 있어야 하고, 마을에 한 분씩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문화기획자는... 농촌이라고 해서 농사만 짓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사는 마을의 좋은 점은 문화 활동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동아리도 50개가 넘어요. 그런 삶의 풍요가 있죠. 생활의 풍요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기획하면 어떤 기쁜 역동감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연구자의 경우는 ... 연구자들이 하는 일이 계속 관찰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파악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말을 사람들이 알게 하고, 궁극적으로 정책도 말기겠지만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접근하는 이런 식의 일을 하는 게 연구자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마을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뭐였죠? 한 사람 더 있었는데... 예술가. 예술가는 우리 삶의 백미죠.

삶의 백미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도 그곳이 어디였든 간에 예술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도시에서 예술가들이 너무 가난하잖아요. 그리고 예술가들이 도시에 꼭 살 필요 없잖아요? 예술가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을 마을에 들어와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거죠. 이렇게 5인이 구성이 되면 자기들끼리 또 시너지도 있고 그렇죠. 여러 전문적인 내용들도 교류하면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한인정: 그런 동네라면 진짜 귀촌하고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자이자 사회복지사여서인지 몰라도요.

박이은살: 이 얘기를 어떤 청년한테 했어요. 서울에서 어떤 활동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얘기했더니 이거 정책화 되면 자기는 당장 내려간다는 거예요.

한인정: 잘 듣고 계시죠? 정책 결정자님 이런 게 바로 귀촌입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이때 동물반려인 우당 등장) 여기 새롭게 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박이은살: 소개 좀 잠깐 할게요. 우리 집 식구 중 한 분인 우당이라는 분인데요. 오늘 여러 가지 신기한 물건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종종 여기를 오시네요.

#### 기본소득과 기본토지와 비시장적 교환, 혹은 지리산이 찾은 기본소득

한인정: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당님.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것 외에 이런 기본소득이면 좋겠다고 상상한 게 있으시면 나눠 주세요.

박이은살: 제가 기본소득이 200만 원은 돼야지, 하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액수가 줄어서 30만 원 정도에서 출발하면 되겠다는 생각이죠. 너무 극단적으로 변했는데 그 이유는 기본소득으로 모든 소비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걸로 충

당한다는 얘기는 그걸 다 시장에서 가져와 소비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교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비시장적인 교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세상에서는...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전환을 생각한다면, 탈성장으로의 전환을 생각하면 그런 비시장적 교환도 필요하기 때문에 비시장적 교환과 시장적 교환이 같이 공존하게 되었을 때는 30만 원 정도에서 출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30만 원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잖아요? 제가 여성분들을 만나서 어떤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 마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소 생활비가 80만 원 정도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는 공과금도 포함되어 있어요. 공과금이 만약에 무상이 되면 전기가 무상이 되면 달라지겠지만 - 전기가 무상이 되면 막 쓰니까 또 안 되겠죠. 탈성장 사회에서는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동시에 해야 하니까 - 어느 정도 내가 당장 아프거나 현금 소득을 한동안 벌어들일 수 없겠다 할 때에도 기본 생존이 가능할 만큼의 액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마을의 경우에는 80만 원 정도면 기본 생활은 가능해요. 그 외에는 비시장적 교환을 통해서 충당을 하고요. 이런 방식의 삶이 지속 가능한 삶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80만 원 정도를 생각하게 되었죠.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기본소득론자는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임노동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시는 젊은 분인데, 책을 쓰셨어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30만 원이었거든요. 자기는 30만 원 정도가 총당이 되면 노동력을 일주일 내내 팔거나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3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의 액수 정도는 첫 출발로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충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과 함께 탈성장 사회로 나아간다면 더 더욱 다른 방식의 교환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인정: 30만 원에 사회복지사 100만 원이면 130만 원인데(웃음), 꽤 괜찮은데요? 당장 땅을 알아봐야겠네요.

문지영: 선생님 제안의 특징 중 하나는 국가에 요구해



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침인데요. 혹시 국가에 이런 요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박이은실: 국가가 누구인가, 누구에게 요구를 해야 그 것이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드는데... 제가 다섯 명 집단 귀촌이라는 상을 잡은 이후에 기회 될 때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책 연구하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시의원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시청에도 보내고 도청에도 보내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 답이 없더라 고요. 그래서 국가에 요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막 이메일을 보내고 하다가 더 공론장에서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탈성장 얘기하는 곳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아시게 되셨잖아요. 그러니 효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인정: 그런 공론장에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임 같은 것에도 혹시 참여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박이은실: 그 집단 귀촌에 대해서요? 아니요 아직은 없고요. 최근에 기부 활동가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분들한테 기본토지 얘기를 드렸어요. 기본소득도 중요한데 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 중 하나가 우리에게 생계의 기본 방식을 다 수탈해 간 거잖아요? 그래서 땅이 어지간하면 다들 없어요. 제가 시골에 살면서 텃밭이라도 있어 보니까 너무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저기서 내가 감자라도 심어 먹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감자를 심어 먹고 쭈도 캐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뭐랄까... 안전장치 같은 거죠. 그래서 그분들께 기본소득 얘기도 하지만 기본토지 얘기도 하면서 도시에서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고 얘기를 하면 상당수는 도시가 좋다고 하지만 또 상당수는 땅이 없어서 못 내려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내에도 청년분들이 계세요. 귀촌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크게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내같이 어느 정도의 문화적 인프라가 있고 사람들이

살기에 접근성이 괜찮은 곳은 더욱 은퇴자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갈수록 땅값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땅값이 오르면 자원이 없는 청년들이 내려와서 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큰일이에요. 기본토지를 시에서든 지자체에서든 간에 고려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우리 지자체로 귀촌하시면 기본소득과 기본토지가 제공한다고 하면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웃음)

한인정: 진짜 진짜 매력적일 것 같아요. 기본토지에 기본소득에 거기에 예술과 문화예술의 연구자 사회복지사, 마을 택시까지 있다면 말이에요. 지역에 있는 지방선거(후보), 군수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변방이나 경계에서 시작한다는 말처럼 박이은실 선생님을 비롯한 탱자 씨들이 여기저기서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는 생각이고 또 우리가 곧 다시 만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3부에서는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에서는 우리가 진짜 어떻게 달라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 보고자 합니다. 3부에서 뵈겠습니다.

### 제 3 부: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

도반들 끼리 즐겁게 공부하는 곳 ‘아주 작은 페미니즘 학교 탱자’

한인정: 새로운 기회와 출발선을 기본소득으로! 박이은실 선생님과 나누는 이야기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기본소득이 있는 삶’에 대한 상상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까부터 여쭙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호칭이 보통 삶의 지향을 많이 드러내는데 선생님은 호칭으로 “탱자 씨”를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박이은실: ‘호칭의 정치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구를 어떻게 부르냐가 그들의 관계를 설정하게 되죠. 아까 예

를 들자면 저를 어떤 남자의 옆집에 사는 여자로 부르는 것과 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굉장히 다른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죠. ‘이성애’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자기의 연애 파트너를 ‘오빠’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호칭으로만 보면 다 근친상간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심지어는 자기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근친상간적인 문화예요. 근데 그런 문제의식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호칭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권위적인 관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권위적인 호칭을 정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의 호칭을 시도할 거예요. 이 학교가 ‘아주 작은 페미니즘 학교 탱자’인데 앞에 “아주 작은”이 붙은 것도 사실은 호칭의 문제와도 관련이 된 거예요. 이 학교는 확장을 지향하지 않겠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죠. 지금도 작지만 앞으로는 작을 거니까 성장이나 확장을 요구하지도 기대하지도 말아라, 나는 이미 선언했고 스스로에게도 약조하는 거죠. 이미 이 학교는 그런 학교다. 그리고 이 학교에선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요. 제가 이전에 제도권 대학에 있을 때는 교수, 선생님, 강사, 주로 이렇게 불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호칭으로 불리면서 맺는 관계들이 있는데 이 학교에서 만나는 분들은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함께 배우는, 함께 공부하는 동반자 같은 사람들인 거죠.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되었는데, ‘도반(道伴)’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도반이 같이 길을 가는 동료의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굳이 선생님이라고 불려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탱자 씨가 제일 좋았어요. ‘아주 작은 페미니즘 학교 탱자의 탱자 씨.’ 그리고 이 ‘씨’는 종의적인 의미도 있죠. 씨앗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씨’라고 불리는 걸 되게 싫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누구누구 씨” 하는 게. 일례로 어떤 노 교수께서는 이런 식이었어요. 어떤 남자가 분이 박사학위를 저보다 훨씬 늦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있고 그분도 있는 회의를 하면 그러면 그 선생님은 그 남자분한테는 누구누구 박사, 누구누구 박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저에게는 꼭 누구누구 씨,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내가 이 사람보다 굳이 자기들 좋아하는 기수로 따지면 선배일 텐데 왜 나는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고 이 사람은 꼭 그렇게 박사라는 호칭으로 부를까 했죠. 그 선생님이 워낙 나이가 드셨고 해서 굳이 그 선생님에게 따지겠냐 해서 저는 참았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거기도 호칭의 정치학이 있는 거죠. 그분도 마치 저희 마을의 이장님이 저를 어떤 남자의 집의 옆집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그분도 그런 맥락에서 저를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저는 씨라는 걸 싫어해요. 사실 그런데 씨라는 것은 그냥 종립적인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도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고 배우도 그렇고 대배우인 윤여정 배우도 누가 ‘윤여정 씨’라고 부르지 갑자기 다른 호칭을 쓰지 않잖아요. 탱자 씨의 ‘씨’는 그런 ‘씨’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씨’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을 좀 털어내는 역할도 있는 거죠. 스스로를 탱자 씨라고 부름으로써 그런 역할도 했고, 여기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과 저의 관계 설정도, 내가 물론 선생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당신들에게 선생님은 아니고 우리는 서로에게 선생이다라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서 이걸 쓰게 됐어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섞어서 불러요. 쌤, 선생님, 쌤님, 탱자 씨, 이렇게 섞어서 부르는데 그런 거는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또 동시에 외부에 나가서 저를 소개할 때는 ‘아주 작은 페미니즘 학교 탱자’ 전담교수라고 해요. 저의 직책 같은 거죠. 그것도 호칭의 정치학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는 거죠. 교수라는 호칭이 굉장히 권위적으로 쓰이고 있고 제도권에서 굉장히 그런 방식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비제도권의 공부하는 영역인 이곳에서 그 호칭은 일종의 전유하는 방식으로 다른 방식의 색깔들을 입히고 있는 거죠. 너무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웃음) 아무튼 탱자 씨는 그렇게 등장하고 쓰여지고 있는 말입니다.

### 탱자탱자 즐거운 삶과 기본소득

한인정: ‘탱자’ 하니까 저는 탱자나무의 탱자가 먼저 떠오르는데 그 탱자 말고, 혹시 다른 뜻의 탱자로 쓰고 있는 건 없을까요?

박이은살: 우리가 공부를 너무 죽을 듯이 하지 말고 살 듯이 하자 탱자탱자 즐겁게 공부하자라는 의미도 있죠.

한인정: 여러 의미가 중의적으로 담겨 있는 셈이네요. 우리 모두가 탕자탕자하는 일상을 보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잖아요. 선생님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이런 조건들은 정말 있어야 한다’라는 게 있을까요? 탕자탕자 지내기 위해서?

박이은실: 우리에게 24시간 밖에 없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24시간 중에서 삶을 향유하는, 내가 오늘 살아 있구나를 느끼는 시간이 없다면, 매일매일이 그런 식이라면 사는 게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을 탕자탕자 살 수 있도록 이 24시간이 잘 구성돼야 할 텐데... 그러려면 내가 노동력을 반드시 팔아야만 하죠. 노동력을 파는데 24시간의 상당 부분을 써야 하게 되면 탕자탕자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걸 탈성장과도 연관되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성장을 하고 GDP가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어도 돈이 많다는 것이 곧 삶의 질을 보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소비력은 높아진다 하더라도 소비력이 곧 삶의 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질이 무엇으로 담보될지에 대한 자기 생각과 확신이 탕자탕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장 다음 달 1일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30만 원이 지급된다면?

한인정: 그런 확신을 갖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더라도 들리네요. 저희가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이라는 책을 지난해에 출판했는데, 이 로드맵에서는 기본소득을 30만 원으로 시작하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만약 이 제안 대로 실제로 30만 원이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지급된다면 기본소득 지지자로서 감회가 어떠실까요?

박이은실: 우리가 재난기본소득을 통해서 일종의 기본소득 실험을 해봤잖아요. 물론 그건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요. 그것만 받아도 되게 쓸쓸하더라고요. 되게 의지가 되고요. 그게 생기면 내가 노동력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것이 보장이 되겠구나라는 안심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재난지원금도 그 역할을 한다면 매달 주는 기본소득이 설사 3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문지영: 그러면 선생님이 받는 기본소득으로 혹시 하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그리고 당장 선생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박이은실: 제가 중년에 접어들었는데 중년에 접어든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일종의 사회적 책무들이 있잖아요. 자원이 없는 젊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신이 밥 사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런 책무들이 있어요. 기본소득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좀 더 그런 역할을 잘 해내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노동력을 내가 팔지 않아도 보장되는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는 것은 늘 굉장한 의지가 되겠죠. 그것은 너무 큰 의지가 될 거예요.

지속가능한 소박한 삶 - 산내마을이 기본소득과 만난다면?

한인정: 그걸 이 산내마을 공동체로 조금 펼쳐서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박이은실: 일단은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예전에 재난지원금이 처음 나왔을 때 이웃 마을의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서, 저는 비건인데, 다 소고기를 사 먹었대요. 한국 사람들은 소를 잡아서 먹는 거에 대한 애환이 있나요?(웃음) 돈 생기면 소고기 먹어야지, 이게 너무나 DNA에 박혀 있는 건지... 그러셨다는 얘기를 듣고 슬펐어요. 여기에서는 현금소득이 어렵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 계속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소득을 벌 수 있는 곳으로 출퇴근을 한다면가 아니면 아예 그냥 거기 가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마을

에 계속 있어도 되게, 안정적으로 여기에 정주하고 살아도 되게 하는 굉장히 안정적인 장치가 되어 줄 것 같아요. 이런 시골에서 소박하게 정주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가능성을 꿈꾸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들어왔다가 너무 이게 아니고 너무 별이가 없으니까 힘들구나라고 생각하며 단념하고 다시 도시로 가거나 인근의 소위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가는 분들에게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의 얼굴이 더 밝아질 것 같아요.(웃음)

#### 탈성장의 계기로서의 기본소득 혹은 기본소득이 갈 길

한인정: 지금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를 상상해보면 그냥 웃음이 먼저 나오잖아요. 왠지 안정감 있고요. 그렇지만 이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하려면 기본소득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기본소득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박이은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금소득은 시장에서 교환을 위한 것이잖아요? 공과금을 내든 뭐든 간에 어떤 거를 교환하는 것일 텐데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관계가 풍성해지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관계가 풍성해질 수 있으려면 어떤 시도들이 더 필요한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탈성장 고민을 하고 또 탈성장 위주의 어떤 경로를 지금 걷고 있다 보니까 기본소득이 소비 진작이나 이런 걸로 얘기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향은 탈성장이어야 하고 그 탈성장 방향 안에서 기본소득이 어떤 삶의 전환을 가능하게 해줄 거냐, 저는 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시민들의 참여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마을들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치적 동력

한인정: 지속가능한 사회를 갖기 위해서 정치의 역할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시기에 정치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세요.

박이은실: 탈성장 안에서도 얘기되고 페미니즘 정치학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참여죠. 국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도구여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심부름꾼이어야 하는 것이지 권력기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힘이 약한 상태에서는 권력기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의지할 데가 거기밖에 없고 요구할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어지간한 건 우리가 다 알아서 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는 방향이 딱 잡혀 있다면 너무나 분명하게 정부에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요구할 수 있고 또 정부도 눈치를 보는 거죠.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요.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많은 것들이 생겨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마을도 그런 마을로 거듭나야 한다고 봐요. 우리 한동안 풀뿌리 민주주의를 얘기했고 도시에서도 마을 만들기 얘기를 많이 했고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이면서 되게 슬펐잖아요. 코로나로 사람이 못 모이게 되면 좋아하는 층이야 있을 거예요. 누군지 딱 짚어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람들이 어떤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 부쩍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사회의 여성들이 그런 주체로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생겨야 한다 그리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 더 재밌게 공부하고 더 즐겁게 살기- 산내마을의 세계화 혹은 세계의 산내마을화

문지영: 이런 변화가 산내마을에서 전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기 위한 흑시 전략이 있으실까요?

한인정: 마지막 질문이라 창대하게 여쭙네요.

박이은실: 저는 뻗어나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주의예요. 우선 내 삶의 주변을 알뜰하게 한다 정도. 이게 좋은 거라





면 내가 굳이 막 얘기하지 않고 막 그렇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 보니까 너무 괜찮은데 이러면 따라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를 바라요. 가서 이렇게 살아봅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왜냐면 거기서 어떤 상황에서 있는지를 속속들이 다 알기가 서로 어렵고 여기서 가능한 것이 거기서도 가능한지도 모르고 하니까. 다만 우리 마을, 지금 산내라는 이 마을에서는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이럴 수 있겠다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보고 있어요. 물론 한계도 많지만 그런 가능성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요. 여기 분들이 각자 다 바쁘게 재밌게 사세요. 그분들을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죠. 근데 저기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바쁘게 놀러 다니고 맨날 숲 보고 나무 보고 곤충 이름 알리고 즐겁게 도시락 같이 까먹고 이런 걸 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마을이 참 좋은 곳이다’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런 학교를 운영하면서 이 학교에 오는 사람들과 재밌게 공부하고 재미있는 삶을 살고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어떻게 할 수도 있구나 저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딘가에 또 다른 페미니즘 학교가 생길 수도 있고 설악산 페미니즘 학교, 남해 바닷가 페

미니즘 학교,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생기게 되면 또 아 잘 됐네 하고 또 좋아라 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지만 그게 저의 계획에 있진 않아요. 그런 걸 내가 지향해서 내가 목적하고 막 어디 생기고 있나 이렇게 확인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마을에서 사는 삶에 충실하고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거기에 저도 뭐라도 기여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인정: 탕자 씨랑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보니까 뭔가 훌륭한 삶, 이런 것보다 ‘그냥 이 사람처럼 살면 참 좋겠다’ ‘그냥 행복해 보인다’ 그게 되게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지리산에서 오늘 이렇게 탕자탱자 지내는 선생님을 뵈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저희는 그런데 오늘 선생님은 저희 때문에 탕자탱자 대신 너무 바쁘셨던 것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우리가 상상하는 기본소득들이 현실화되고 그 이후에 더 행복한 삶들이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박이은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탕자 씨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탕자 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회와 출발선을 기본소득으로 박이은실 선생님 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파문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리: 류보선)

# 기본소득이시다

- ‘파문’ 지상중계 #4, 이문재 편

“미래에게 미래를” - 계간《기본소득》창간호 축하

이문재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다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묻지 않은 지도 오래다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면 목청을 높인 것도 한참 전이다  
미안해서 그렇다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내 아들딸에게 물려줄 수 없어서 그렇다  
삶의 방식에서 천지자연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돌아보니 그간 내가 보낸 것은 다 ‘나쁜 것’이었다  
호모사피엔스 탄생 이래 이처럼 ‘거대한 단절’은 없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의 미래를 빼앗아 왔기 때문이다  
개발과 성장, 발전과 풍요의 명목으로 후손들의 미래를 빼앗아 왔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돌려줘야 한다  
미래 세대에게 미래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우리 모두 파국을 맞을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하지만 길은 있다  
그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다  
청년들이 경제적 공포에서 벗어나야 미래가 회복된다  
청년이 살아나야 노인과 어린이도 살아난다  
이제 시작이다  
기본소득은 가지 않은 길이고 갈 길 또한 멀다  
하지만 목적지는 분명하다  
모든 차이와 경계를 넘어 전 인류가 기본소득 수혜자가 되는 그날까지 가야 한다  
우리 사피엔스는 물론 못 생명이 바라 마지않는 ‘지속가능한 인류세’는 그때 열릴 것이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자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미래는 기본소득이다

## 제1부: 내 젖은 구두의 산책 - 시인 이문재의 길

&lt;미래에게 미래를&gt;에 담긴 뜻

한인정: 심장이 녹는 줄 알았어요. 지금 낭독해 주신 이 시는 이문재 선생님이 계간 《기본소득》 창간호의 축시로 보내주신 시이자 시집 『혼자의 넓이』에 실린 시인데요. 참 멋있죠? 네, 오늘은 이 시의 주인공 그리고 이 목소리의 주인공 이문재 시인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인님. 먼저 이 시에 담고 싶었던 이야기가 어떤 걸까요?

이문재: 방금 다 읽어드렸는데요. 압축하자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와 편리 또는 건강 이런 것들이 미래 세대가 당연히 물려받아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먼저 훔쳐다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인식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미래는 없어지지 않겠느냐 일단 그런 반성이고요, 그런 반성에 기반해서 우리는 어떤 꿈을 꿀 수가 있는가 그리고 왜 그런 꿈을 꾸어야 하는가 그런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아직도 조금 어색하네요. 앞으로 시를 잘 쓰겠습니다.(웃음)

한인정: 대문호한테 이런 반성의 말을 다 듣네요.

이문재: 아, 그런 얘기하지 마요. ‘문호’가 아니라 ‘문재’입니다.(웃음)

한인정: 오늘은 이렇게 좀 색다르게 오프닝을 했네요. 좀 늦게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의 MC를 맡고 있는 팔매입니다. 오늘은 이문재 선생님을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객원MC는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장시정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장시정: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의 장시정입니다. 나눔과 연대를 지향하는 인천사람연대에서 일을 하고 있구요. 얼마 전부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생

태계 보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행동하려 하고 있고요. 그를 위해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 젖은 구두 벗어 해에게 보여줄 때 부터 혼자의 넓이  
까자- 시인 이문재의 길

한인정: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콜롬비아 투어를 하고 오신 분이세요. 이문재 시인님을 소개해 주실 차례인데요. 좀 간단하게 약력을 읊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시정: 간단하게 읊겠습니다. (한인정: 아주 간단하게요.) 이문재 선생님은 1982년 동인지 『시운동』 4집에 시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생태적 상상력’의 시인으로 여러 문학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시집으로는 『내 젖은 구두 벗어 해에게 보여줄 때』, 『산책시편』, 『마음의 오지』, 『제국호텔』, 『지금 여기가 맨앞』, 『혼자의 넓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문집으로는 『내가 만난 시와 시인』,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 등이 있습니다. 『시사저널』에서 기자생활을 오래 하셨구요, 현재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약력에서 빠뜨린 게 있나요?

이문재: 많이 있는데요. 뭐 결혼을 했느냐, 아니면 품성은 어떻느냐 뭐 이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웃음)

장시정: 품성과 결혼은 차근차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기자 이문재, 특종을 안 하기 위해 노력한

한인정: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시사저널』 기자생활이 좀 흥미로운 편인데 그 당시에 김훈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고 주진우 기자를 키우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무엇인지를 한두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감성적인 언어를 발명해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탄소중립'이란 말도 전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탄소중립이 뭐지? 안 와 닿아요. 기본소득도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 이건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좀 논의가 진행되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깝구요.”

이문재: 김훈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건 팩트구요, 주진우 기자를 키웠다고 하는 건 팩트가 아닙니다.

한인정: 어떤 면에서…?

이문재: 주진우 기자는 스스로 컸지요. 제가 뭐 키우고 어떻게 할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미 그때부터 스스로 컸습니다.

한인정: 기자생활을 하셨을 때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실까요?

이문재: 저는 대단한 기자였습니다.(웃음) 왜냐하면 저는 특종을 안 했어요. 특종을 안 하기 위해서 저처럼 애를

쓴 기자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종상보다 더 큰 혜택을 받았어요. 기자 생활할 때 호봉이 거의 매년 한 호봉 한 호봉 올랐어요. 특종상을 받아봤자 상금이 많아야 100만 원인데 한 호봉이 올라가면 퇴직할 때까지 누적하면 상당합니다. 근데 그 한 호봉이 올라간 이유는 특종을 해서가 아니라 기사를 많이 써서였어요. 그때 제 별명이 ‘자동판 매기’였는데 ‘채는 그냥 월급만 주면 기사가 쏟아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저는 기사를 정말 많이 썼어요. 많이 쓴 이유가 ‘너희들은 나가서 특종을 해라, 나머지 『시사저널』의 뒷 페이지는 내가 다 메꾸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늘 기사만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술자리에 가도 여기서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저게 기삿거리가 되지 않을까. 한번은 《경향신문》 기자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단골 술집에

갔더니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서 그걸 제가 취재를 해서 쓴 적도 있고. 어쨌든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빠르게. 이런 기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특종을 하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썼고 대신에 기사를 많이 써서 회사로부터 혜택을 받은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한인정: 원래 이렇게 많이 쓰는 기자가 꿈이었을까요? 사실 다른 분들은 시인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니까요. 꿈은 기사를 원래 원하셨던 건가요?

이문재: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기자생활을 1984년 10월 말에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여기저기 원하면 직장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이 들으면 SF 같은 소리 겠지만 그때는 대학만 나오면 원하는 분야의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래 봐도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2급 정교사. 그러니까 안 되면 사립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하면 됐으니까. 아주 먼 나라 얘기죠?

#### 기자의 문법과 시인의 화법

장시정: 지나온 먼 미래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시인의 화법과 문법은 기자의 문법과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 둘을 병행하시기가...

이문재: 저는 병행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들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편집국에서 쓰면 기사고 밖에서 쓰면 시고, 뭐 그런 거였어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한인정: 그때의 기사를 한 번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경계를 두지 않았어요. 기사하고 시하고. 아주 핵심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매번 새로워야 돼요. 매번 새로워야 합니다. 그 공통점 때문에 저는 기자 생활을 비교적 즐겁게 했어요. 매번 새로운 걸 가서 취재해야 하고 또 새롭게 써야 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야 되고 또 새로운 관심사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저는 시하고 기사하고 별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전에 읽어드렸던 《기본소득》 창간 축하를 그냥 시로 쓴 것처럼 기사로 쓴 걸 그냥 시로 쓴 적도 있고

아니면 시로 써야 되는데 바쁘니까 기사로 쓴 적도 있고(웃음)... 넘나들었습니다. 이거 농담으로 알아들으시면 안 되는데...

한인정: 특종을 쫓아다니는 거랑 일상의, 바로 옆 테이블 이야기를 가져서 쓰신 거랑 연결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장시정: 저도 돌아가서 선생님이 쓰신 기사 중에서 시 같은 기사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재: 네, 구글에 검색해 보면 한 자도 빠짐없이 다 나옵니다.

#### 서정시에서 문명 비판으로 - 이문재 시가 걸어온 길

장시정: 선생님이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고 그 와중에도 시를 같이 쓰셨잖아요? 선생님의 초기 작품들을 보면 서정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농촌 붕괴, 기후위기, 자본주의와 성장 위주의 문명을 비판하는 시가 많이 보입니다. 선생님의 시 세계에 뚜렷한 변화가 보이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문재: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를 쓰기 시작한 건 1978년 대학에 들어가서였는데요. 제가 국문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비고사라는 게 있었는데, 예비고사 점수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10점이 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체력장 점수가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그럴 리야 없겠죠. 하여튼 원래 저는 영문과에 가려고 했어요. 영문과 멋있어 보여서. 그런데 그 10점 차이 때문에 선생님이 영문과 원서를 안 써주시더라구요. 그래서 국문과에 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갔더니 3년 위로는 어마어마한 선배들이 있고 또 제 동기, 그때 스무 명이 입학했는데, 한 일곱명 정도가 이미 고등학교 문단에서 전국적으로 알려졌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문학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1978년 4월 11일 오후 4시, 그 류시화 시인이라고 있죠, 그 때는 류시화가 아니고 안재찬이었는데, 키가 상당히 커요, 문리대 104 강의실이었는데, 저는 앉아 있었고, 시커먼 키 다리 아저씨 같은 사람이 저한테 손을 내밀며 ‘우리 같이 시를 써보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일에 제가 그 전에 학교에 들어갔거나 다른 학교에 들어갔거나 하면 저는 지금 아마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인터뷰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까… (웃음)

한인정: 그럼 류시화 시인이 선생님을 이 자리에 이끄신 셈이네요. 선생님 시집 중에서 사람들은 첫 번째 시집과 두 번째 시집을 시 하는 사람들의 필독서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문재: 증거 있으세요?(웃음) 없을 거예요.

한인정: 많은 기사의 인터뷰로 나와 있던데…

이문재: 아네요. 답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전 그 뒤로 제 시집을 잘 읽어보지 않았어요 못 읽어요, 얼굴이 이렇게 화끈화끈거려서… 그건 넘기세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네요.

#### 시인 = ‘시만 생각하는 사람’

장시정: 선생님은 시를 쓰실 때 주로 언제 시상이 떠오르시는지, 아니면 반대로 시가 떠오르지 않으실 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문재: 근데 왜 ‘영감’이란 말을 안 하세요? 그 영감이 언제 떠오르느냐고 물으면 저는 대단히 화를 냅니다. 영감이 떠오를 때 시를 쓰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늘 기사 생각만 했다고 했잖아요? 기사, 시, 늘 생각하죠.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에 호두알 넣고 다니듯이 늘 머릿속으로 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감이 떠오른

다, 시상이 떠오른다, 이런 건 저하고는 무관한 일이에요. 저하고는. 인도의 스승과 제자 사이에 오간 멋있는 말이 있어요. 그 스승 이름이 생각이 안나는데, 제자가 스승한테 질문을 합니다. “누가 도둑입니까?” 스승이 “도둑질만 생각하는 놈이 도둑이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을 많이 써먹어요. 어떤 사람이 시인입니까? 시를 쓰는 사람이 시인이 아니고 시만 생각하는 사람이 시인이다. 근데 이건 거의 진리 같아요. 축구 선수들은 늘 축구만 생각합니다. 연애하는 사람은 늘 그 사람만 생각하고 사기 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기를 잘 칠까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시상을 늘 떠올립니다. 지금도 시를 좀 써야 되겠는데… (웃음)

장시정: 선생님이 시를 쓰게 된, 시를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류시화 선생과의 인연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간행된 류시화 선생의 시집 『꽃샘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에 선생님에 관한 시가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문재: 알고 있습니다.

장시정: 「시 - 이문재 시인에게」라는 제목의 시였는데 저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학 시절의 어느 날 두 분이 만나서 어떤 시를 써야 하는가 아니, 어떤 시를 쓰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해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았다는 구절이 있고요. 또 아직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어떤 시를 썼는가 아니, 어떤 시를 쓰지 않았는가를 돌아보고 있다는 구절도 나옵니다. 선생님이 돌아보시기에 선생님은 그동안 어떤 시를 쓰셨는지 그리고 어떤 시를 쓰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문재: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선 류시화 시인이 ‘이문재에게’라고 한 그 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쓴 것이기도 하고 또는 모든 시인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라고 저는 읽었구요. 제가 어떤 시를 썼는지, 또 어떤 시를 안 썼는지 이건 정말 답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기자 시절에 대전

에 내려가서 소설가 복거일 선생을 만난 적이 있는데, 소설 쓰는. “선생님은 어떤 소설을 쓰세요?”라고 지금과 비슷하게 질문을 드렸어요. 평생 잊지 못할 답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읽고 싶은 소설을 쓴다.” 그 말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제가 읽고 싶은 시를 쓰질 못했어요. 옛날에 무슨 문학상을 받을 때 아주 건방진 소리를 했었는데, 정말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시를 쓰면 발표하지 않고 내 관 속에 넣어서 가져가겠다, 이런 무지막지한 말을 했었는데요. 정말 제가 쓰고 싶은 시는 제가 읽고 싶은 시예요. 근데 아직 못 썼습니다. 오래 살아야 되겠죠.

장시정: 선생님이 읽고 싶은 선생님의 시도 저희들에게 공개해주시면...

이문재: 저는 시나 글이나 공적인 행위라고, 미디어에 실리는 공적인 행위라고 말해왔는데요. 공적이지 않은 거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비윤리적인 거죠. 내가 읽고 싶지 않은 시를 막 발표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윤리적인 시인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진담을 말하려다 보면 자꾸 말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요.(웃음)

#### 시의 역할, 혹은 상상력의 촉진제

한인정: 쓴 사람 본인이 읽고 싶은 시, 진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읽고 싶은 시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안 많아서 그런 건지 ‘시의 영향력이 낮아진 시대’라는 표현도 항간엔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시의 역할, 아까 공적인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그 공적인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이문재: 아~ 이거 어려운데... 근데 시의 영향력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시의 영향력이 컸던 적이 있나요? 우선 저는 시의 영향력이 컸던 시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교과서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국문과, 문예창작과가 없어지면 시는 더 저쪽으로 밀려나겠죠. 그럼에도 저는 시가 공적인 영역에서 서식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어떻게 사회

적 영향력을 갖느냐? 수백만이 시를 읽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쓰고 싶은 시는 이런 겁니다. 어떤 무언가 상상력이 필요한 영역에서 제 시를 읽고 그 상상력이 조금이라도 커지고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제 시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에 외국 책들을 보면 외국의 인문학자들이 자기 글 앞에 시를 한 줄씩 인용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언제 시를 좀 제대로 써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자기 책을 낼 때 그 한 줄을 인용할까? 그게 제 꿈이었어요. 아주 원대한 꿈이었는데, 그 꿈이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조효제 선생님의 『에코사이드』 뒷부분에 제 시 한 줄이 인용돼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꿈을 이루었습니다.

#### 털어놓기로서의 글쓰기와 자기 성찰, 그리고 재탄생

장시정: 선생님은 이렇게 시를 쓰시면서 학교에서 글쓰기 수업이나 시 창작 수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 인터뷰들을 읽어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자기성찰과 재탄생 방법이 글쓰기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수업에서도 가장 먼저 자기성찰을 강조하시고 수업에 들어갈 때도 자기 자신과의 대면을 먼저 하게끔 만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수업하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이문재: 그 의도는 대단한데요. 실제로 학습 효과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기성찰’이란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천국보다는 지옥에 자꾸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성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에서부터 경제, 교육, 육아에 이르기까지 자기성찰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관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겠는가? 저는 문학보다는, 물론 글쓰기도 넓은 범주 안에서 문학에 들어가겠죠, 이른바 창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과정을 글로 엮어내는 그것이 자기성찰을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만이 아닙니다. 페니베이커Penne Baker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분의 『털어놓기와 건강』이란 책이 있는데 1999년에 학지사 에센가 번역이 됐습니다. 절판됐어요. 그래서 제가 막 거짓 말을 해도 됩니다.(웃음) 이분이 ‘정신신체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연 분이예요. ‘정신이 건강해지면 몸도 건강해진다.’ 우리에게 아주 낯익은 이야기이죠. 이분이 털어놓기로서의 글쓰기를 이야기해요. 저는 그 책을 읽기 전부터 이 글쓰기를 하고 있었는데, 누구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과거의 어떤 상처, 트라우마를 글로 쓰면 정신뿐만이 아니라 신체도 건강해진다는 그런 거예요. 자기성찰은 단순히 어떤 인문학적인 차원, 추상적인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방법은 전 인류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럼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페니베이커가 그걸 실험했어요. 실험을 어떻게 했느냐? 피를 뽑아서 백혈구 수치 변화를 체크했습니다. 두 개의 집단을 모아 놓고 한 집단은 아주 일상적인 글을 쓰게 하고 다른 한 집단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트라우마를 쓰게 했어요. 쓰기 전에 피를 뽑고, 쓰고 나서 피를 뽑았어요. 일상적인 글쓰기를 한 집단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면역력에. 그런데 이 털어놓기 글쓰기를 한 친구들은 면역력이 높아졌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1년 뒤에 다시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털어놓기로서의 글쓰기를 하는 친구들은 계속 면역력이 높아졌습니다. 두 분도 글쓰기를 하세요.

장시정: 넷플릭스보다는 글쓰기를 해야겠네요.

이문재: 넷플릭스 보면 눈만 아프죠. 웬만하면 드라마는 보지 마세요. 드라마 보고 자부심을 갖는 경우가 있나요? 다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나오지, 다 나보다 좋은 데서 살지, 나보다 총도 잘 쏘지, 쏘면 다 죽지. 저는 그래서 영화를 잘 안 봅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이 나오는 영화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근데 글을 써보세요. 왜 ‘재탄생’이라는 강력한 단어를 제가 쓰냐 하면 털어놓기로서의 글쓰기를 하면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난 그동안 내가 하찮은 삶을 산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우리 사회에 자존감 많은 사람은 대단히 많아요. 자존감만 있는 사람들은 자칫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자존감에 뿌리를 둔 자존감이 진정한 자존감이에요. 우리 사회는 갈수록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심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존감이 더 떨어져요. 금메달리스트가 제일 불행하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림픽에 안 나갑니다.(웃음)

한인정: 지금까지 이문재 시인의 시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선생님이 올림픽을 안 나가는 이유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을 보면서 ‘내 안에 다른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의 시를 읽으면 다른 타인을 만나는 건데 내 안의 나 같은 느낌일 때가 있더라고요. 이처럼 선생님의 시를 통해 나 자신을 성찰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 털어놓기로서의 글쓰기라는 개념을 통해 피까지 맑아지는 방법을 알게 되었네요. 이제까지 1부에서는 이문재 선생님의 시와 글쓰기에 관한 생각들을 통해서 문제적 개인 이문재 선생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2부에서는 최근 선생님 시와 행동으로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있는 “생태적 상상력”에 대해 여쭙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 2 부: 생태적 상상력과 시인의 마음

‘모든 진정한 시인은 심오한 생태학자다.’

한인정: 이문재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생태적 상상력’ 기본소득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광 시인님께서 선생님의 최근 시집에 대해 지구는 ‘대전란의 화염과 비명’ 속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인간은 문명 폭주와 기후위기라는 대재앙 속에 제 발로 들어’섰다면 이런 상황을 예리하게 읽어냈다고 표현하셨어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문재: 이영광 씨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후배 시인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Helena Norberg-Hodge와 여럿이 쓴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모든 것은 땅으로부터』예요. 그거만 알면, 모든 것은 땅에서 온다,  
그리고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준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게 생태적 상상력의 핵심이에요. 핵심. 제가 알고 있는 한.”

데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젠 시는 안 써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시를 잘 쓰는 후배들이 짝 깔려 있잖아요. 그 부러워하는 시인들 중 한 명이 이영광 시인입니다. 이영광 시인이 제 시집에 대해 너무 과장하신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좀 맨정신이라면, 깨어 있는 정신이라면,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이 위기 상황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만약 제 시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예리하게 읽어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 시가 문명 폭주와 기후위기라는 대재앙 속으로 제 발로 들어간 것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제 발이 빨려 들어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시정: 선생님을 표현할 때 ‘생태적 상상력’의 시인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시에서 ‘몽상’, ‘편력’, ‘산책’, ‘느림’, ‘농업’, ‘오지’와 같은 열쇳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생태적 상상력을 지향해 오

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에게 생태적 상상력이란 무엇인가요?

이문재: 지금 ‘몽상’에서 ‘오지’, ‘제국’까지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의 문학적 생애가 바로 정리되는 느낌이 듭니다. ‘모든 진정한 시인은 심오한 생태학자다’ 이게 김종철 선생님이 『녹색평론』에 늘 실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 젊은 시절의 시는 몽상, 편력, 서정시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전환을 이루게 된 것은, 제가 1984년에 기자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때 사회에 나온 건데 사회에 나와서 한 2~3년은 제가 일과 문학을 명쾌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지었어요. 낮에는 기자생활을 하고 해가 지고 나면 시인으로 돌아가고 그랬는데 이 경계가 어느 날부터 희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도시적 삶에 자꾸 지배된 거죠. 그때부터 이건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감지했죠. 그래서 저는 ‘생태주의’라는 말을 알기 전에 이미

제 몸 안에서 자생적으로 이 산업문명의 문제점들은 자각했습니다. 자각 증세가 있었던 거죠.

### 『게으름의 찬양』과 『녹색평론』, 생태적 상상력의 두 기원

이문재: 그때부터 일종의 전환이 일어났는데 그게 두 번째 시집부터입니다. 1980년대 후반이죠. 그때 몇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게으름의 찬양』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얇은 분도출판사에서 나왔고 장익 신부님이 번역한 책인데요. 자크 러끌레르(Jacques Leclercq)가 벨기에학술원에 들어가면서 한 연설문 하고 몇 편의 짧은 에세이가 실려 있는 책인데요. 그 책이 저한테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때부터 요즘 말하는 ‘생태’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산책’, ‘느림’, 이런 걸로 이 산업문명, 자본주의, 도시적 삶에 한번 저항을 해보자 거리를 뒤보자 했죠. 그렇게 해서 전환이 됐어요. 1991년에 『녹색평론』이 창간됐는데 그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이론이 있구나, 이런 대안이 있구나. 그 뒤로는 사실 기존의 일반적인 문학으로부터는 좀 멀어졌어요. 왜냐하면 『녹색평론』에 나오는 상상력이 문학이 갖고 있는 상상력보다 저에게는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어떤 전환이 저한테 찾아온 것이죠. 러끌레르하고 김종철 선생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다른 데 가 있을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잘 살았겠죠.(웃음)

한인정: 그때 만난 『녹색평론』의 상상력과 선생님이 이전에 추구했던 문학적 상상력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문재: 어려운 질문인데요. 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게 쓸모없음으로 쓸모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녹색평론』에서 나오는 상상력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또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고 만다는 그런 아주 실질적인 상상력이예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인정: 이전부터 몽상, 편력, 산책, 느림 이런 걸 자각하고는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생태’ 쪽으로 발화, 행동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이문재: 제가 울고 싶었는데 두 분이 세게 때리신 거죠. 여기는 러끌레르가, 여기는 『녹색평론』이.

### 내 인생의 복 김종철

한인정: 『녹색평론』 발행인이신 김종철 선생님을 쫓으면서 가르침을 따르려 하신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 김종철 선생님하고는 언제 만나신 거예요?

이문재: 2002년인가 2003년쯤에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와서 책을 같이 만들자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2001년 가을에 제가 『시사저널』 기자일 때 『녹색평론』 10주년을 맞아 저가 인터뷰를 간 적이 있어요. 카메라 들고. 그때 처음 뵈죠. 물론 그전에 『녹색평론』이 나오거나 녹색평론사에서 단행본이 나오면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매번. 그래 저는 술자리에서 그랬죠. “난 『녹색평론』서를 특파원이다” 자임을 했어요. 근데 아마 김종철 선생님께서 『시사저널』을 쪽 읽어 오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인연은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서평을 제일 먼저 실은 매체가 『시사저널』이었습니다. 그때 김성동 선생이 서평을 쓰셨는데, 제가 이런 책이 있는데 서평을 누구한테 부탁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김훈 국장한테 물어봤죠. ‘아마 김성동 선생이 관심이 있을 거다’ 해서 청탁을 했더니 바로 원고를 주셨어요. 나중에, 이걸 김성동 선생한테 확인한 건 아니는데, 김성동 선생이 『오래된 미래』의 최초의 서평자라는 사실 때문에 김종철 선생한테 큰 소리를 많이 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는 저는 제가 편집에도 관여하고 기획안도 내고 이러는 줄 알았어요. 전 편집 자문위원이었는데요, 자문회의를 하면 많을 때는 열 분 정도 모이잖아요? 그런데 별로 할 얘기 없어요. 듣고, 적고, “죄송합니다”,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분은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전 세계 주요 매체, 《가디언》부터 시작해서 《뉴욕타임스》, 일본의 『세카이』까지 다 읽으시는 분이예요. 국내 언



론은 물론이고요. 끝없이 공부하셨어요. 끝없이. 원래 문학 비평을 하셨잖아요? 근데 불소(화학원소 F) 문제를 가지고 현실 세계하고 싸웠죠. 문학 비평과 불소, 불소화는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이 산업문명의 그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면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글이든 강연이든 현장이든 가신 분이예요. 제가 이번에 지구에 와서 대단한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저에게 복이 있다면 그거예요, 그분들. 그런데 만난 건 복인데 그분들을 따라 하지 못한다는 건 엄청난 부담입니다. 부담.

장시정: 말씀 중에 『녹색평론』에서 하신 일들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녹색평론』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녹색평론』을 읽으면서 자기 삶과 사회를 바꾸기 위한 작은 활동들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던져주실 말이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재: 제가 『녹색평론』에서 한 일은 거의 없고요. 가끔 특집 기획을 맡거나 좋은 필자가 있으면 추천을 하는 경우였는데요, 배병삼 선생이나 김상준 선생, 전우근 선생 이런 분들의 연재를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이고요. 거의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녹색평론』 때문에 삶의 방식, 가치관을 바꾸신 분들이 많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오히려 존경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녹색평론』을 안 읽어요. 김종철 선생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 제일 고민거리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대학생들, 젊은 세대들이 『녹색평론』을 읽을까, 읽게 할 수 있을까였어요. 그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큰 해결책은 찾지 못한 셈이죠. 저는 젊은 분들이 『녹색평론』을 좀 읽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 자기만의 김종철-되기와 ‘60+ 기후행동’

한인정: 최근 ‘자기만의 김종철’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역할들 같아요. 김종철 선생님을 추모하는 시 「남녘 사십구재」를 쓰셨는데 거기

에 ‘김종철을 계승하되 김종철과 더불어 또 김종철을 넘어 서려는’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기만의 김종철이 필요하다’라고. 그건 어떤 의미로 쓰신 걸까요?

이문재: 그걸 저한테 국한을 시키자면, 저는 선생님께서로부터 물려받은 게 대단히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 현실과 만나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만나게 하면 내가 또 다른 김종철이 되는 것이겠죠. 귀농, 귀촌을 하거나, 원자력발전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정치를 개혁하거나 하는 것도 그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기존의 좋지 않은 것들을 바꿔나가는 사람들을 저는 ‘새로운 김종철’이라고 규정합니다. 두 분도 김종철이죠.(웃음)

장시정: 세상을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나만의 김종철’이군요. 그럼 선생님은 그 실천으로 올해 종로 탑골공원에서 ‘60+ 기후행동’을 출범시킨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문재: 아닙니다. 출범시킨 분들이 있으세요. 그야말로 실천가, 활동가, 촉진자들이고요, 저는 가서 심부름이나 하고, 거기 글 쓰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가서 뭘 쓰라고 하면 쓰는 대필 작가입니다.

장시정: 노년분들이 모여서 지구 위기, 기후위기,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겠다고 하고 선생님이 선언문을 작성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문재: 그거 쓰라고 해서 쓴 거죠. 그리고 그 선언문의 골자는 아까 맨 앞에 읽어드린 계간 《기본소득》 창간 축하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첫 문장이 거의 비슷해요. 어린아이들하고 눈을 마주칠 수가 없다, 젊은 친구들한테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볼 수가 없다 등등. 지금 결국은 60+ 세대가 우리 나라로 치면 근대화, 도시화, 정보화, 세계화의 열매를 따먹은 파렴치한들이잖아요? 근데 이것 몰라요. 다 내가 열심히 산 거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 이놈들아. 이렇게 큰소리만 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왜 공부를 안 해? 왜

열심히 살지 않아? 왜 꿈이 없어? 전 이게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립식 때 만든 슬로건 중 하나가 이거예요. <노년이 달라져야 미래가 달라진다.> 저희 세대가 각성하지 않으면, 반성하지 않으면 청년 세대의 미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노인들의 각성운동, 노인들의 실천운동 이것이 아주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은 안 바뀌어요. 그리고 노인이 달라지면 저절로 청장년, 어린이,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세대가 바뀝니다. 이대로 가면 이건 인류사적인 범죄예요. 이 노인들이 이대로 누리다가 가면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인류세’라는 말을 저는 그런 맥락에서 쓰기를 좋아해요. 인류세가 도래했는데 인류가, 노인이 먼저 반성하고 전환하지 않으면 인류세는 30년 안에 끝날 수 있겠죠. 지구가 뜨거워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류세가 끝난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제가 맥박이 빨라지네요.(웃음)

장시정: <60+ 기후행동>에서 60대 이상을 참여 대상으로 정한 이유가 궁금했는데 선생님이 답변을 해 주셨네요. 한국으로 보면 전쟁 이후에 산업화, 근대화의 열매를 받아 안았는데 그게 환경과 미래 세대에게는 큰 불편을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이문재: 불편함이 아니라 범죄이고 횡령이에요. 횡령.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 횡령이죠. 제가 60대, 노년에 대해 이런 말을 하면 반감을 가지는 분들이 10명 중에 12명은 돼요.(웃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뭘 잘못했길래 왜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서 무릎 꿇느냐? 절대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10명 중에서 15명이죠. 또 늘어났어요. 지금.

장시정: 미래와 환경의 횡령범인 60대들이 모여서 기후행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보면 청소년, 청년 기후활동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젊은 기후활동가들에게 말씀 해주실 게 있을까요?

이문재: 아니, 전혀 없어요. 잘 하고 계신데요. 그걸 안 하는 청년들한테는 할 말이 많죠. 어디다 제가 쓰기도 했지만 지금 청년들을 보면 이 경제적 공포에 완전히 포획되어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이걸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고민이 좀 많은데,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예체능계 예술가들이 돈 없이도, 돈을 적게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라, 그런 제안을 했는데 안 들어요. 누가 제 말 들나요?(웃음)

한인정: 저도 기후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런 청년들이 먹고살 수 있으면서 느리게, 산책하며 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1980년대에는 직업도 맘대로 선택할 수 있었다지만... 그런 기회들을 뚫어 주는 것이 노년의 역할이 아닐까요?

이문재: 노년이 그걸 보여줘야 돼요. 유산을 자기 혈연한테 줄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죠. 20여 년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거. 그런 운동도 앞으로 펼치려고 그래요. 다 환원하라고 하면 아까워하니까 1%든 5%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라고요. 기본소득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 60+ 세대의 자기성찰의 필요성과 털어놓기적 글쓰기라는 매개

한인정: 60+ 내에서도 사실 격차가 있잖아요? 60+ 전부가 비슷한 세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문재: 다양합니다. 원래부터 다양하려고 했고. 기존의 위계가 분명한 딱딱한 조직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네트워크 조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다 열려 있고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런 까닭에 좀 느립니다. 정책 결정이. 아직 정책이라는 말을 단계는 아닌데요. 아주 느립니다. 논의 방식이 아주 느려요. 천천히 가려구요.

한인정: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나요? 궁금한데요.

이문재: 당장 5월 22일이 <세계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이에요. 지금 지리산의 구상나무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 지리산 활동가 분들과 60+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대단히 싫어하시더라구요, 어쨌든 노년분들이, 60 더하기 분들이 거기 가서 같이 조출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는 국회 앞에 가서 내가 낸 세금을 기후위기를 해결하는데 써라, 그런 활동도 했어요.

그런 활동과 한편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 노년들로 하여금 각성에 이르는 방법은 자서전을 쓰게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런 ‘자서전 학교’를 곳곳에 만들고, 자서전이 만약에 힘들다면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추거나 합창을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은퇴하는 세대들이 이렇게 방치되면 그 각자 개개인의 삶이 황폐해지건 물론이고, 그건 큰 병이잖아요? 전 질병이라고 생각해요, 이 분들이 재탄생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60+ 기후행동>이 아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도 앞으로 준비할 겁니다.

장시정: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성찰과 재탄생의 방법인 글쓰기가 <60+ 기후행동>의 주요 활동으로 포함되겠네요?

이문재: 나가서 시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노년 세대로서 세상을 향해 발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인정: 자서전을 쓰면 행복할 것 같아요. 되게 우울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보는 게 좋기 때문에 다시 물려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본인들은 느리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60+>한테 지금은 느리게 산책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사실 돌아봐야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문재: 제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13, 14년째 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내주는 첫 번째 주제가 ‘선생님의 생애에서 최고의 순간이 무엇인지 찾아서 써

라. 다만 성장기에’입니다. 열추 계산해 보니까 그동안 일반시민 500여 명이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생애 최고의 순간이란 주제로 500여 편의 글을 읽은 것이죠. 그런데 500명이-열세 살부터 팔순 할머니까지이고 직업



장시정

도 다양합니다. 대통령하고 검찰총장 빼고 다 왔습니다 - 놀라운 것은 이런 거예요. 그다음 주에 제가 여쭙습니다. 이 주제로 글을 쓰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냐? 그럼 답이 하나예요. 똑같아요. 놀랍게도.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예요. 누군가가 ‘한국 사회가 왜 문제냐? 증거를 대라’라고 하면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하철 3호선에 들어가서 아무나 붙잡고 질문해서 그런 답이 나왔다면 저는 별로 충격을 안 받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 시민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강의 듣는 분들은 자기가 글쓰기를 위해서 온 분들이예요. 그분들은 평균적인 한국인이 아니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일까 고민하는 사람들이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이 지경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성찰을 하려면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뒤돌아봐야 되잖아요? 안 돌아봅니다. 그렇다고 앞을 보느냐? 안 봐요. 이 글쓰기의 마지막 주제는 ‘당신이, 선생님이 앞으로 살고 싶은 집을 직접 설계해서 짓고 산다면 어디에다가 어떤 집을 짓고 싶으냐?’예요. 500여 명 중에서 3명 빼곤 다 시골이에요. 그리고 하늘이 보이는 넓은 천장이 있고 텃밭이 앞뒤에 있고 절반은 한옥, 큰 거실이 꼭 하나씩 있어요, 이걸 동네 사람들이 즐겁게 지내려고요, 남자들은 지하에 반드시 공방이든 여자들은 2층에 조그만 다락방 하나가 있죠. 미래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 로망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렇다고 현재가 있느냐? 과거

와 미래 없는 현재가 어딴어요? 지금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게 이상해요. 무슨 신이 계신 거 같아요. 나는 원래 무신론자인데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아니, 신이 계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사회가 지탱되는지 모르겠어요.

한인정: 사람들이 껌데기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껌데기로 살아가고 있어서 글을 써도 내면을 찾기 힘든 글이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 안에 분명 자기가 있는데 그걸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문재: 그런 계기가 없어요 계기. 그런 계기를 우리 사회든 종교든 기업이든 학교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한인정: 자기를 찾는다면 달라질까요? 글을 써서 자기를 알게 된다면?

이문재: 많이 달라져요. 사실 그게 무섭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잘 다니던 출판사를 그만두고 전통 병과를 만들어 장사를 하다가 바로 망했죠.(웃음) 그런 사람들 아주 많아요. 아마 제가 전수 조사를 하면 가정이 파괴된 데도 몇 군데 있을 거예요.(웃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싶어서. 등단한 친구도 있어요. 책을 낸 친구도 있고.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아니 다시 태어났는데 안 달라지겠어요.

#### 기후위기에 대한 인지부조화와 감성적인 언어의 필요성

장시정: 선생님은 글쓰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소비문화 중심, 자본주의 중심의 사회를 바꿔 나가기를 원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60+ 기후행동>에 계신 각각의 영역에 계신 여러 분들도 각각의 영역에서 그런 활동을 꼭 해가실 것 같아요. 근데 저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미래에 대해 본인들이 뭔가 수탈, 착취해 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현실 정치에 있는 사람들은 기후 대재앙에 관심도 없고 현재와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선생님처럼 기후활동을 하는 분들의 현실 참여와 행동이 많

은 것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기후행동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거리에서 시위를 하거나 특정한 날에 뭔가 요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과 다른 분들과 힘을 모아 다양한 장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 행동에 동참하자는 얘기를 계속해 나가는 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합니다.

이문재: 그게 딜레마죠. 어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투표에 나타나질 않잖아요? 삶의 변화에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원인이 뭐가? 『기후변화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길 보면, 호모사피엔스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더라고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능력이 토끼하고 다르지 않대요. 그리고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의 책을 보면 ‘구석기의 저주’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지금 7~80억에 달하는 인류가 문명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인지구조, 감정의 시스템은 만이천 년 이전, 신석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의 인류는 평균 50명이 무리를 지어 살았잖아요? 150명이 넘지 않았습디다. 거기에 적합하게 우리 뇌는 진화를 했고 거기까지인데 지금 우리는 너무 큰 규모에서 너무 엄청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의 심리학을 보면 아주 재밌는 삽화가 나옵니다. 코끼리 조련사는 코끼리 등에 타서 과학 저널을 읽고 있는데 코끼리는 바나나가 어딴지 찾아다니는 그림이에요. 우리 이성이 우리 감정을 다 조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림없는 소리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그 조련사가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교육자든 간에, 조련사는 무언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코끼리는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책 뒷부분을 보면 방법이 수십 가지가 나는 있는데, 너무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기억나는 게 ‘환경단체에서 기후 문제를 대중에게 알릴 때 북극곰 쓰지 말아라’예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감성적인 언어를 사용하라는 이런 건데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 평생 활동하신 분들을 가끔 만나 보면 그 틀이 여전히 있어요. 세계 나가야 한다, 이런. 그래서 저는 <60+ 기후행동> 안에서 아주 소수

자입니다. 제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웃어요. 평생 들어 보지 못한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요. 근데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장시정: 사람들이란 흔히 자신이 그동안에 써온 언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저도 되게 운동권적인 얘기를 하게 돼요. 저한테는 그게 관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청소년이나 청년 활동가들을 보면 그들의 직접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성찰 같은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과정들이 있는 거 같아요.

이문재: 자기 이야기가 있죠. 자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자기 이야기가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걸 이렇게 건드려 주는 촉진 활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는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성찰하고 그걸 표현하는 것.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기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자기 소비나 하지. 자기 표현이 없어요.

### 그러므로 문제는 자기성찰이다

한인정: 아까 얘기하신 ‘나만의 김종철’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슬픔은 세상을 바꿀 수 없고 기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기후위기가 되게 멀리 있고 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누군가를 지켜야 되는 문제, 북극곰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글쓰기처럼 결국 나의 과거와 미래를 지키는 일이고 결국 나를 지키는 일이다, 그럴 때 이 공간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생태적 상상력이 탄생하는 거다, 이게 ‘나만의 김종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야만 우리가 앞으로 이 시대를 바꿔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이자 최선인 것 같고요. 이제까지 선생님이 얘기해주신 폭넓은 주제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글쓰기로 돌아가

는 것 같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문재: 글쓰기가 아니더라도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하는 방법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명상을 하든 산책을 하든 여행을 가든 친구들 하고 아주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든. 우선 멈춰서 한 걸음 벗어나야 자기 성찰이 가능한데, 이 경제적 공포 때문에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아요. 돈을 벌지 못하면 죽는 줄 안다고요.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이 사회가. 이 사회적 압박을 견뎌낼 무슨 면역력이나 다른 걸 생각하는 힘들이 갈수록 없어져요 갈수록.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늘 지켜보는데 학생들이 과제를 내주면 다 해요. 시 창작 교실인데 날씨 좋아서 어디 가고 싶으면 가, 출석으로 인정해 줄게라고 했는데 이번 학기에 딱 한 명이 어디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성악과예요. 저는 경제, 경영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출석 꼬박꼬박 하고, 왜 출석 안 부르냐고 해요. 갈수록 심해요. 부모님께 다 미안해하고요. 우리 때는 어떻게 하면 부모로부터 벗어나나, 이른바 살부위식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죽여야 내가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를 죽였는데 내가 아버지가 못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부모님한테 미안해하고 부모님한테 잘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좀 깜짝 놀랐어요.

한인정: 요즘 청년들이 체제순응적인 게 경제적 공포에서 촉발된 것이니,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경제적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세대인 <60+>부터 자신을 돌아보면 청년들이 또다시 용기를 내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부에서는 작금의 현실에서 시급하게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성찰, 돌아보기, 생태적 상상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생태적 상상력에 관심을 갖기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실에선 생태적 상상력에 관심을 돌리기엔 너무 어려운 조건을 가진 이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그런 사람이 경제적 공포로부터 벗어나 생태적 상상력을 갖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과연 기본소득이 그들에게 자기를 성찰하게 하는 한편 지구적 위기



에 적극적인 행위로 나서게 하는 가교로 적절한가, 만약 그 가교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하게 하려면 현재의 기본소득 논의에는 무엇이 더 고려되어야 할까' 등등이 아닐까 하는데, 3부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표현을 빌자면 성찰적 글쓰기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로서의 기본소득,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 3 부: '지속가능한 인류세'를 위한 최후의 보루, 기본소득

좋은 나라, 먼 나라

한인정: 이문재 시인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생태적 상상력과 기본소득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생태적 상상력을 가능케 하는 여러 조건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를 안 읽고 넘어갈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시집을 펼쳐주세요. 「이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그 시를 한번 읽어주세요.

이문재: 예, 떠들떠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이문재

입학식이 따로 없고 자기 생일 아침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나라가 있습니다//여덟살짜리와 열두살짜리가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나라, 교과서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지구온난화를 해결하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돌려 달라며, 등교를 거부하는 여학생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나라가 있습니다//할머니와 직장인과 미혼모 여학생이 한집에 사는 나라//등록금을 나라에서 다 대주는 나라//달리기 시합 때 아이들이 나란히 손을 잡고 함께 골인 하는 나라//국민 총생산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앞

세우는 나라//연간 입국 관광객 수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나라//군대 없는 나라 또한 한둘이 아닙니다//유전자 조작 식품을 키우지도 않고 수입하지도 않는 나라//에너지 마을에서 자급자족하는 나라//식량 자급을 위해 농업, 농촌, 농민을 존중하는 나라//새를 키우고 텃밭을 일구게 하며 환자를 치유하는 병원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손자 손녀 세대가 쓰게 하려고 통나무를 잘라 건조하는 나라//시간 은행이 있어 아이 돌보기, 노인 보살피기, 이사, 가사노동, 집수리, 도구나 기계 고치기, 피아노 가르치기 등 재능을 주고받는 나라//댐 건설을 막기 위해 마을 어머니들이 나무에 자신의 몸을 묶는 나라//외부 주주가 아니라 직원이 100% 소유하는 백화점이 있는 나라//지역의 수백 농가가 참여해 유기농 낙농 기업을 운영하는 나라//전 국민이 헌법을 알아야 한다며 정부에서 헌법 해설서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배포하는 나라//가난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 있는 나라//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나라//동식물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이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 즉 '미래를 먼저 사는 나라'가 많습니다//사실은 나라가 아니고 몇몇 선구자들의 꿈이고 실험이고 도전이겠지요//아직은 미미하지만 곧 우리 앞에 나타날 좋은 나라의 좋은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좋은 이야기가 좋은 삶, 좋은 사회를 만듭니다//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미래입니다//이 시가 '끝없이 이어지는 좋은 이야기'의 첫 문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당신이 이 이야기를 이어 나가셨으면 합니다

너무 길쭉? 짧은 시가 좋은 시인인데요.

장시정: 선생님의 시에 나온 나라가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잖아요? 먼 나라가 아니고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상 속의 나라로 느껴지기도 할 것 같아요.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 나라가 더

욱더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최근 시집 『혼자의 넓이』를 보면서 자본주의 세계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인간과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선생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이야말로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재난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1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방역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면역 체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좀 느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임박한 파국과 ‘뭐라도 해야지’, 그리고 ‘몬스 사케르’

이문재: 전 멸망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멸망을 할 거면 한번 제대로 잘 해보자는 생각이예요. 『더 로드』라는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죠. 십여 년 전에 나온 책이고 영화인데 인류 최후의 날을 다룬 영화와 소설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미래는 인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 지구도 관심이 없다고 봐요. 근데 이 인류세가 도래한 뒤에 지구가 드디어 분노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가 사라지면 지구 생태계는 바로 살아날 거예요. 근데 이 호모사피엔스가 모질어서 나름대로 영리해서 빨리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조금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을지 정말 고민입니다.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전 못 살겠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일 빠른 방법은 현실 정치를, 이 판을 뒤집어엎는 거죠.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인데, 그 방법이 어떻게 해야 시도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진리는 사후적 진리라고 하잖아요? 예상,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그 전환점을 만들어 낼 것인지는 우리가 상상,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까 드라마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본 드라마가 있어요. 넷플릭스의 <D.P>예요. 군 탈영병을 추적하는 병사들의 이야기인데 맨 마지막 장면의 마지막 대사가 저한테는 남아 있어요. 고문관, 아니 관심사병의 대사죠. 하도 고참들이, 선임들이 힘들게 구니까 그 관심사병이 내무반에서 난사를 하잖

아요? 근데 난사하기 직전에 한마디 합니다. “뭐라도 해야지.” 지금 객관적인 조건, 환경을 보면 이 시스템은 오래 못 가죠. 그렇다고 한탄만 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 뭐라도 중의 하나가 저는 노인들을 각성시키는 그런 데 한 발 걸쳐 놓는 것 그리고 제가 쓰는 글에 이런 메시지를 담는 건데, 이거 말고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한인정: 선생님이 얘기하시고 있는 지점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와 닿은 건 고독에 대한 부분이었던데요. 선생님 작품 중에서 「활발한 독거들의 사회」라는 시를 보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고독한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특히 자족적인 독거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셨구요. 그 표현처럼 지하철만 타도 사람들이 많지만 다 각자 홀로 따로 있잖아요. 그런 독거, 고독.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원하는 게 사람이죠. 현대사회에서의 고독은 어떤 의미인 걸까요?

이문재: 현대사회의 고독은 당연한 귀결인 것 같아요. 가족 구조가 이렇게 됐죠. 마을이란 말을 쓰기가 어색할 정도로 마을 공동체가 붕괴됐죠. 결국 파고 들어가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건 결국 자본주의의 문제죠. 삶의 질이나 삶의 성격을 소비의 수준으로 다 환원시키고 있잖아요. 대중소비사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건 아니예요. 다 나와 있잖아요. 수천 년 전부터 나왔잖아요. 부처부터 예수, 공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한 게 넘쳐나요. 지금은 대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꾸 개인의 실천만 얘기해요. 종이컵을 쓰지 마라 등등. 이거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그 해결을 미룬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김종철 선생님 얘기를 하면 김종철 선생 칼럼 중에서 “몬스 사케르”라는 칼럼이 있어요. 몬스 사케르 Mons Sacer는 로마시대의 한 역사적 사건을 상징하는 산이죠. ‘몬스’는 산이고 ‘사케르’는 성스러운, 성스러운 산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시대 때 평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산으로 올라가요. 지금으





로 치면 국민 파업을 하는 것이죠. 국민 파업. 발음만 해도 신이 나네요.(웃음) 평민들이 다 산으로 올라간 거죠. 그런데 당시의 정치인들, 원로원 사람들이 그걸 우습게 알았어요. 재들 그냥 놔두면 금방 내려올 거야, 무시한 거죠. 그래도 안 내려오니까 어, 애들 봐라, 하면서 회유책을 씁니다. 그래도 안 내려왔어요.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가 호민관이라는 제도예요. 저는 우리 곳곳에 그런 몬스 사케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느 날 다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한인정: 국민 파업을 하고 산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어떤 여학생이 나무를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이문재: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팬데믹 때 중국에서 국가, 도시를 폐쇄했잖아요? 이걸 잘 응용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한인정: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깐 제가 만난 10대 청소년이 생각나네요. 그 친구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한 대요. 그래서 그게 뭘까, 되게 고민했거든요.

이문재: 그게 1인 혁명이예요.

한인정: 그 친구가 알고 보니 혁명가였어요, 진정한 혁명가였네요.

이문재: 그런 친구들이 많아져야 돼요.

한인정: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한다.’

이문재: 특종을 하지 않으려는 기자들도 많아져야 돼요. 시를 안 쓰는 시인도.

한인정: 저희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어야 되나요?(웃음) 인터뷰를 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공포로부터의 탈주와 기본소득

장시정: 앞서 말씀하셨듯 경제적인 공포가 모든 사람들

을 집요하게 장악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우리 사회에 엄존하는 소외와 차별과 배제가 그 공포의 원인이 아닐까 하는데, 이런 사회를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적 상상력은 당연한 거고, 그 생태적 상상력을 가능케 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기본소득이 중요한 매개라고 봅니다만, 이 악착스러운 경제적인 공포에서 벗어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문재: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글도 몇 편 썼는데, 그중 하나가 성격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나중에 온 자에게도 똑같은 1데나리온을 주어라. 저는 그게 기본소득의 기원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그 성격의 기사(奇事)를 보면, 포도원에 온 사람들한테만 준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상상을 했냐 하면 포도원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픈 사람이라든가 어린아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주어라라고 말을 덧붙였죠. 그게 가장 근본적인 기본소득일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금 이름이 생각 나지 않은 분의 말이에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지 마라.” “물고기를 쥐라.” 우리는 그동안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육이나 종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일단 물고기를 쥐야 살아가고 그래야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죠.

그런데 기본소득에 대해 말할 때 지금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거 같아요. 재밌는 통계 설문조사가 있었잖아요? 독일 시민들한테 기본소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받겠다. 그렇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할 거 같다’고 답하죠. 기본소득에 대한 이런 이율배반적인 반응을 볼 때마다 기본소득 운동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소득’이라는 말 자체가 쉽게 와닿질 않아요. 기본소득이 무엇인지를 한두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감성적인 언어를 발명해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탄소중립’이란 말도 전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탄소중립이 뭐지? 안 와 닿아요. 기본소득도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 이걸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좀 논의가 진행되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깝구요.

또 하나, 기본소득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데 켄 로치Ken Loach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예요. 국가가 시행하는 지금의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그걸 받는 수급자들을 대단히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내가 낸 세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낸 세금을 내가 받는 건데, 그건 권리잖아요?, 당당해야 하는데, 우리의 행정 시스템은,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공무원들은 그 권리를 무시하죠. 기본소득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봐요. 당연한, 신성한 권리라고 인식해야 해요.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회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우리 모두가 물고기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가끔 이런 비유를 해요. 우리 어릴 때 동네에서 구슬치기나 딱지치기 하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다 그걸 몰아가요. 그럼 개는 못 놀아요. 그래서 이런 논의도 있었잖아요? 자본주의를 위해서도 기본소득은 필요하다. 동네 친구는 나중에 자기 딱지 몇 개씩 나눠주잖아요. 그래야 이 친구는 놀 수가 있는 거예요.

‘농민기본소득부터 시작을 해보자’는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농민, 농부를 공무원 신분으로 격상시키자!’ ‘농부가 하는 일은 대단히 공적인 일이다.’ 그런 논의들이 좀 활발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번 대선 때 기본소득 이야기가 좀 활발하게 나왔어야 하는데 초창기에 약간 나오다가 이상한 쪽으로 논의가 흘러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한인정: 아쉬움을 말해 무엇하겠습니까?(웃음) 기본소득의 최근 논의 방향이 공유부, 공유지 개념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공유부를 공유할 권리가 있고 또한 우리 모두가 사실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돌봄도, 산책 같은 것만 행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져한다, 그것은 절대 그 어떤 시혜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안 물어

볼 수가 없어요. 기본소득을 언제, 어디서 만나셨는지?

이문재: 『녹색평론』에서 일찍이 만났어요. 아주 일찍.

한인정: 김종철 선생님, 듣고 계시죠?(웃음) 어디선가 듣고 계실 거예요.

이문재: 『녹색평론』이 상당히 일찍이 기본소득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 ‘모든 것은 땅으로부터’와 농촌기본소득

장시정: 저도 김종철 선생님에 대해 기억나는 게, 한 10년 쯤 전인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만들어지고 기본소득 공동행동을 했었는데 그때 김종철 선생님께서 같이 함께 하셔서 활동을 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어느 칼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뿌리는 아스팔트가 아니라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예전에 농민들하고 같이 집회를 해서 아스팔트, 농사 그런 얘기가 더 익숙한 표현이기는 한데. 그런 말씀과 함께 “기본소득을 통해서 농업을 살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적인 영역인 농업, 거기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위한 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이 미래로 가는 여러 가능성 중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까 잠깐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주세요.

이문재: 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요. 지자체 단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근데 농민한테 주는 것이냐 농가한테 주는 것이냐 농민의 기준이 뭐냐 같은 여러 논의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구체적인 제도는 전문가들이 마련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고, 다만 농업, 농민, 농촌의 중요한 핵심적인 기능을 좀 알아야 될 거 같아요. 그걸 알면 자연히 농민기본소득으로 간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고 있는 것이 식량자급률이에요. 제 친구 중에서 시 잘 쓰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5년 전에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식량 자급률이 얼마나 되

는지 아냐? 그랬더니 언짢아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느냐는 반응이었어요. 관심이 없어요. 문학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한 관심 또는 감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식량하고 에너지처럼 근본적인 게 어딴어요? 식량과 에너지만 놓고 보면 전 우리나라가 국가가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국가가 식량과 에너지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저자들의 에너지 식량 정책은 이런 거 아니에요? 저 썬 데 가서 구해오면 된다, 저 만주, 그다음에 베트남 거기 삼각주 그런 데서 가져오면 된다.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 나라는 장사꾼 집안이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집안이에요. 만약에 장사를 못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굶어 죽는 거예요. 창고에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를 지어야 살지요, 농사를.

콜롬비아 다녀온 얘기를 안 물어보셔서 제가 얘기해야 되겠는데, 최근 ‘한국문학 앤솔로지’가 나왔는데 거기에 저의 시 6편이 스페인어로 번역돼 실렸어요. 콜롬비아 한국문학 행사 자리에서 객석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저는 농업, 농사에 대한 시를 보내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여자 분이 그러더라고요. 콜롬비아에도 농민들이 부르는 노래, 시 비슷한 게 있는데 당신의 시를 보니까 그 노동요가 생각난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분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면 다 생태적 상상력과 연결이 된다고 봐야죠. 우리가 땅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반도체를 삶아 먹으면 된다, 먹을 수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되죠. 타이어도 삶아 먹고 핸드폰도 2년 지나면 구워서 먹고.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죠. 모든 것이 땅에서 온다는 이 자명한 사실을 몰라요. 애들에게 음식이 어디서 오냐 물으면 마트에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난 이거 교실에서 물어봐요. 지금 입고 있는 것, 쓰고 있는 것이 어디서 오냐? 땅에서 오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sup>1)</sup> Helena Norberg-Hodge와 여럿이 쓴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모든 것은 땅으로부터』예요. 그거만 알면, 모든 것은 땅에서 온다, 그리고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준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게 생태적 상상력의 핵심이에요. 핵심. 제가 알

고 있는 한.

장시정: 예전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때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식량안보는 어떡하냐, 뭘 먹고 사느냐 했더니 핸드폰 판 걸로 먹고 살면 된다는 얘기가 한참 있었는데, 그때부터, 아니 그전부터 그렇지만 농업이나 농민에 대한 천시와 무시, 배제가 한국 사회에서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문재: 그렇죠. 경부고속도로하고 호남고속도로가 왜 생겼습니까? 그것은 삼남 지역(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있는 값싼 노동력을 수도권에 있는 공단으로 빨아들이기 위해서 노동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농민, 농촌, 농업을 말살시킨 결과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3만 불 시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천천히 근대화를 해서 지금 우리 국민소득이 3천 불 정도 되었다면 그래서 골고루 가난한 사회가 됐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논의를 안 하고 있겠죠.

#### 초국적기업과 작은 정부라는 덫

한인정: 사실 농촌에 있는 농지가 가장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도 농지에 다 설치하고,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할머니들이, 아까 낭독해주신 시 속의 댐을 지키는 할머니들처럼 온몸으로 농지를 지키고 있고요. 그런데 그 농산물을 먹고 있는 우리는 마트에서만 사니까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저기 저 정부, 윤석열 국가라고 봐야겠죠?

이문재: 아니요. 사실은 정부 역할은 거의 없어요. 그런 일을 하는 건 초국적 기업이죠.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는 말도 안 써요. 초국적 기업. 그 초국적 기업의 빅 3가 있잖아요. 제약회사, 곡물회사, 군수산업. 이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정부는 그 하수인이예요. 하수인. 작은 정부라는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전 정부가 커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정부가... 그래서 기업을 통제해야 되는데 기업하는 분들께서는 '왜 자꾸 간섭을 하느냐?'라고 하죠. 이 용어를 쓰기 싫지만,

'신자유주의'인 거죠. 그래서 독거노인들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소득 논의에서 마을공동체라는 전통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마을에서 상호 부조하는 전통 이게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국가, 왕조가 한 게 그리 많지 않잖아요? 마을 단위로, 아까 공유지 말씀을 하셨지만, 공동으로 경작하는 논과 밭이 있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소출은 배우자를 잃은 가정이나 아픈 사람들, 마을 공동 행사에 썼죠. 그 농민 사회는 아주 엄청난 민주주의 사회였어요. 어떤 사안을 놓고 회의를 할 때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이틀이고 사흘이고 계속 회의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민주주의의 탈을 쓴 과두제요. 과두제.

#### 우리 모두의 재탄생과 윤석열 국가 넘어서기

한인정: 지금 국가는 최소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의 밑에서 앞으로 5년을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5년의 시간을 보내야 할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이문재: 이건 답을 하기가 싫은데요.(웃음) 아까 자기성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자기성찰을 시작해야 한다고 봐요. 내가 왜 이렇게 사냐?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었나?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 거기서부터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할 거잖아요? 저는 민주주의가 자기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달라지겠죠. 원리는 단순해요. 유권자가 생각이 바뀌면 유권자가 기후, 기본소득 애기만 하면 저자들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우리가 재탄생하면 정권이 재탄생해요. 근데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아무 소용없어요. 이런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딿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한인정: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촛불만 들고 내리면서 저 정권이, 그러니까 흰 고양이가 검은 고양으로 바뀌면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는 그렇지 않았죠.

이문재: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공유해야 해요. 민주주의는 대의제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투표하는 게 민주주의인 줄 알죠. 다수결로 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왜곡시킨 거예요. 저분들이.

한인정: 오늘 여러 번 등장하시는 저분들입니다. (웃음)

장시정: 저도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이 활발하게 논의되거나 정책화하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되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 한 4일 된 정부인가요? 딱딱딱한 정부인데, 어떤 분들은 기본소득의 작은 가능성마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기본소득 운동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은데 기본소득 운동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시는 선생님께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문재: 반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 윤석열 정부가 지금 원하는 공약을 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자각할 것 같아요.

한인정: 반어적이네요. 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문재: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들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바꾸지 않고, 끝까지.

한인정: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극단에 치달았을 때 뭔가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의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경제적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물론 그 과정 중에 반드시 자기성찰의 계기로도 작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없으면 다 소비하고 써버리니까요. 그런 것들을 놓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나의 김종철’ 그리고 ‘나의 민주주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이문재 선생님을 모시고 ‘생태적 상상력과 기본소득’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1, 2, 3부 다 이어서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깐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류보선)

## 도자기 필통과 옥수수 속대 빨뿌리

김정환  
시인

공예가 형수가 허겁지겁 챙겨 주느라  
구경(口徑)이 너무 광대한 청자색 도자기 필 통을  
역시 선물 받은 다발 연필과 다발 색연필과  
아메리카 인디언 편지 칼과 스페인산 검은 이슬람 무늬  
철부채와 사전용 막대 돋보기 세워 채우니  
그  
미리 깎아놓은 울울창창 죽창의  
악몽을 벗어났다. 아니 그게  
아직도 있었나? 찢리는 것보다 찌르는  
악몽이던 그게?  
숫구침이 너무나 조용한 경악이다.  
큰아버지 근기(近畿) 하천 그물질 한 번에  
양동이 넘치도록 걸렸으나 이제는  
근기 유원지 식당에서도 값이 `시가`로 매겨진  
쏘가리매운탕 어감도  
숫구침이 너무나 조용한 경악이다.  
진공청소기 되게 떠든다. 제 혼자 세상이고  
세상에 청소만 한 게 없고 청소하느라  
일생을 소모하는 거라는 투다.  
종이신문이 세계관처럼 펼쳐지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내가 나를 Search하는 나의 고독인데 내가  
고독이라는 말을 모른다.  
고장 난 인터폰을, 그때 생각 난 말 `요비링`이 썩 괜찮아서  
아직 안 고치고 있는 정도. 내가 아는  
내용이 호탕했던 사람들은 너무 크게 얻어 맞아 그리  
길길이 뛰다가  
눈에 보이게 죽었거나 안 보이게 사라졌다.  
그래도 나는 그러기 전 날 그들에게



한 급 높은

잡탕밥 한 그릇씩은 유언으로 얻어 먹었다. 그래서

40 년 전인데 늘 어제의

잡탕밥이고 요비링이다.

천재 아니라 천재 할아버지라도 남이 흠집이 먼저 보이고

그것만 보이면 뭔가를 창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오랜 세월의 천재다. 그들 위해 경악의

꽃다발 폼다, 팍 찬

도자기 필통.

Corncob pipe는 corncob pipe, 옥수수 속대로 만든

담배 빨뿌리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아전 사령관으로서 애용했고,

정말 좇 만하다. 어찌나 그런 지

그 안에 아주 많이 아주 깊이

숨어 있다.

이를 떼면 자연의

쓰레기 활용. 도시 감각 보들레르 곁에

아직 있는 늙은 농촌 창녀. 11차원의 스티븐

호킹 너머 여성의 가정 폭력에도 불구하고

모음(母音)의 집과 11 차원을 4차원으로

응축하는 고전의

새로움을 위한 가벼운 깊이.

파탄 속으로 몸을 숨기는

재능과 우월.

속지 없이 부서져 더 새까만 비닐

명반 중에도 명반.

멀리 가기 위하여 미리

느슨할 필요 없지. 미리

감격할 것도 아니다.

## 무보(舞譜)

\* 춤의 동작을 악보처럼 일정한 기호나  
그림으로 기록한 것.

박연준

시인

오른 다리를 오른 귀에

왼 다리를 왼 귀에

선과 새

선과 새

불러 오세요

허리가 아픈 사람은 의자의 숨은 이름을 외치세요

다리에게 보내는 이름

가슴에게 보내는 이름

왼쪽과 오른쪽의 혼례에 참석할 이름

부위마다 새로 부친 이름

선과 새

선과 새

오른 다리는 왼쪽 허리에게

왼 다리는 오른쪽 귀에게

잠들지 않은 채 잠을 뉘어 보세요


서지 않은 채 까치발을 세워보세요

죽은 사람과의 열여덟 번째 겨울을

단전에 모으세요

선과 새

선과 새



불러 오세요

오른쪽으로 피루엣 세 번

왼쪽으로 빠 드 샹(pas de chat) 다섯 번

암전이 될 때까지

롱 드 잠(ronds de jambe)

롱 드 잠(ronds de jambe)

지속하세요

한 다리로

지나가는 세월을 그리세요

발끝으로 썼던 이름을 지우듯이

그리세요 지우듯이,

계속

그리세요

## 비브라토, 비브라토

이기호

작가

## 1.

그의 아내가 낙원상가까지 직접 나가 중고 첼로 한 대를 사 온 것은 삼 주 전, 토요일의 일이었다. 첼로라니! 그는 검은 가죽가방에 얹전히 들어 있는 첼로를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아내는 그런 그의 옆에 앉아, 검은 가죽가방 뒤에 들어 있던 활을 꺼내 형광등 불빛 아래 이리저리 비춰 보았다. 허공에 대고 몇 번 휘둘러보기도 했다. 마치 이제 막 솟돌에 간 장검을 살펴보는 무사처럼 아내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다. 이거야 원, 무서워서 농담이라도 제대로 하겠나.

그가 지나가는 말로 첼로 이야기를 꺼낸 것은 두 달 전쯤의 일이었다. 대리기사였던 그는, 일이 끝나면 가끔 아내가 밤 열 시부터 철야로 주방일을 보는 김밥천국에 들러 함께 퇴근을 하곤 했다. 아내가 퇴근 직전 하는 일은 그날 치 주문 김밥을 은박지에 도르르 말아 스티로폼 박스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일이었다. 가끔 주문량이 많은 날엔 그도 팔을 걷어붙이고 박스 나르는 일을 돕곤 했다. 그러다 보면 그의 몸에도 아내의 그것과 같은 시큼한 단무지 냄새가 배곤 했는데, 그 냄새가 종종 그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했다. 김밥천국에서부터 그들 부부가 사는 다세대 반지하방이 있는 동네까지는 버스로 네 정거장 거리였다. 주위가 희뽕하게 밝아올 무렵, 그들 부부는 그 거리를 항상 손을 맞잡은 채 걸어갔다.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사거리를 지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마주보고 있는 운동장 담벼락을 걷다 보면 천여 세대가 밀집해 있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입구와 마주치게 되는데, 그곳은 불과 이 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 부부의 주소지였던, 28평형짜

리 아파트가 있는 곳이기도 했다. 남들 다한다는 가상화폐 시장에 발을 들이고,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을 거듭하다가 일 년 반 만에 허공에 날려버린, 그러나 여전히 대출 이자는 내야만 하는 아파트가 있는 곳……. 그래서 그는 될 수 있으면 그곳을 지나치지 않으려, 일부러 중학교 뒤쪽으로 난 길로 빙 돌아가려 했으나, 번번이 아내가 막아섰다.

“왜 멀쩡한 길을 놔두고 돌아가? 헛심 뺄 일 뭐 있다고.”

아내는 그의 손을 잡은 채 반 발짝 정도 앞서 걸어 나갔다. 그는, 아내가 자신 앞에서 더 씩씩한 척 노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게 때론 그를 서글프게 만들기도 했지만, 씩씩한 척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씩씩한 것은 아닐까, 스스로 위안으로 삼기도 했다.

첼로만 해도 그랬다. 그가 지나가는 청소차에서 흘러나오는 베토벤인지 쇼팽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소나타 악장을 허밍으로 따라 하다가 ‘예전엔 정말 나이 들면 꼭 첼로를 배우고 싶었는데……’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을 그의 아내가 놓치지 않고 들었던 것이다.

“첼로? 그걸 배우고 싶었던 말이야?”

그의 아내는 마치 진기한 것을 발견한 사람처럼, 입술을 둥그렇게 말면서 말했다.

“뭐, 그냥…… 아이들 생기면 개네들 앞에서 연주해 주고 싶었거든…….”

“그래? 그럼 그러면 되겠네, 뭐.”

그의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툭, 그렇게 말했다. 그는 들릴락 말락 한 목소리로 ‘내 주제에 무슨……’하면서 말끝을 흐렸고, 그 뒤론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살았다. 한 데, 느닷없이 아내가 첼로를 사 온 것이었다.

“아이들 앞에서 연주하려면 미리 배워둬야 할 거 아니야.”

아내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미 배울 곳도 다 알아 뒀다고 했다.

“아니, 지금 우리 형편에 첼로를 어떻게 배우라고…….”

“그러니까 학원은 못 보내주고, 인터넷에서 알아보니까 저쪽 초등학교 근처에 교회 하나 있지? 거기에서 동호회 회원들끼리 모여 서로 가르쳐주고 연주도 한다니 봐. 내가 짬싸게 당신 이름으로 등록도 다 해놨어.”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이건 자기가 씩씩하다 못해, 남편까지 씩씩하게 만들 작정이구나. 거기까지 생각이 닿자, 방바닥 정중앙에 누워 있는 첼로가 마치 육중한 철근 덩어리라도 된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지만 했다.

“아니, 난 악보도 제대로 못 보는데…….”

그가 괜스레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닦으며 중얼거리자, 아내가 서둘러 아퀴를 지으며 자리

에서 일어났다.

“저거 내가 두 달 동안 세 시간 더 일찍 나가서 김밥 만 돈으로 산 거야. 알아서 해.”

그는, 아내가 부엌으로 나간 뒤에도 계속 정물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다. 첼로라 나……, 허, 거참.

## 2.

영똥하게도 첼로가 그의 일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 우연한 계기로 하게 된 ‘나머지공부’ 직후의 일이었다.

아내의 강권 아닌 강권에 밀려 몇 번 교회 지하실에 딸린 동호회 모임에 나가긴 나갔지만, 그의 몸과 마음은 좀처럼 첼로에 집중하지 못했다. 동호회 사람들은 하나 같이 친절했고, 전담 회원을 지정해 활 잡는 법부터 현 굿는 법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지만, 그는 그 와중에도 연신 손목시계를 보며 안절부절못했다. 동호회 모임 시간은 저녁 6시30분. 한 시간가량 레슨을 받고 다시 방에 들러 첼로를 둔 다음, 강남역까지 가려면 언제나 시간이 빠듯했다. 남들보다 좋은 ‘쿨’을 받으려면 조금이라도 일찍 그곳에 나가 있어야 하는데……。 그는 반복해서 계속 수평 굿는 자세를 연습하면서도 딴 생각을 했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의 활은 자주 사선을 그리거나 선에서 어긋났다.

동호회 모임에 다섯 번째 나갔던 날이던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그를 놓아주지 않고 ‘오늘은 최소한 비브라토가 뭔지는 알고 가야 한다’라며 붙잡는 바람에 8시가 넘어서야 가까스로 레슨이 끝난 적이 있었다. 그는 첼로 가방을 어깨에 멘 채 헐레벌떡 반지하 방으로 돌아가다가 무의식중에 대리기사 전용 앱을 켜고, 놓치기 아까운 ‘쿨’ 하나를 잡게 되었다. 그가 살고 있는 장위동에서부터 강남역까지 가는, 초저녁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쿨’이었다. 조금 켄 걸음으로 가면 5분 안에 손님이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문제는 첼로였다. 첼로를 어깨에 멘 채 ‘대리’를 뚫다는 것이 어쩐지 어색하고 불안하게까지 여겨진 것이었다. 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는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 공영주차장 쪽으로 뛰어가면서도 힐끔힐끔, 어깨에 멘 첼로를 바라보았다. 그래 까짓것, 딱 한 번인데 뭐. 강남 쪽에 가면 단골로 가는 편의점에 맡겨놨다가 새벽에 다시 찾으면 되겠지. 그는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며 좀 더 걸음에 속도를 냈다. 등에선 벌써부터 끈적한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는 계속 운이 좋았다. 장위동에서부터 강남역까지, 강남역에서부터 평창동까



지, 다시 구기동에서 목동까지…… 마치 손님들 한 명 한 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쿨’이 났고, 다른 경쟁자들에 앞서 속속 ‘쿨’을 잡을 수 있었다. 그것도 모두 어깨에 첼로를 멘 채로……. 첼로 때문에 걱정을 하긴 했지만, 이게 웬걸, 그는 첼로 덕분에 세 명의 손님으로부터 따로 ‘팁’을 받기까지 했다. 손님들은 그가 갖고 온 첼로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긴커녕 희한한 듯 이것저것 질문을 던져왔다. ‘혹시 어디 소속된 첼리스트 아니냐?’ ‘첼로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는 거냐?’ ‘아무리 어려워도 첼로를 팔아선 안 된다’ 등등. 손님들은 그가 답변하기도 전에 지레 짐작 다 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조수석에 기대 놓은 첼로 스크롤 부분을 쓰다듬다가 다시 룸미러 속 그의 얼굴을 오랫동안 쳐다보기도 했다. 그는 손님들의 질문에 때때로 난처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별다른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손님들은 대부분 취한 상태였고, 그의 대답 따윈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 자기 말만 한 뒤 침묵을 지켰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단박에 ‘밤에는 대리 기사를 뛰는 첼리스트’가 되고 말았다. 그는 어색했지만, 굳이 그들의 생각을 정정하려 들진 않았다. 어쨌든 지금 첼로를 배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는 그다음 동호회 모임 때부터 일부러 첼로를 어깨에 멘 채, 강남역 앞으로 나갔다. 손님들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첼로를 메고 뛰어온 그에게, 그래서 땀으로 범벅이 된 그에게 많은 것을 물었고, 더 많은 ‘팁’을 주었다.

### 3.

첼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그가 대리기사들 사이에서 속칭 ‘진상’ 손님으로 통하는, 반말을 ‘짜짜 내갈기고’ 술 냄새가 진동하는, 짧은 헤어스타일을 한 사십 대 중반의 남자 차를 몰았을 때 일어났다. 종로에서부터 반포까지 가는 손님이었는데, 노선에서부터 속도까지, 뒷좌석에 앉아 계속 욕설 섞인 말투로, 취기 섞인 목소리로 신경질을 냈다. 그는 최대한 말대답을 하지 않고 오롯이 핸들만 부여잡은 채, 정속 주행을 했다.

문제는 손님이 말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들어서 막 차를 정차했을 때 일어났다. 그때까지 뒷좌석에 기대앉아 있던 손님은, 그제야 조수석에 세워져 있던 첼로를 발견하곤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어, 이게 뭐지? 누가 이런 걸 여기다 둔 거야?” 그는 자동차 키를 손님에게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 이건 제 첼론데요.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손님은 그가 건네는 자동차 키를 받지 않았다. “첼로? 무슨 소리야? 당신은 대리기사잖아? 당신이 왜 첼로를 갖고 다녀?”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사정이 있어서 잠깐 갖고 나온 건데요…….”

손님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이 사람 이거, 대리 핑계로 남의 물건 슬쩍 하려는 거 아니야? 잠깐 있어 봐, 우리 기사한테 전화 좀 해 보고.” “아니, 이건 분명 제가 갖고 온 건데……. 제가 첼리스트인데, 시간이 없어서 그만…….”

그는 당황했고, 그래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말들을 두서없이 내뱉었다. 손님은 기사와 통화가 되지 않았는지,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첼리스트라고? 그래? 그럼 한 번 연주해 봐. 그럼 내 믿지.” “여, 여기서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손님은 몸을 숙여 운전석 아랫부분에 있던 버튼을 조절했다. 그러자 운전석이 뒤로 밀리면서 공간이 넓어졌다. “날 믿게 해 보라구.”

손님은 뒷좌석에 다시 허리를 파묻고 앉아 두 눈을 감았다. 그는 난감했다. 손님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딱히 다른 수가 있어 보이지도 않았다. 손님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첼로를 들고 내린다면, ‘대리비’가 문제가 아니라 자칫 도둑으로 몰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다고 운지법조차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첼로를, 그것도 자동차 안에서 연주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는 다시 손님을 향해 말했다.

“저기, 손님……. 이건 진짜 제 첼로가 맞거든요. 저기 빨리 자동차 키 받으시고…….”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손님이 말을 이었다.

“거, 두 번 말하게 하지 마라. 성질나면 첼로고 뭐고 다 부숴버리는 수가 있다.”

그 밤, 그는 첼로를 배운 이후, 처음으로 낯선 타인 앞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활을 잡고 ‘반짝반짝 작은 별을’ 반복했다. 그게 그가 유일한 배운 연주곡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활은 자주 떨어졌고, 그래서 현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잦았다. 그는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참고 계속 현을 그었다. 어쩐지 지금 자신의 모습 모두를, 자신이 만들어낸 것만 같아,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비난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형편없는 ‘반짝반짝 작은 별을’ 계속 이어 나갔다.

그렇게 십 분쯤 흘렀을까? 뒷좌석 손님이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이제 됐다. 연습 좀 많이 해라. 그게 뭐냐?”

손님은 그의 허벅지 위로 만 원짜리 지폐 두 장을 놓고 먼저 차 밖으로 나갔다. 카드 결제를 한 손님이었으니까, 그건 분명 ‘팁’이었다.

그는 첼로를 어깨에 멘 채 아파트 단지를 터덜터덜 걸어 나오다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벽 두 시를 막 넘긴 시각이었다.

“웬일로 전화를 다 했어? 오늘은 꽤 허탕이나 보네.”

아내는 말꼬리를 높이며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를 듣자, 그는 울컥해서 하마터면 소리 내어 울 뻔했다. 그는 심호흡을 길게 한 후, 간신히 짧은 말을 할 수 있었다.

“지금 많이 바빠?”

아내는 갑자기 도로공사 하는 아저씨들이 밀려들어 와 정신없다고 말했다. 전화기 너머로 왁자지껄한 남자들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자기 무슨 일 있어? 응? 나, 지금 많이 바쁜데.”

“아니, 무슨 일은…… 그냥…… 나 이제 첼로 많이 늘었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의 말에 아내는 잠깐 침묵했다. 그러자 전화기 안에선 반찬 좀 빨리 갖다 달라는, 남자들의 성마른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이 사람이 이거 겸손하질 못하고. 오늘 내가 들어볼 거야, 알았지?”

아내는 언제나 그보다 더 씩씩했다. 그 씩씩함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구원을 받은 기분이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끄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어깨에 멘 첼로의 무게가 그제야 느껴졌다.

<끝>

## 하와이안 밥테일 오징어의 투명망토

천운영

작가

먹고 사는 일을 생각하면 고단함이 따라온다. 먹기 위해, 살기 위해. 먹고 사는 일의 고단함을 생각하면 어쩔지 먹먹한 기분이 드는데, 고단함에도 치열함까지 덧붙이면 나도 모르게 ‘동물의 왕국’의 동물들이 떠오른다. 오로지 먹고 사는 일, 기어이 살아남는 일.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단어들이 펼쳐지던 사바나의 풍경. 어릴 적에 참 좋아했다. 가제와 사자, 병든 사자와 하이에나, 하이에나와 늑대, 물고 물리는 그 냉혹하고 엄중한 세계를 재미있어했다. 왜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재밌었다. 흥미롭고 짜릿했다. 왕국이라니. 재미라니.

지금 생각하면 그때 느꼈던 짜릿함은 흥미로운 장면  
에 대한 재미가 아니라, 장엄함에 대한 경이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이 소중하다. 왕좌를  
차지하려는 것도 아닌데, 먹고 사는 게 뭐 이리 고단한가  
싶은 기분이 들 때면, 나는 질문의 대상을 바꿔본다. 삶이  
아니라 생명으로. 생명이란 무엇인가. 목숨이 붙어 있다  
는 것? 다시 질문을 바꿔본다.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  
되었는가? 그러다보면 갑자기 마음의 환해진다.

그렇지, 우리는 모두 세균의 자손들이지. 보잘 것 없  
어 보이는 그 작고 미미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되었  
지. 먹고 먹히며 가까스로 존재했던 고세균들이 갑자기  
함께 살기로 했을 때. 잡아먹은 먹이를 소화시키는 대신  
몸 안에 자리를 마련해주었을 때. 그 소화되지 않은 먹잇  
감이 그 안에서 세포가 되고 기관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나타날 준비를 마쳤다. 이끼로  
장구벌레로 소나무로 오징어로 코끼리로 인간으로.

먹고 먹히는 대신, 품고 손잡고 한 몸이 되어가는, 가  
장 오래된 언어. 공생.

45억년전부터 시작된 지구 생명체들의 진화의 역사  
를 알아가는 일은, 색색의 종이꽃이 휘날리는 퍼레이드

에 참가한 것과도 같다. 종이꽃에는 우주의 비밀이 쓰여 있다. 하나에 하나씩. 나는 그 한 장을 낚아채 비밀 하나를 획득한다. 비밀 하나 비밀 둘 비밀 셋. 퍼레이드 색종이는 우주의 별처럼 무수히 쏟아져 내리고, 나는 그 중에 극히 일부, 단 몇 개의 종이만을 손에 쥌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주의 비밀을 다 알아챌 수는 없겠지만, 별 몇 개의 비밀을 품었으니 그 얼마나 짜릿한 일인가. 먹고사는 일이 고단하다 싶을 때 나는 퍼레이드 대열에 합류한다. 비밀 하나를 엿보기 위해. 짜릿하게 아름다워지기 위해.

오늘의 색종이에는 오징어가 살아가는 법이라 적혀 있다. 대왕오징어도 아니고 다 커봐야 엄지손톱만큼 작은, 하와이안 밥 테일 오징어. 그 조그만 오징어에게 삶의 기술이 있어봐야 얼마나 대단하기에.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지, 포식자를 따돌리기 위해 어떻게 먹물을 만들고 어떻게 피부색을 변화시키는지?

이것은 지구상에 가장 작은 오징어가 먹고사는 일에 관한 이야기다.

그들의 언어로 들려주는 그들 언어에 관한 이야기.

이 지구에 생명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오래된 언어. 공생에 관한 이야기.

22번째 SpaceX 화물보급선이 발사되었다. 보급선에는 아직 언어를 습득하지 못한 미성숙한 아이들이, 인간들 손에 의해 우주정거장으로 보내진 것이다. 그 애들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살아 돌아왔을 때 우리의 언어를 기억해낼 수 있을까? 우리의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우주공간을 통과한 후에도 여전히 작동될까? 바로 그것이 당신네 호모사피엔스가 우리 종족에게 궁금해 하는 점이다.

보급선에 실린 또 다른 종족. 타르디그레이드(Tardigrades). ‘천천히 걷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걸음이 꿈을 닮았다 하여 물곰water bear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인간들이다. 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우주실험에서 살아 돌아온 이력이 있다. 그들은 거의 불멸에 가까운 존재들이다. 영하 20도에서 30년 이상을 버텼으며, 물이나 공기가 전혀 없는 환경에서도 생존했고, 방사선이나 감마선에 노출된 후에도 죽지 않았다. 미래의 어느 날 거대운석이 지구와 충돌해 여섯 번째 지구대멸망이 일어난다 해도 그들만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전의 다섯 번의 대멸망extinction event에서도 살아남은 종족이니까. 그들은 죽어서 사는 법을 안다. 일시적으로 신진대사를 멈추었다가 때가 되면 재개하는, 생과 사를 조절하는 스위치가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죽어서 사는 법을 모른다. 대신 숨는 법을 안다. 태어나는 순간 본능적으로 몸을 숨긴다. 몸이 작기 때문이다. 친척들 중에서도 특히 작은 편에 속하는 우리 종족은 수많은 해양생

물의 한입거리, 만만한 먹잇감이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대부분 포식자를 피해 모래무지 속에서 숨어서 지낸다. 모래무지를 파고든 다음 두 팔로 모래알갱이를 끌어와 완전히 덮는데 단 몇 초면 충분하다. 점액질을 이용해 모래알갱이를 몸에 붙일 수도 있다. 환경에 따라 피부색을 바꿀 수도 있다. 우리의 위장전략은 정교하게 진화해 왔다. 물곰의 생사조절 스위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의 몸에도 스위치가 있다.

밤이 되면 우리도 은신처에서 나와 사냥을 나간다. 밤이라고 해서 포식자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먹이사냥을 포기할 수는 없다. 먹잇감이 되지 않으면서 먹잇감을 찾는 방법. 투명망토를 두르는 것이다. 밤이 오면, 수면에 달빛이 비치고 별빛이 일렁이면, 우리 몸에도 별이 뜨고 달이 뜬다. 달빛과 별빛으로 빛난다. 보름달과 초승달에 따라, 날이 맑고 흐림에 따라, 정교하게 빛의 밝기를 조절할 줄도 안다. 우리의 자체발광시스템은 아름답게 정교하다. 달빛과 별빛으로 일렁이는 동안 우리는 그림자 없이 움직일 수 있다. 빛나면서 사라지고, 빛으로 그림자를 지우는, 자체발광 투명망토.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밤하늘의 별이 하나가 아니듯, 그 별빛들이 물살에 부서지듯. 저마다 별빛 하나를 품은 우리 종족들이 모여 우주를 만든다. 반짝, 반짝, 일렁, 일렁. 그리고 우리가 별빛으로 빛나기 위해서는 다른 종족의 힘이 필요하다. 비브리오 피세리Vibrio fischeri와의 협업. 공생.

상상해보라, 당신 신체 안에 작은 공간이 하나 있다. 선택받은 종만 출입할 수 있는 철저한 회원제의, 정족수를 채워야 가동이 되는 일종에 나이트클럽 같은 곳이다. 회원들은 아주 예민한 편이다. 그들은 안전하게 하룻밤 잘 놀다 가길 원한다. 출입구에 문지기를 세워야 하는 이유다. 우리 몸 안에서 길을 잃지 않고 그 공간으로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등도 켜두어야 한다.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줘야 한다. 딱 적당한 수의 피세리들이 클럽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스위치가 켜진다. 스타라이트 스위치.

우리 몸 안에서 피세리들은 인식하고 경험하고 적응하고 반응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끊임 없이 신호를 보내고 이야기하고 상호작용을 한다. 박테리아와의 이 화학적 대화는 아주 오래된, 생명의 기본적인 언어체계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이 대화로부터 비롯되었다.

인간을 포함해 지구상의 생명체는 모두 세균의 자손이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고,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은, 미생물들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 지구시스템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그저 그들의 신호를 읽고 받아들여 새로운 신호를 보냈을 뿐이다. 우리 몸속에는 박테리아의 유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상호교신하고 협동하는 범지구적 유전자 교



환 네트워크. 이 공생적 연합은 영구적인 것이다.

다시 상상해보라, 당신 몸을 이루고 있는 기관들을, 세포들을, 물질들을. 물질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우주의 탄생 때부터 존재해 온 것이나 다름없다. 협력하는 수많은 유기체들로. 서로 다른 수많은 존재들로, 얹히고설켜 맥박치고 있는 중이다. 그것이 생명이고, 생명은 행성 수준의 현상이다. 우리는 피세리들 없이는 스위치를 켤 수가 없다. 피세리들은 우리와 다른 생명체가 아니라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기관이다.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오면, 피세리들은 발광의 파티를 끝내고 밖으로 나간다. 우리도 다시 수면에서 해저로 내려가 모래무지 속에 숨는다. 다시 해가 지면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아 모여들어 발광을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우주의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주로 날아간 우리 아이들. 그 애들은 지금 별을 보고 있을까? 우주에서의 별빛은 지구 바다에 떨어지는 별빛과 다를까? 그 빛을 보며 느낄 수 있을까? 선조들이 밤마다 별이 되어 빛나던 순간들을? 그 애들은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돌아와 다시 지구 바다를 유영하는 날이 왔을 때, 그들은 우리의 언어를 기억해낼 수 있을까? 별빛으로 빛나기 위해 누군가에게 보내야 하는 신호를? 물론이다. 생명이란 그런 것이니까.

<끝>

## 기본소득을 주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까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명예이사장,  
한신대 명예교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과 같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해질 것이므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 글은 이런 주장에 대한 답변이다. 이 글의 목적은 어떤 거시경제 학설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기본소득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형태로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정의된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자산의 실질가치가 감소한다. 명목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감추어진 조세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모든 가격이 동일하게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의 실질소득이 동일하게 감소하는 것도 아니다. 소득이나 자산 가치가 인플레이션을 이상으로 증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의도하지 않은 자산과 소득의 재분배를 가져온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재분배는 부자에게 유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하다. 부자들은 가격이 오르는 자산을 구매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피해는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일지 모른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너도나도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된다. 집이 없는 사람은 자산 격차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소득의 큰 부분을 임대료로 납부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기업이 가격을 인상시키면 인플레이션 악순환(포지티브 피드백 루프)이 시작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극심하게 되면(하이퍼 인플레이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혁명이나 전쟁까지도 걱정하게 된다.

인플레이션은 거시경제학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는 주제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대

응에 대한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신고전학파, 통화주의, 새 케인즈학파, 새 고전학파, 새 신고전학파, 포스트 케인즈 학파(민스키 학파, 근본 케인즈 학파, 현대통화이론) 등등 거시경제학 분야에 그렇게 많은 학파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거시경제학에 이렇게 학파가 많은 것은 거시경제 자체가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일 수 있다. 개인에 대해서는 참인 것이 전체에 대해서는 거짓일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하다 보니 근본적으로 불확실하고, 과거가 그대로 반복되는 경우가 드물다. 70년대 인플레이션과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많이 다르다.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기대하면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글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다양한 학설들을 몇 가지로 분류해서 기본소득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따져보려고 한다.

#### 첫째, 통화량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통화주의자들은 통화량의 과도한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통화량을 줄이면 된다. 그런데 민간은행이 통화량을 대부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자율을 올려서 통화량을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한다.

조세를 제원으로 해서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주는 정책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아니다. 비례세나 누진세를 부과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10~20%의 부자들만 순부담자로 만들고 나머지 80~90%의 사람들을 순수혜자로 만들 수 있다. 순부담자의 화폐가 줄어드는 만큼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화폐가 늘어난다. 경제 전체의 화폐량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조세에 기반한 기본소득 지급은 인플레이션과 무관하다.

재정 적자를 통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주권화폐를 발행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줄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민간은행의 지불준비율(예금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적립해 두어야 한다)을 높여서 민간은행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통화량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이자율을 올리는 방법도 있다.

#### 둘째, 수요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케인즈주의자들은 대체로 경제의 잠재적인 생산 능력(완전고용 상태) 이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완전고용 이하의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은 크게 일어나지 않으면서 고용과 생산이 늘어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으로는 과도하게 늘어난 수요를 줄이면 된다. 조세를 증가시키거나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이자율을 올리면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는데 이 비율(소비/소득)을 소비성향이라고 부른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당연히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므로 소비(수요)가 늘어난다. 그런데 기본소득 금액 전체만

کم 소비(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소비성향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조세형 기본소득은 순부담자의 소득은 줄어 들고 순수혜자의 소득은 늘어나게 만드는 정책이므로, 순부담자의 소비성향과 순수혜자의 소비성향 차이만큼만 소비(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순부담자의 소비성향이 0.6이고, 순수혜자의 소비성향이 0.8이고, 기본소득 금액은 100조원(5천만 명×200만 원)이고, 그 중에서 순수혜자의 수혜금액이 50조 원이라고 가정하면,  $50조 \times (0.8 - 0.6) = 10조$  원만큼 수요가 늘어난다. 기본소득 금액의 10% 수준이다. 골목 시장이 되살아나겠지만 경제 전체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을 해 보자. 기본소득 금액이 100조 원이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기본소득 금액이 100경 원이라면 분명하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중간에 어디엔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금액이 있을 것이다. 그 금액 이하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그 수준을 모르지만, 기본소득을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기도 힘들다. 작은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금액을 올려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지 살펴본다.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가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에 가까워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조세를 조금 더 증가시키거나 정부지출을 조금 줄인다.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현대통화이론<sup>MMT</sup> 학파의 주장을 응용하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아무런 예산 제약이 없다. 정부가 무이자 채권을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이것을 인수하면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조세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 때 조세는 기본소득의 재원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수단이다. 기본소득 지급과 조세 증가라는 두 개의 독립된 정책을 함께 실시하면 기본소득도 지급하고 인플레이션도 억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두 개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두 개 이상의 정책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 셋째, 공급 애로로 인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석유 가격의 인상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 가격의 인상 등과 같이 공급에 애로가 생기면 일어날 수 있다. 공급 애로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경기가 후퇴한다(스태그플레이션). 이 경우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공급애로를 해결하는 것이다. 석유를 대체할 자원을 개발한다든지, 전쟁을 멈추면 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공급애로를 해결하기 힘들다면,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한다. 이자율을 인상하면 수요가 위축되므로,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하여 경기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이 때 이자율 인상과 함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이자율 인상으로 인한 경기 후퇴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이자율을 조금 더 올려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의 이자율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을 멈출 수 있다고 할 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이자율을 5% 수준까지 올려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기본소득 없는 4%의 이자율 상태보다는

기본소득이 있는 5% 이자율 상태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는 훨씬 견디기 수월할 수 있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은 공급 애로에서 시작되었지만 물가인상 →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 기업의 가격인상 →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이런 상황을 내장된(built-in) 인플레이션이라고도 부른다. 노동조합과 대기업 사이의 갈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 때 사용되었던 정책이 소득정책이었다. 그것은 임금의 인상을 생산성 향상 이내로 억제하고 가격 인상도 억제하는 정책이었다. 소득정책은 이론적으로는 불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요구를 억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소득정책을 함께 실시하면 임금 인상요구를 억제하는 것이 수월해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삭감된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을 기본소득이 보충해 주기 때문이다.

### 넷째, 투기로 인한 인플레이션

문재인 정부 내내 우리나라는 극심한 부동산 투기에 시달렸다. 2015년과 2020년 사이에 GDP가 1,658조 원에서 1,933조 원으로 275조 원 오를 때 토지 가치는 5,014조 원에서 7,364조 원으로 2,350조 원 올랐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7차 아파트의 2016년 상반기 평균 거래가격은 40억 원이었는데, 2021년 상반기의 평균거래가격은 80억 원이었다. 부동산 가격의 비중이 물가지수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그때부터 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주거비로 지불하게 되었으므로 실질소득이 감소한 셈이다.

투기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를 막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를 막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26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투자를 막는 데 실패하였다.

결국 최근의 이자율 인상으로 겨우 부동산 투기가 가라앉게 되었다. 이자율 인상은 부동산 투기 수요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자율을 인상시켜 부동산 투자를 막는 것은 경제 전체를 희생시켜서 부동산 투자를 막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 수요만 줄일 방법이 있을까? 있다. 토지 보유세/토지 배당 정책을 실시하면 된다. 토지 보유세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토지배당은 토지 보유세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줄이면서 경제 전체의 수요를 증가시켜 경기 후퇴를 막아준다. 이와 같이 투기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투기에 대해 과세하고 그것을 기본소득으로 나누면 경기 후퇴 없이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형태로 도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디스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을 줄이거나 대응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 2022년 기본소득 워크숍: 기본소득운동 평가와 방향

박선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



지난 여름이 시작되는 2022년 7월 8일과 9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워크숍 “2022년 기본소득 워크숍: 기본소득운동 평가와 방향”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전라북도 군산에서 열렸다. 군산대학교에서 진지하게 발제와 토론을 하고 장자도에서 자유롭게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눴다. 아름다운 고군산군도를 둘러보고 노을 지는 바다를 보며 자연에 감사하게 된 경험은 덤이었다.

사실 “기본소득운동 평가와 방향”은 다소 막연한 주제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무엇에 주목하는지는 지난 시간을 함께 경험한 우리에게 좀 더 분명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끝난 하나의 순환, 즉 지난 4년간의 시간을 돌아보며 기본소득운동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했어야 하는지를 평가하고 새로운 순환의 단초를 찾아보려는 것이었다.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한국에서 현실정치와 만난 건 2016년 무렵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또 하나의 파고를 만난 그때, 경기도 성남시에서 청년배당 정책을 실시했고 기본소득을 널리 알리고 지지를 얻고자 하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에게는 실현 가능한 제도로써 기본소득을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실험들이 이야기되고 그 기류가 한국에서도 이어지면서 기본소득은 열기를 품은 담론이 되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미국 Y콤비네이터의 기본소득 실험계획으로 대표되는 고소득 국가들의 기본소득 실험, 그 실험(계획)들이 불러온 기본소득 정당성/실험가능성 논쟁이 활발해졌고, 국내에서는 2018년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고 (2018년 11월 13일에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로 제정되었다가 2019년 6월 18일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개정되었다) 정책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 의제가 드디어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

2020년,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로 인해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은 한국 주류 정치에서 기본소득 논의의 새 국면을 열었다. 기존 삶의 방식과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기본소득을 대안정책으로 여기게 하는 한편의 흐름과 기존 사회보험제도 강화를 대안으로 내놓은 다른 한편의 흐름이 생겨났다. 두 흐름이 부딪혔고 그 충돌은 기본소득 찬반론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기본소득운동을 현실정치의 한복판으로 이끌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강렬하게 ‘참전’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현실정치에 두 가지로 ‘개입’했다. 한편으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혹은 재난기본소득을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들과 기본소득 논쟁에서 제기된 논점에 답하는 기고문들을 발표했다.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기본소득 도입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기본소득을 대선의 중심의제로 삼고자 2020년 초부터 ‘기본소득 로드맵’이라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 성과는 2021년 8월 17일 ‘한국 사회 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보고서로 발표되었고 2021년 10월 29일 단행본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박종철출판사)으로 출간되었다. 우리의 예상과 달리, 기본소득 로드맵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21년 초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기본소득 찬반논쟁이 격화되었고 너무도 이르게 주요정치인들의 입장이 정리되어버렸다. 결국 불행하게도 우리는 노력의 기회를 사실상 잃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주류정치권에서 기본소득 지지를 분명히 한 유일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였고, 또 다른 기본소득 지지 후보는 기본소득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후보였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의 일부 구성원들은 이재명 후보 또는 오준호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공약을 만드는 데 기여했고, 기본소득이 주요의제로 자리 잡길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정치의 룰대로 유력후보들 간의 구도와 공방 속에서 주요의제는 결정되었다. 기본소득을 비롯한 정책선거는 이뤄지지 않은 채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에서 기본소득은 구석으로 밀려났다. 오준호 후보만 선거 마지막까지 기본소득을 공약하



며 선거운동을 벌였지만 소수정당 후보의 불리한 언론환경을 넘어서지 못한 채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다.

### 새로운 순환을 위한 평가들 그리고 남겨진 과제

워크숍은 오후 2시 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 230호에서 시작되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운영위원, 회원 31명이 함께했고, 안효상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평가와 방향을 논하기 위해 포문을 여는 발제들이 있었다. 발제자는 류보선 이사, 김찬휘 운영위원, 오준호 운영위원, 장시정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 한인정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 등 5명이었다.

한인정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는 신진연구자들의 기본소득 연구 방향을 소개했다. “좌파 통치성으로서의 기본소득”, “공유지”, “시대의 에토스로서의 기본소득의 가능성” 등의 관심 주제를 소개했고 기본소득 세상은 어떠한 것이고 어떤 정치적 과정을 거치게 될지 등 기본소득 연구운동에 대한 고민과 전략에 대해 발제했다.

류보선 이사는 “기본소득운동의 또 다른 출발과 ‘헤어질 결심’”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기본소득 의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선거가 없었던 상황, 2년 가까운 노력의 성과로 내놓은 기본소득 로드맵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마치 공중분해된 듯한 로드맵에 대해 뼈아픈 지적을 했고, 기본소득 개념의 재정립, 또 다른 기본소득 실험의 발명과 기존 실험들에 대한 엄정한 평가, 그리고 기본소득운동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헤어질 결심’과 결심의 결행 등이 앞으로 감행해야 할 지적 모험이라고 역설했다.



오준호 운영위원은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로서 대선 기간을 보낸 소회를 밝히고 세 가지의 질문을 던졌다. 앞으로 기본소득 정치 운동은 이재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조세개혁과 연동한 충분한 기본소득 로드맵은 여전히 유의미한가, 기본소득 정치 운동은 기본소득의 전망을 납작하게 만드는가 등이 그것이었다.

김찬휘 운영위원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기본소득 ‘운동’의 확장을 위해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도와 협력해온 활동 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히며 기본소득운동의 진정한 확장을 위해 기본소득운동의 ‘복원’을 촉구했다.

장시정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기본소득 의제의 부상이 내부보다는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점, 우리의 기본소득 의제 운동이 미약했던 현실 등을 지적하며 새로운 방향 모색의 필요를 이야기했다.

발제 이후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는 다양하고 광범했다.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당시 기본소득운동이 놓인 상황과 맥락,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에 따른 거시적 전망,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위치와 과제 등에 대한 것이었다.

금민 이사는 대통령선거에서 기본소득 액수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그림 속에서 바람직한 사회상을 그리는 것이었다며, 낮은 수준에서는 지대추구경제의 교정과세 측면을 드러내고 기본소득이 분배원리에만 개입한다는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공유지분모델, 공동소유모델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비록 성공한 결과를 낳지 못했을지라도 공유부와 미래를 연결하는 상을 제시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분투”의 출발점으로 만들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호 이사는 대선 과정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관망하는 태도였음을 확인했다. 구성원의 일부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또 다른 일부는 오준호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어느 쪽에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조직 자체는 그 모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입

장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운동이 현실정치를, 특히 거대정당을 통해 만났을 때 야기되는 ‘순수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해야 하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평가했다.

윤형중 운영위원은 특정 정당, 예를 들면 민주당과 어떤 관계인가보다 중요한 건 기본소득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가치라고 말하며 세금정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세금정치를 잘하고 불평등을 완화한다면 민주당과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앞으로 증세정치, 공유부 인식의 확산, 세금-기본소득 실험 등의 활동 방향을 잡는다면 의미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최승호 회원은 아직 우리 논의가 사회운동 측면이 강한 수준이라고 보며, 공유부의 구체화, 기존 소득보장정책 및 조세와의 관계 등이 우리에게 남겨진 연구과제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김용수 회원은 복지국가보다는 성장국가로 접근하는 것이 기본소득에 설득력을 가져다준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조민서 회원은 청년들이 감각하는 ‘기본’과 이재명의 소액 기본소득의 거리가 너무 멀었다는 연구결과를 공유하며, 기본보다는 공유부, 불로소득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권능 회원은 기본소득이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에서 이해되지 못하고 있고 기본소득의 사상적 토대가 짜깁기 같은 인상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공유부의 실체와 기본소득의 목적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논의를 기대했다.

서정희 이사는 주권화폐, 사회보장제도와의 조응, 공유지분권 등 토론과정에서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에서 이미 다루었지만 널리 알려지지 못했고 대통령선거에서 풀어나가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스스로의 역할과 활동방향에 대해 새롭게 모색하는 첫 자리로서 이번 워크숍이 자리한다고 평가했다.

2022년 7월 8~9일의 기본소득 워크숍은 어떤 합의된 의견이나 결정 없이 끝났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에 있는 다양한 평가들을 구체적 발화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워크숍이었고, 우리 안의 공통성과 차이를 고려하면서 새 순환의 긴 호흡을 시작해야 하는 과제를 남긴 “첫 자리”였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발간하는 월간 뉴스레터 공동편집장 팔매(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입니다. 그간 뉴스레터 및 계간지를 통해 여러 번 기본소득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번호부터는 계간지 국내동향코너를 ‘팔매통신’이라는 코너로 전환했습니다. 보다 발로 뛰며, 현장감이 넘치는 국내 기본소득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코너에서는 ‘지금’ 기본소득 담론들이 어디서? 어떻게? 왜? 발화되었는지를 잘 적어내려 합니다. 이와 같은 기록의 편린, 그리고 독자들이 느끼는 정동들의 만남이 기본소득 저 너머의 세상으로 건너갈 다리가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본소득이 있는 세상! ‘팔매통신’과 함께 하주세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많관부!

## 100시간의 선물, 부산 청년기본소득 프로젝트

팔매통신의 첫 방문지는 ‘부산’입니다. 부산형사회연대기금에서 마련한 청년기본소득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2030 청년, 기본소득을 묻다: 부산형사회연대기금 정책토론회’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민간기금(노사)-은행-방송사가 힘을 합쳐 성사되었으며, 14명의 청년에게 월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7개월(2021년 6월-12월)간 지급했습니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입장에선 충분성이 확보된 기본소득이 만들어낼 모습이 궁금해지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프로젝트는 부산 MBC가 6부작의 다큐로 청년들과 기본소득의 만남을 면면히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다큐멘터리를 살피고, 청년들의 수기를 읽으며 이 토론회를 기록해두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소득이 철학적-학술적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구체적인 증언과 지지가 있어야 정책의 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월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기본소득을 받은 청년들과 언론,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한 목소리로 ‘기본소득 서둘러 실시하라’고 외치게 만들었을까요? (참고로, 이번 프로젝트는 인원수가 10명으로 줄었지만, 동일한 금액과 기간으로 2차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연구소가 실험효과를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더 기대됩니다.) 그럼, 4월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 토론회 현장으로 가보시죠.



## 100시간의 선물 기본소득

부산형 사회연대기금 기본소득 프로젝트 갈무리, 정책토론회 열려

청년, “나를 온전히 믿어주는 돈, 신뢰를 낳는 돈”

전문가 및 시민단체 “기본소득은 권리, 공유부 철학 기반한 실험-정책 이어나갈 것”

“기본소득 꼭 좀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소득 쏘아주는 청년들’ 행사에서 입을 뗀 첫 주자는 다동이 아빠 박영우씨다. 그는 이번 기본소득프로젝트를 통해 월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7개월 동안 받았다. 사실 기본소득 실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곤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 그런 건 ‘운’ 좋은 사람이나 당첨되는 로또같은 일이었으니 말이다. 지금껏 맨주먹 하나만 믿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명의 아이를 키우며 낮에는 건설일,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으니 말이다. 자신을 위해서 기본소득을 써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질 만큼, 자신을 위해 돈을 쓴다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 당장 자식들의 분유, 기저귀값을 벌기 위해 금전적인 것만 보고 달려왔다. 그런 그에게 기본소득은 생존의 언어였다. 박씨는 “서울에는 동지가 없고, 지방에는 먹이가 없어서 너무 힘든 상황이다.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 권현진씨의 말도 이어진다. 당장 돈이 없다 보니, 뭔가를 도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란다. 그 와중, 기본소득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여지를 열어냈다고 말한다. 그는 “돈이 돈을 불러온다지만, 기본이 될 돈도 없다. 당장 전시전을 연다고 해도 참가비, 준비물 등등이 필요하다”며 “결국 꿈을 좇으려면 알바에 시달려야 한다. 그런데 알바에 시달리다 보면 꿈을 잃는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게 기본소득”이라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아닌 다른 청년정책도 알아봤지만, 대부분 업종-가구소득-지역제한 등이 있는데다가 사용 이후에도 각종 결과서류를 요청받는 등 복잡한 탓에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격투기선수 김중관씨, 패션디자이너 강연주씨, 래퍼 강동건씨 등 다른 참가자들도 유사한 말을 전했다. 늘어나는 청년정책들에 자신의 자리는 없었다며, 청년정책이 청년의 삶을 담아낼 만큼 다양하지도, 보편적이지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소득은 어떻게 달랠까. 청년들은 기본소득이 ‘100시간의 선물’ 같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청년 시기, 마음만 급했다. 언저리에 서서 식비, 주거비, 작업실 비용, 물감, 캔버스, 원자재 등을 마련하기 위해 꿈과 생계 그 힘겨운 줄타기를 이어가던 찰나, 기본소득은 자신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무도 반갑게 믿어주는 돈이었다. 청년들은 이 돈으로 생계를 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꿈을 위한 노동시간을 늘렸다. 평소 고마웠던 이들에게 마음만이 아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할 수 있었다.

격투기 선수인 김중관씨는 “제가 형들에게 받은 게 많아 늘 동생들에게 베풀고 싶었는데, 그간 제





생활이 어려우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기본소득이 생겨서 동생들 옷도 사주고, 밥도 많이 사주니깐 너무 마음이 뿌듯했다”고 말했다. 다동이 아빠 박영우씨는 자녀들과 가족여행을 갔던 장면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어보인다. 그는 “생계에 쫓기다보니 시간이 그냥 흘러가 변변한 추억조차 없었다”며 “(기본소득으로) 짬라인을 타러 갔는데, 지금도 가족들과 이야기를 한다.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것 같다”고 말한다. 그랬다. 각자의 삶이 고달파 앞만 보며 달려왔던 시간과 달리, 기본소득은 서로-돌봄의 장을 만들어냈다. 그 속에서 발생한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추억, 기본소득이 만들어 낸 시간은 참가자들에게 깊이깊이 남았다.

이렇듯 실험은 이상에 머물던 기본소득을 일상으로 끌고 내려왔다. 모든 정책은 상상에 불과했던 법, 기본소득이 정책으로 자리잡는다면 어떨까. 행복한 상상이 이어졌다. 청년들은 자신의 삶에 다른 ‘시간’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꿈을 위해 달릴 수 있는 시간, 지인들과 식사할 수 있는 시간, 바닷가를 거닐며 산책할 수 있는 시간,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시간, 어떻게 놀지를 궁리하는 시간 등등이다. 박영우 씨는 “상상만 해도 흐뭇해진다”며 “12시간 일하던 걸 10시간으로 줄이고, 2시간은 아이들과 논다든지,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시간-가치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개별적인 소득원을 갖기 이전에 부모님과 부딪히는 일이 잦았다는 권현진씨는 “기본소득을 받으면 청년들이 논다고 하는데, 사실 그 논다는 기준이 더 궁금하다. 내가 하는 그림도 누가 보면 놓고 먹는다고 할 수 있지만 내게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라며 “누가 누구의 시간을 평가할 수 있을까. 기본소득은 각자가 나름의 기준으로 자기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기본소득

이야말로 인간을 믿어주는 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늘 열심히 달려도 늘 열악한 삶에 놓인 이들, 꿈을 좇아가기에 삶의 무게가 버거운 이들,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해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들, 추억은 사치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행복을 찾아갔다. 이처럼 자유의 영역을 넓혀가는 기본소득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경험에 꽃피는 시간이었다. 부산 지역 내 학계 및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들 역시 청년들의 증언에 큰 공감을 표했다. 기본소득의 정책화 필요성을 보다 깊이 절감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특히 기본소득이 ‘고용수치’, ‘경제성장률’ 등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행복감을 높여주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물론 각자의 자리에서 기본소득이 실험을 넘어,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수범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MBC 전성호 PD는 “기본소득이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는 점이 끌린다”며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인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청년들의 증언 하나하나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소득 실험을 한 것이 너무 뿌듯하고,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서희원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가 실험으로 진행되었지만, 사실 기본소득은 혜택이 아니라 권리”라며 “기본소득실험이 부산의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청년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의대 유동철 교수는 “사회는 ‘사람을 꿈꾸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경제수치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방식의 이야기로 퍼져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의 철학은 모두의 것을 모두의 것으로 돌린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부산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는 공유부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정책으로 나아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실험을 주관하고 있는 부산형사회연대기금 전장화 이사장은 앞으로도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담론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전 이사장은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할 때 거대담론을 얼마되지 않는 예산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보수적인 지역에서 진보적인 의제를 다뤘을때 정치적인 오해를 받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다”며 “방송을 보면서, 청년들의 말을 들으며 이런 우려가 기우였다는 생각이 든다. 부의 성장이 우리 삶에 어떤 행복을 가져다주고 있는지, 그리고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였다. 앞으로도 이런 실험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시민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

## 내용 소개 및 평가

이건민

계간《기본소득》편집위원

### 들어가며

지난 8월 29일(월) 14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는 유튜브YouTube로 생중계 되었으며, <https://www.youtube.com/watch?v=wQk6DZIO8-0>에서 시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토론회에서 이루어진 두 주제발표는 곧 발간될 예정인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변금선, 이원진, 이혜림, 김동진. 2022(발간예정). 서울형 소득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토론회가 개최된 중요한 배경 중 하나는 바로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실시라 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미래형 복지제도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7월 11일 5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첫 지급과 함께 5년 동안 정책실험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며, 마이클 크레이머Michael Robert Kremer 교수, 칼 와이드퀴스트Karl Widerquist 교수 등 전 세계의 여러 학자들도 이 실험에 커다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김은주, 2022; 내 손안에 서울, 2022). 혹자는 향후 안심소득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안심소득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감안될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하게는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 보여준 바와 같은 모의실험은 특정 사회실험에서 미처 담지 않았거나 담을 수 없었던 모형이나 시

나리오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으로 우리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실험의 결과와 상호 비교를 통해서도 추가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회실험의 구체적인 설계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같은 사회실험과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 보여준 바와 같은 모의실험은 과학적으로 수행, 분석되고 사려 깊게 해석될 경우 대안적인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그것과 관련한 모의실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로 서울연구원 변금선 박사가 발표한 “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 실태”를 요약하여 소개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원진 박사가 발표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가 소득분배 및 소득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주제발표의 핵심쟁점을 이루는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이하 NIT)의 정책효과 비교방법 등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글을 맺는다.

### “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 실태” 발표 내용 요약

우선 전체 연구인 “서울형 소득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는 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성의 양상을 분석하고 소득보장정책을 둘러싼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안심소득제 추진의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수행된 것이다. 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성의 양태를 파악하고, 저소득집단을 세분화한 것을 바탕으로 이 집단의 소득하락 위험에 주목하며, 정책 모의실험을 통해 대안적인 소득보장정책으로 꼽히고 있는 기본소득과 NIT의 정책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형 소득지원체계의 수립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 실태” 발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불안정을 ‘특정 기준 이하 소득이 유지되거나, 소득이 하락하는 변화’로 정의하였으며, 연간 변화와 중장기 변화로 나누어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이동 양상을 분석하였다. 소득불안정 집단을 식별하고 이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득이동’ 차원에서는 소득의 하향 이동을 보았고, ‘빈곤 및 저소득 역동’ 차원에서는 빈곤 또는 저소득에 새롭게 진입하는지 아니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소득 변화 유형’ 차원에서는 빈곤 혹은 저소득 상태를 지속하는지 아니면 하향이동하는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정책빈곤선을 기준중위소득의 50%, 85%, 100%로 다양하게 설정하여, 저소득층 집단을 기준중위소득의 30% 아래의 최저빈곤층, 30%와 50% 사이의 빈곤층, 50%와 85% 사이의 저소득층, 85%와 100% 사이의 중저소득층으로 세밀하게 구분하여 분석한 것이 선행연구와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분석자료로는 2015~2020년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했으며, 연간 가구소득을 개인 단위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5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에 소득구간이 하락한 비율은 10.5%였으며, 2015년에 기준중위소득의 50~85%에 속했던 저소득층이 2020년에 소득구간이 하향이동한 비율은 11.4%, 유지한 비율은 32.7%, 상향이동한 비율은 55.9%인 것으로 나타났

다. 서울시민의 17.9%가 6년 중에서 1년 이상 빈곤을 경험했으며, 35.7%가 기준중위소득의 85% 이하의 저소득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민의 3.9%가 3년 이상 빈곤 상태를 반복하거나 지속하였으며, 17.1%가 3년 이상 저소득 상태를 반복하거나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령층의 14.9%가 1년 이상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의 저소득을 경험한 비율은 46.5%를 기록하였다. 두 해에 걸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 상태를 유지한 비율이 2015~2016년 52.3%, 2018~2019년 61.0%, 2019~2020년 67.9%로, 최근 들어 빈곤 유지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년도에 비빈곤층/비저소득층에 속한 사람이 이듬해에 빈곤층/저소득층으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는 빈곤/저소득 진입률을 살펴보면, 2020년 빈곤 진입률은 3.2%로 2.5%였던 2015년보다 증가한 반면, 2020년 저소득 진입률은 6.4%로 6.6%였던 2015년에 비해 약간 줄어 들었다. 전년도에 빈곤층/저소득층에 속한 사람이 이듬해에 빈곤층/저소득층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하는 빈곤/저소득 탈출률을 보면, 빈곤 탈출률은 2016년 47.7%에서 2020년 32.2%로 감소하였으며, 저소득 탈출률은 2016년 22.6%에서 2019년 34.43%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16.7%로 급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형 소득지원체계의 수립 방향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첫째, 소득 하락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중저소득층의 소득 하락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탈빈곤을 활성화하고 빈곤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인 소득지원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울시민의 소득이동 사다리를 복구하기 위한 새로운 소득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대안적 소득보장제도가 소득분배 및 소득이동에 미치는 영향” 발표 내용 요약

이 연구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검토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NIT가 소득분배 및 소득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대상이 되는 분석모형 설정과 관련하여, 기본소득과 NIT의 제도적 차이를 실증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추상화된 형태의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NIT의 경우에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실험형태를 최대한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결코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sup>1)</sup>

분석자료로는 14~15차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했으며,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와 마찬가지로

1)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라는 소득 기준과 순자산 3억 2,600만원 이하라는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800가구를 대상으로 3년 동안 기준중위소득 85%와 인정소득의 차액의 50%를 지급하는 형태로 설계되었다(서울복지포털, 2022). 2022년에 모집하는 1단계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500가구를, 2023년에 모집하는 2단계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초과 85% 이하인 300가구를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여 각각 3년간, 2년간 지원한다(서울복지포털, 2022). 1단계와 2단계 모두 비교집단의 규모를 실험집단의 규모의 2배 이상으로 하여 실험기간 동안 발생할지 모르는 표본 탈락 문제에 대비하였으며, 각 단계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선정은 모두 동일한 풀(pool) 내에서의 무작위 배정을 통해 이루어졌다(서울복지포털, 2022). 이원진 박사의 모의실험과 비교해보자면,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정기준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5%이며 순자산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는 ‘재산 기준 있는 NIT’와 ‘예산 4’의 조합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표 1> 참조). 하지만 기준이 되는 순자산 면에서 모의실험에서는 2018년 2.6억원, 2019년 2.7억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는 2022년 기준 3억 2,6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해당 기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후자가 전자보다 높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2020년 소비자물가 총지수를 100이라 할 때, 2018년은 99.1, 2021년은 102.5로, 해당 기간의 평균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약 1.13%이며, 이 수치를 2022년에 적용하면 2018년 2.6억원은 2022년 약 2.72억원에, 2019년 2.7억원은 2022년 약 2.79억원에 상응한다(국가지표체계, 2022). 또한 모의실험에서 인정소득이 노동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고용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의 합으로 정의되어 있는 반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한 ‘실제 소득’에서 장애요인(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질병요인(의료비 등), 양육요인(양육비 등), 국가유공요인(국가유공 수당 보조금 등) 등의 ‘가구특성 지출비용’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양자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서울복지포털, 2022).

로 연간 가구소득을 개인 단위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14차 개인 자료와 15차 개인 자료로 각년도 횡단가중치를 활용한 횡단분석을 실시하였다. 2018~2019년 소득이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14~15차 개인 균형패널 자료로 15차 횡단가중치를 활용한 종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의실험의 비교대상이 되는 네 가지 모형은 ‘현행 소득보장제도’, ‘UBI’, ‘재산기준 없는 NIT’, ‘재산기준 있는 NIT’이다(이하 <표 1> 참조). ‘현행 소득보장제도’는 생계 주거급여, 근로 자녀장려금, 기초연금을 합한 것으로 정의되었다. ‘UBI’는 B만큼의 개인 정액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현행 생계급여는 유지하되 현행 주거급여, 근로 자녀장려금, 기초연금은 폐지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재산기준 없는 NIT’는 선정기준소득 C와 인정소득(노동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고용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의 합)의 차이의 50%를 보전하는 형태의 가구 보충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현행 생계 주거급여, 근로 자녀장려금, 기초연금은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재산기준 있는 NIT’는 ‘재산기준 없는 NIT’와 기본적으로 동일하

&lt;표 1&gt; 모의실험 설계

구분		현행 소득보장제도	UBI	재산기준 없는 NIT	재산기준 있는 NIT
주요 소득보장 급여		· 생계 주거급여, 기초연금, 근로 장려금	· 개인 정액급여 · B: 급여액 · 현행 생계급여 유지 · 현행 생계 주거급여, 기초연금, 근로 장려금	· 가구 보충급여 · C: 선정기준소득 · 급여액=(C-인정소득)×50% · 현행 생계 주거급여, 기초연금, 근로 장려금 폐지	· 재산기준: 순자산 중위값 150% 이하(2018년 2.6억 원, 2019년 2.7억 원, 명목)
예산 (명목)	예산 1 · 2018년 25조 원 · 2019년 29조 원	· 현행 생계 주거급여, 기초연금, 근로 장려금 지급액 총합	· B=월 3만 원(명목)	· C=기준중위소득 71%	· C=기준중위소득 75%
	예산 2 · 2018년 180조 원 · 2019년 181조 원	-	· B=월 30만 원(명목)	· C=기준중위소득 163%	· C=기준중위소득 186%
	예산 3 · 2018년 41조 원 · 2019년 40조 원	-	· B=월 6만 원(명목)	· C=기준중위소득 85%	· C=기준중위소득 92%
	예산 4 · 2018년 35조 원 · 2019년 34조 원	-	· B=월 5만 원(명목)	· C=기준중위소득 79%	· C=기준중위소득 85%
인정소득		· 인정소득=노동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연금+고용보험급여+산재보험급여			
급여 전 소득		· 급여 전 소득=인정소득+기타 공적이전소득-세금 및 사회보험료			
급여 후 소득		· 급여 후 소득(처분가능소득)=급여 전 소득+시나리오별 주요 소득보장급여			

출처: 서울연구원(2022). “시뮬레이션 설계”

되, 순자산 중위수의 150%를 초과하는 가구에는 NIT를 지급하지 않는 형태이다.

이러한 네 가지 모형에 대해, 각 모형을 특징짓는 예산 하나씩을 선정하여 총 13가지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예산 1은 현행 생계 주거급여, 근로 자녀장려금, 기초연금 지급액 총합으로, 2018년 25조 원, 2019년 29조 원이다. 예산 2는 월 30만 원 기본소득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8년 180조 원, 2019년 181조 원이다. 예산 3은 ‘재산기준 없는 NIT’에서 선정기준소득 C를 기준



중위소득의 85%로 잡았을 때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8년 41조 원, 2019년 40조 원이다. 예산 4는 '재산기준 있는 NIT'에서 선정기준소득 C를 기준중위소득의 85%로 잡았을 때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8년 35조 원, 2019년 34조 원이다. '현행 소득보장제도'의 경우 현행 시나리오를 반영한 것이기에 예산 1만 적용되고, 예산 2~4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UBI', '재산기준 없는 NIT', '재산기준 있는 NIT'는 정책 변화 시나리오이기에 예산 1~4가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나리오의 수는 총 13가지(=1+3×4가지)가 되는 것이다.

소득분배 및 소득안정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대상포괄성, 급여효율성, 급여적정성, 소득안정성을 보았다. 대상포괄성은 수급률로, 급여효율성은 총 급여액 중 빈곤갭 감소에 사용된 금액의 비율로, 급여적정성은 지니계수, 빈곤율, 빈곤갭비율로, 소득안정성은 소득구간이동으로 측정되었다. 여기서 빈곤선은 연도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개인 단위 중위수의 50%로, 2018년의 경우 월 131만 원, 2019년의 경우 월 139만 원으로 설정되었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포괄성 면에서 볼 때, 동일 예산 하에서 NIT의 수급률이 현행 소득보장제도의 그것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기준 있는 NIT의 수급률이 재산기준 없는 NIT의 수급률보다 낮았다. UBI의 수급률은 정의상 예산 규모에 관계 없이 100%이다. 2018년 분배지표 변화로 급여적정성을 평가해보면, 각 모형을 대표하는 예산과 그 모형의 조합(즉 '예산 1'과 '현행 소득보장제도'의 조합, '예산 2'와 'UBI'의 조합, '예산 3'과 '재산기준 없는 NIT'의 조합, '예산 4'와 '재산기준 있는 NIT'의 조합)에서는 UBI, 재산기준 없는 NIT, 재산기준 있는 NIT, 현행 소득보장제도 순으로 지니계수와 빈곤율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기준 없는 NIT, UBI, 재산기준 있는 NIT, 현행 소득보장제도 순으로 빈곤갭비율을 크게 감소시켰다. 하지만 동일 예산 하에서는, 전반적으로 재산기준 없는 NIT, 재산기준 있는 NIT, 현행 소득보장제도, UBI 순으로 지니계수, 빈곤율, 빈곤갭비율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안정성 면을 보자면, 예산 1을 적용할 경우, NIT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지속빈곤층 감소에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반면, UBI는 기준중위소득 85% 초과 계층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2를 적용할 경우, NIT, 특히나 재산기준 없는 NIT는 대다수 국민을 기준중위소득 85% 초과 구간으로 이동시켜 횡단적 빈곤과 종단적 빈곤 진입 탈출을 거의 없애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소득보장제도의 주요 목표가 빈곤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으로 설정된다면, 동일 예산 가정 하에서 NIT가 현행 소득보장제도나 UBI보다 효과적이다. 둘째, 현행 소득보장제도의 목적이 빈곤 경감이라는 단일한 목적만을 갖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현행 소득보장제도를 NIT로 전면 대체하는 형태의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일 예산 하에서 재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때가 적용할 때에 비해 NIT의 급여효율성과 분배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완화 방안이 빈곤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기본소득의 재원이 개인소득세로 결코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추가 자원 마련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은 동일 예산 가정 하에서의 기본소득과 NIT의 분배 효과 비교는 기본소득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설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 기본소득과 NIT의 정책효과 비교방법 등에 대한 비판적 평가

사회정책 분야 연구자들에게는 널리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원진 박사의 데이터 분석 능력은 탁월하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필자가 논할 바가 거의 없다. 다만 기본소득과 NIT의 정책효과 비교방법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명목예산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기본소득과 NIT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우선 경제학적으로 동등한 기본소득과 NIT에서 동일한 것은 순비용<sup>net cost</sup>이지 총비용<sup>gross cost</sup> 혹은 명목예산이 아니다(이건민, 2022a: 46~47; 2022b: 112). 그리고 NIT 내에서도 경제학적으로 동등한 가구 단위 지급 NIT와 개인 단위 지급 NIT에서 동일한 것은 가구 단위(로 환산된) 순비용이지 상이한 지급 단위를 그대로 둔 채로 계산된 순비용이 아니다. 이에 대해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 살펴보자.

가구원수가 각각 3명인 A, B, C 가구로 구성된 사회를 상정해보자. A 가구 구성원들의 소득은 각각 월 900만 원, 0만 원, 0만 원, B 가구 구성원들의 소득은 각각 월 4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C 가구 구성원들의 소득은 각각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이라고 하자. 사회의 총 소득은 월 2,700만 원이고 총 9명이므로 평균소득은 월 300만 원이다. 먼저 50% UBI-FIT Model을 적용할 경우, 개인 단위 총 이전소득은 월 1,350만 원( $=300 \times 0.5 \times 9$ 만 원), 순 이전소득은 월 450만 원( $=0+150+150+0+0+0+0+50+100$ 만 원)이 된다. 가구 단위로 환산된 순 이전소득은 A 가구의 경우 0만 원, B 가구의 경우 0만 원, C 가구의 경우 월 150만 원으로, 총 월 150만 원이 된다. 다음으로 50% UBI-FIT Model과 경제학적으로 동등한 가구 단위 지급 NIT 제도를 적용할 경우, 3인 가구의 경우 월 900만 원( $=300 \times 3$ 만 원)이 손익분기점 소득이 된다. 따라서 가구 단위 총 이전소득과 순 이전소득은 모두 A 가구와 B 가구의 경우 0, C 가구의 경우 월 150만 원( $=(900-600) \times 0.5$ 만 원)으로, 총 월 150만 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50% UBI-FIT Model과 경제학적으로 동등한 개인 단위 지급 NIT 제도를 적용할 경우, 개인 단위 총 이전소득과 순 이전소득은 모두 A 가구 구성원들의 경우 각각 월 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B 가구 구성원들의 경우 각각 월 0만 원, 0만 원, 0만 원, C 가구 구성원들의 경우 각각 월 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으로, 총 월 450만 원이 된다. 하지만 이를 가구 단위로 환산했을 때의 순 이전소득은 A 가구의 경우 0만 원, B 가구의 경우 0만 원, C 가구의 경우 월 150만 원으로, 총 월 150만 원이 된다.

따라서 가구 단위로 환산했을 때의 순 이전소득의 크기 면에서 보자면 상기 세 제도는 모두 월 150만 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동일한 단위로 환산하지 않은 총 이전소득의 크기 면에서 보자면, 50% UBI-FIT Model(월 1,350만 원)>개인 단위 지급 NIT 제도(월 450만 원)>가구 단위 지급 NIT 제도(월 150만 원)가 된다. 다음으로 동일한 단위로 환산하지 않은 순 이전소득의 크기 면에서 보자면, 50% UBI-FIT Model(월 450만 원)=개인 단위 지급 NIT 제도(월 450만 원)>가구 단위 지급 NIT 제도(월 150만 원)가 된다. 이러한 차이를 간과한 채, 총 이전소득의 크기만을 기준으로 가구 단위 지급 NIT 제도가 개인 단위 지급 NIT 제도나 개인소득세-기본소득 모형보다 빈곤이나 소득불평등 개선에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각 지급방식의 행정비용/행정부담, 젠더효과, 심리적 행태적 효과 등에서의 차이를 잠시 무시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각 지급방식의 행정비용/행정부담, 젠더효과, 심리적 행태적 효과 등에서

의 차이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과 NIT의 다양한 모형의 정책효과를 비교할 때 기준이 되어야 할 예산은 명목예산이나 총비용이 아니라 바로 순비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과 NIT를 최소보장소득을 지급하는 서로 다른 방식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두 제도를 특징 짓는 핵심 변수는 최소보장소득(소득이 0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장소득의 액수) G와 소득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 t이지 전체 명목예산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더라도, 동일한 명목예산 하에서 기본소득과 NIT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아울러 이러한 설정은 NIT가 갖는 이중성, 즉 NIT 수급층은 손익분기소득과 자신의 소득의 차이의 일정 비율(NIT 세율)을 NIT 급여로 지급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추가 소득을 얻을 경우 실질적으로 NIT 세율에 적용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셈(NIT 수급액이 감소하는 셈)이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한다. 곧 전자에만 주목한 채, 후자는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NIT에서 NIT 수급층은 ‘수급의 대상’으로서의 특성이 전면에 드러나는 반면, ‘납세자’로서의 특성은 체계적으로 가려진다. 반면 NIT와 경제학적으로 동등한 기본소득에서는 NIT에서 NIT 수급층이었을 저소득층의 경우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이자 소득 발생 시 ‘기본소득 제도를 위해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는 특성이 동시에 드러난다. 즉 NIT에서 NIT 수급층은 지원을 해야 할 ‘정책의 대상’이라는 특성만이 부각되는 반면, 기본소득에서 순수혜충은 결과적으로 ‘정책의 수혜충’이기는 하지만 ‘동등자(동등한 시민)’(토리, 2020: 49~57), 혹은 더 정확하게는 ‘공유자’(금민, 2020: 4장)로서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부상한다. 따라서 경제학적으로 동등한 기본소득과 NIT에서 누군가는 기본소득 편을, 누군가는 NIT 편을 더 선호한다면,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빈곤층/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시각에서의 이러한 차이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둘째, 정책 도입 시 요구되는 이전소득액과 과세액을 일치시키는 재정중립적 시나리오에 입각할 때에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효과 분석이 가능하다.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도입 시 거의 모든 소득 계층에 걸쳐 세부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며, NIT의 경우에도 손익분기점 소득을 초과하는 양의 소득세 구간에 속하는 소득계층은 세부담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분배효과 분석에서 과세방안 및 과세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물론 전체 소요예산 중에서 일부는 기존 복지급여의 대체/조정으로 마련하고 나머지는 개인이나 가구 이외의 경제 주체로부터 마련한다고 가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전자와 후자의 분배효과가 명시적으로 반영되어야만 정확한 분배효과 분석이 가능하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전자의 분배효과를 반영할 수는 있었지만, 후자의 분배효과는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재정중립적 시나리오에 입각하지 않음으로써 현실적으로 도입되리라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도 분석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재산기준 없는 NIT’와 예산 2의 조합, ‘재산기준 있는 NIT’와 예산 2의 조합이다. 월 30만원 UBI 지급 시 소요되는 예산을 의미하는 예산 2를 NIT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선정기준소득이 전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163% 수준에, 후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186% 수준에 달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인정소득이 0인 수급층의 경우, ‘재산기준 없는 NIT’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의 81.5%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재산기준 있는 NIT’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의 93%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받는다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상정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인정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연 180~181조 원의 대규모 예산 가정 시 NIT가 대다수 국민의 소득을 기준중위소득 8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분석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비현실성은 너무 높은 최소보장소득과 순수혜충의 비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2019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가구소득의 평균은 5,828만 원, 중위수는 4,567만 원으로 평균이 중위수의 약 1.27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19: 표 4-1). 현실에서 기준중위소득이 중위소득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잠시 둘이 거의 같다는 가정 하에 이러한 수치를 이용해보면, 기준중위소득의 163%와 186% 수준은 각각 평균소득의 약 1.277배, 1.458배에 상응한다. 모의실험에서 NIT 세율이 50%이고 선정기준소득이 각각 평균소득의 약 1.277배, 1.458배에 해당하므로, 인정소득과 시장소득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재정중립적 시나리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양의 소득세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NIT 세율인 50%보다 (상당히) 높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존의 소득세 체계 위에 NIT 체계가 추가되는 형태라면, 양의 소득세 구간에서 추가적인 50% 이상의 세율 적용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 않고, 만약 NIT 체계가 기존의 소득세 체계를 전면 혹은 상당히 대체하는 형태라면, 그것이 어떠한 형태가 될 것인지 분명히 밝히고 그것이 초래하는 분배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재정중립적 시나리오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특히나 유의미한 액수의 기본소득이나 NIT와 같이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예산 마련 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기 전에는 실제 정책 도입도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셋째, 인정소득의 구성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빈곤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NIT 제도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가구의 경제력을 더 잘 파악하는 형태로 소득을 정의하는 것이다(Tobin, Pechman and Mieszkowski, 1967; Tobin, 1968). 소득의 정의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인정소득에서 귀속임대료의 고려와 NIT 지급액을 결정하는 데에서 순자산의 고려라 할 수 있다(Tobin, Pechman and Mieszkowski, 1967). 이 모의실험에서는 귀속임대료가 고려되지 않았으며 순자산은 중위수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NIT 수급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형태("all or nothing")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인정소득 개념을 아예 적용하지 않으면 모를까 인정소득 개념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두 가구의 소득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자가가구나 임차가구냐에 따라서 주거서비스의 향유나 주거서비스 이용을 위한 지출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인정소득에서 귀속임대료를 고려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Tobin, Pechman and Mieszkowski, 1967: 12). 순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가구를 NIT 수급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형태는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판정선을 중심으로 그것을 약간 넘는 가구는 NIT 수급에서 완전 제외되는 반면 그것보다 약간 모자란 가구는 계산된 NIT 수급액을 모두 받게 된다는 등급 효과(notch effect)를 낳는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며, NIT를 받을 목적으로 자산을 탕진하거나 양도하거나 은닉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Tobin, Pechman and Mieszkowski, 1967: 12).

여기서 두 가구 중 하나는 순자산이 순자산 기준선을 약간 하회하고 다른 하나는 약간 상회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만약 두 가구의 인정소득이 모두 선정기준소득에 약간 미달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NIT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기는 하지만 전자 역시 소액의 NIT 급여를 받게 됨으로써 공정성 문제가 덜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두 가구의 인정소득이 모두 매우 낮은 경우에는, 전자는 NIT 최대급여액에 가까운 NIT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후자는 NIT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공정성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위의 모의실험에서 적용했던 “all or nothing” 방식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의 순자산공제액을 설정한 후 그것을 넘어서는 만큼의 순자산에 대해서 일정 세율(예: 10%)을 부과하여 NIT 지급액에서 상쇄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더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Tobin, Pechman and Mieszkowski, 1967: 18).

참고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는 인정소득 혹은 소득평가액이 매우 낮으나 순자산이 순자산 기준선을 약간 넘는 가구는 실험집단에서도 비교집단에서도 모두 배제되기 때문에,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신청했으나 탈락한 가구들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제공되지 않는 한 위에서 제기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발생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모의실험에서 활용했던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 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구축하는 재정패널조사 데이터 등의 다른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all or nothing” 형태의 순자산 기준 적용이 갖는 다양한 차원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넷째, 재산기준 없는 NIT와 재산기준 있는 NIT의 정책효과를 비교하는 방법에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모의실험에서는 명목예산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재산기준 있는 NIT의 경우에 재산기준 적용으로 인해 탈락하는 가구들의 발생으로 인하여 재산기준 없는 NIT에서보다 선정기준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선정기준소득이 예산 1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의 71%에서 75% 수준으로, 예산 2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의 163%에서 186% 수준으로, 예산 3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의 85%에서 92% 수준으로, 예산 4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의 79%에서 85%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NIT 제도에서 핵심 모수가 최소보장소득의 액수, NIT 세율, 손익분기점 소득의 액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Henderson, 1971; Sommer, 2016: Ch.3), 실제로 정책 도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진지하게 고려될 법한 사안은 동일한 명목예산 하에서 이 모든 핵심 모수를 변화시키는 형태보다는, 핵심 모수가 결정된 상황에서 재산기준을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적용한다면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곧 핵심 모수는 정해진 상황에서, 특정 재산기준을 적용할 경우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말이다.

다섯째, 급여효율성 분석의 독자적인 정책적 함의가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왜냐하면 대상포괄성을 보기 위한 수급률, 급여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니계수, 빈곤율, 빈곤갭비율을 분석하면, 급여효율성 분석의 필요성은 크게 줄어든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총 급여액 중 빈곤갭 감소에 사용된 금액의 비율과 수급률은 비록 둘의 곱이 상수인 형태의 완전한 반비례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특정 예산액이 빈곤갭 감소에 기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보다는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은 급여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니계수, 빈곤율, 빈곤갭비율 분석 및 전체 비용(명목예산 혹은 총비용보다는 순비용이 더 적합함)과의 비교를 통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급여효율성 분석의 실익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다.



끝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소득불안정성의 연간 단위 파악이 갖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더 높은 계층에 비해 소득변동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장효진, 2015: 221~222). 그런데 월별 소득변동성은 연간 소득변동성보다 더 클 것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둘 간 괴리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하위 20% 소득자의 74%가 30% 이상의 월별 소득 변화를 체험하였음을 보여준다(JP Morgan Chase and Co. Institute, 2016). 따라서 저소득층의 소득불안정성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연간 소득변동성뿐만 아니라 월별 소득변동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NIT 제도가 월 단위로 수급 판정, 수급액 계산 및 지급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취할 경우, 월별 소득변동성의 파악은 특히나 더 중요하다.

## 나가며

“서울시민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 주요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기본소득과 NIT의 정책효과 비교방법 등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한 이 글이 기본소득과 NIT의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비교하는 데, 그리고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실험과의 비교 목적의 모의실험을 수행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국가지표체계(2022). “소비자물가상승률”. 통계청. [9월 5일 최종접속]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6>
- 금민(2020).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지금 바로 기본소득』. 서울: 동아시아.
- 김은주(2022). “안심소득 드디어 시작!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를 기대해”. 《내 손안에 서울》. [7월 5일 발행] [9월 5일 최종접속]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4991>
- 내 손안에 서울(2022). “‘안심소득 시범사업’ 닷 올랐다...11월 500가구에 첫 지급”. 《내 손안에 서울》. [7월 4일 발행, 7월 5일 수정] [9월 5일 최종접속]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4988>
- 서울복지포털(2022). “안심소득 시범사업”. 서울복지포털. [9월 5일 최종접속] <https://wis.seoul.go.kr/hope/safeSalary.do>
- 서울연구원(2022). 『“서울시민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서울: 서울연구원.
- 이건민(2022a).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는 어떻게 다른가”. 계간 <기본소득> 11. pp.44-51.
- 이건민(2022b).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 비교에 대한 비판적 평가: 두 가지 사례에 대한 응답”. 계간 <기본소득> 11. pp.107-117.
- 장효진(2015). “한국의 사회적 위험관리와 가구의 소득변동성”. 『사회보장연구』 31(1). pp.205-231.
- 토리, 말콤(2020). 『시민기본소득: 기독교적 사회정책』. 서울: 도서출판 해남.
-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2019). “[보도자료] 2019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19년 12월 17일 공보 2019-12-22호] [9월 5일 최종접속]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5404&menuNo=200690>
- Henderson, B. F. (1971). “The Relief of Poverty: Negative Income Taxes and Other Measures”. *Economic Record* 47(1). pp.106-114.
- JP Morgan Chase & Co. Institute (2016). Paychecks, Paydays, and the Online Platform Economy: Big Data on Income Volatility. JP Morgan Chase & Co. Institute. [February 2016]
- Sommer, Maximilian (2016). A Feasible Basic Income Scheme for Germany: Effects on Labor Supply,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International Publishing Switzerland: Springer.
- Tobin, James, Joseph A. Pechman and Peter M. Mieszkowski (1967). “Is a Negative Income Tax Practical?”. *The Yale Law Journal* 77(1). pp.1-27.
- Tobin, James (1968). “Comment: A Model Negative Income Tax Statute”. *The Yale Law Journal* 78(269). pp.269-337.



# 기본소득은 여성의 해방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최유미 수유너머104 연구원

## 1. 쓰디쓴 패배, 스위트 홈

기본소득은 여성의 해방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기본소득은 기후격변으로 위기에 처한 복수종의 좋은 삶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여성의 해방과 복수종multispecies의 좋은 삶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 글은 이 물음들에 관한 것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홈페이지는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회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sup>1)</sup> 정의한다.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기본소득이라면 이 돈이 여성에게 더 특별한 가치가 있을까? 게다가 인간이 아닌 복수종의 삶에 그것은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적어도 기본소득은 취약한 삶을 사는 여성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러저러한 기존의 복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서의 이야기다. 안전장치가 하나 생겼다고 여성해방 운운하는 것은 과한 일이겠지만 모든 여성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생긴다는 것, 더욱이 노동과 무관하게 그것이 생긴다는 것은 숙고할 가치가 있다. (물론 모든 남성들에게도 생기는 소득이지만 그들의 일은 그들이 알아서 생각하라고 두자) 왜냐하면 여성의 삶이 극도로 취약해진 것은 자신의 생계를 전적으로 남성 가장에게 의존하는 핵가족, “스위트 홈”이 생기고 나서부터이기 때문이다.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그 배우자와 직계 식솔들이 한 집에 거주하는 이른바 ‘핵가족’모델은 근대 부르주아의 발명품이고 그런 생활양식이 하층민으로 확산된 것은 무자비한 폭력을 통해서였다. 우리는 통상 사회적 구속에 대한 개인의 승리로 근대를 평가하지만 역사학자 아리에스는 “승리한 것 그것

1)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홈페이지

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가족<sup>2)</sup>이라고 쓴다. 부르주아는 자신들의 계속성과 자본주의의 계속성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삶의 양식, ‘스위트 홈’이라는 것을 발명한 것이다. 이런 가족모델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후손(아들)이 전문 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온갖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이를 위해 “수동적이고 순종적이고 알뜰하고 말이 적고 항상 바빠 일하고 순결한 여성이자 아내라는 모형<sup>3)</sup>이 만들어졌다.

『3기니<sup>4)</sup>』에서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가 자신과 같은 계층의 여성을 지칭하기 위해 “부르주아의 딸” 대신 “교육받은 남성의 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여성들의 남자 형제에게는 고등교육을 받아 전문직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많은 돈이 투자되었지만 자신들은 교육이나 환경면에서 전혀 부르주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 교육받은 남성의 딸들은 부르주아 경제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자원이었다.

그 유명한 엔클로저를 통해 도시의 부랑자가 된 하층민과 프롤레타리아트가 이런 가족 모델을 따라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불안정한 삶을 사는 그들에게 자식은 전혀 보험이 될 수 없었고 남성 가장 혼자 식솔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와 교회의 강제력을 통해 혼전 성관계나 혼외 성관계는 범죄로 처벌되었고 낙태죄가 신설되었으며 이전에는 이단을 척결하는 수단이었던 마녀사냥이 여성들의 임신출산 통제력을 순치(馴致) 시키는데 사용되었다. 마녀사냥의 가장 흔한 죄목이 영아살해였다는 것이 이를 시사한다.

여성들은 공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촌락 공동체에서 나이 많고 현명한 여성들을 통해 비교적 안전한 낙태술과 피임법을 전수받아 임신출산의 부분적인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양육에 있어서도 공동체를 통한 공동의 돌봄이 가능했다. 엔클로저와 마녀사냥은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파괴했다. 이제 여성들은 공유지 중심의 촌락공동체에서 뺏겨져서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개별 가정에 고립된다. 이들의 임무는 노동자를 재생산하는 무상의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비아 페데리치를 비롯한 페미니스트들은 마녀사냥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시초축적이라고 주장한다.

자신의 생계를 남성 가장에게 의지하는 ‘스위트 홈’은 수많은 여성을 불태워 죽이고 나서야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었고, 그것은 여성을 더욱 취약한 위치로 떨어뜨렸다. 이것은 여성들의 쓰디쓴 패배다. 이에 페데리치는 오늘날의 여성들 삶과 장원경제의 여성 농노를 비교하면서 “여성 농노는 후일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로운 여성보다 남성 친족에게 덜 의존했고,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덜 차별받았으며, 남성의 필요에도 덜 종속되었다<sup>5)</sup>”고 쓴다. 여성의 경제적 의존성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을 박탈한 이후에야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었고, 그것은 여성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2)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그린비, 2007, 310쪽(재인용).

3) 실비아 페데리치, 『캘리번과 마녀』, 황성원, 김민철 역, 갈무리(2017), 168쪽.

4) 버지니아 울프, 『3기니』, 세계문학전집 130, 민음사, 2006; 『3기니』는 한 신사가 울프에게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설정하고 그에 대한 답신을 쓴 에세이다.

5) 실비아 페데리치, 51쪽

## 2. 여성의 돈

『3기니』에서 버지니아 울프는 신사에게 이렇게 말한다. “게다가 우리는 둘 다 생계비를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개의 점은 우리 사이의 간극을 나타냅니다.”<sup>6)</sup> 울프는 그 심연이 너무 깊이 패어 있어서 그것을 가로질러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 3년이 넘도록 답신을 보내지 못했다고 쓴다. 울프의 이 진술에 오늘날의 남성들은 반감을 가질지도 모른다. 대학교육은 시험을 통과하고 등록금을 낼 수 있으면 성별 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전문직에서 여성의 비중은 현저히 높아졌으며 명시적인 임금차별은 법으로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이터는 다른 것을 말한다. 2017년 OECD 회원국의 성별 빈곤률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경제가 심하게 위축된 2020년 2분기 국내 남성의 실업건수는 16만인데 비해 여성의 실업건수는 25만이었다.<sup>7)</sup> 여성들의 일자리가 훨씬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심연이 있다. 울프가 지적했듯이 우리 중 일부는 저 교육받은 남성들의 행렬 뒤를 어슬렁거리며 따르고 있거나 혹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행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장의 생계비를 벌충하느라 불안정한 고용시장을 전전하고 있다.

『3기니』에서 울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신사는 교육받은 남성의 딸이 전쟁방지를 위해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기에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생계비를 벌지 않는 주부나 교육받은 남성의 딸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전쟁방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신사의 요청에 울프는 우선 1기니를 여자 대학의 재건에 쓰겠다고 답한다. 그리고 그것이 전쟁 방지라는 대의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길게 설명한다.

처음에 울프는 기부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1기니의 용처에 대한 조건을 붙이려고 했다. 울프가 보기에 전쟁방지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학은 기존의 낡은 대학과는 아주 달라야 했기 때문이다. 젊고 가난한 이 대학은 “부자와 가난한 자, 똑똑한 자와 어리석은 자라는 하찮은 차이로 구분되지 않고, 온갖 부류의 다양한 차이를 가진 마음과 몸과 영혼이 만나서 협력하는 곳”이어야 하고, “학문 그 자체를 추구”하고 “학위도 없고 강의나 설교도 하지 않는” 곳이어야 전쟁방지라는 대의에 부합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울프는 학위가 없으면 여성이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인다. 우선 자신의 생계비를 벌 수 있어야 여성이 “순결한 여성이자 아내”를 위한 자원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에게 이것은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생계비를 벌기 위한 여성들의 각고의 노력은 결국 기존의 파괴적 질서에 자신을 편입시키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안에서 닥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기회균등을 위한 여성들의 싸움 덕분에 우리는 교육 받을 자유를 얻었고, 적지 않은 여성들이 남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스위트 홈에 포섭되지 않으려 저항했던 교육받지 않은 여성들, 불에 타 죽은 마녀들을 잊어버렸고, 그 결과 가족이라는 자본주의 재생산

6) 버지니아 울프, 177쪽

7) 『월간 노동리뷰』, 2020년 8월호, 87-88쪽

체제가 우리에게 무엇을 받아왔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는 못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외친 기회 균등이 무엇을 위한 기회인가를 진지하게 묻지도 못했다.

울프는 조건 없이 1기니를 여자 대학의 재건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당초에 울프가 생각한 대로 자신의 1기니를 기존의 질서에 복무하는 대학을 불태워버릴 ‘넝마, 가솔린, 성냥’을 사라는 조건을 달아야 했다. 그랬으면 교육받은 남성의 딸들은 교육받은 남성들의 뒤를 따르는 것을 해방이라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교육받은 남성의 딸들은 교육받지 않은 딸들인 불에 타 죽은 탄 마녀들과 그들의 복수종 반려들의 일과 놀이를 ‘기억(remember)’하고 그들과 ‘다시 멤버(re-member)’가 되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육받은 남성의 딸인 울프도 울프의 딸들인 우리도 생계비를 버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고 그 대가는 크다. 울프 자신이 그토록 끔찍하게 생각했던 부르주아 가족은 생계비를 벌려고 고투하는 여성들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스위트 홈으로 포장되어 노동에서 여성의 차별을 교묘하게 정당화했고, 옛 여성들, 마녀들이 그들의 복수종 반려들과 함께 만든 동맹의 그물망은 대부분 끊어지고 말았다.

### 3. 기본소득을 위한 사변적 우화

기본소득이 이 답답한 구도를 깰 수 있을까? 그것이 ‘스위트 홈’을 불태워버릴 수 있을까? 2020년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비혼인구가 5년 전에 비해 30만 명이 늘어났고, 여성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비혼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트 홈’의 신화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자신의 생계비를 안정적으로 벌 수 없는 저학력 여성에게 비혼은 아직 먼 이야기이고 결혼을 하건 하지 않건 노동에서 한 번도 놓여나지 못한다. 가족을 위한 무상의 노동을 제공해야 하고, 부족한 생계비를 벌충하기 위해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무능력을 증명하지 않아도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이들을 전혀 스위트 하지 않은 ‘스위트 홈’ 바깥으로 불러낼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의 상품경제를 돌아가게 하는데 쓰일 공산이 크다. 또한 그 때문에 기본소득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크다. 모든 가구에게 지원된 재난지원금의 정당화 논리는 경제 활성화였고, 잠시지만 그 효능을 체감하기도 했다. 그러나 1회성이거나 이벤트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속적으로 지급된다면 우리 여성들이 스위트 홈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시도해볼 틈이 열리는 것 아닐까? 가령, 울프가 진정으로 소망했던 젊고 가난한 대학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기술이나 토지나 자본을 획득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수종과의 협력과 돌봄을 배워온 온 세상 마녀들의 비법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노동에 특권을 부여하는 도덕주의자들은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빈둥거리게 할 거라고 걱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과 노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생계를 꾸리는 모든 일을 임노동으로 환원하기 위해 복수종의 협력적 동맹으로 만들어진 공유지가 몰수되었고 수많은 여성들이 불태워졌다. 이와 더불어

여성들이 생계를 꾸리기 위해 복수종과 함께 해온 일과 놀이 또한 파괴되었다. 이를 잊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여성의 해방은 복수종의 풍요와 따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은 무한한 풍요와 제한 없는 자유가 있는 우리만의 세상이 아니라 복수종과 부분적으로 공유 가능한 세상이고 이를 위해 우리는 유한한 풍요와 한정된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는 자본의 이익추구를 위해 동원되거나 삭제되었던 비인간 복수종이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그들은 다시 동맹의 그물망을 만들기 시작했고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선 이 동맹의 그물망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스위트 홈’을 태워버릴 ‘녕마, 가솔린, 성냥’을 마련하는 것이다. 노동자를 재생산하는데 모든 것을 갈아 넣어야 하는 스위트 홈이 불타버린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일굴 수 있을 것이다. 노동력을 팔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기본소득은 ‘스위트 홈’을 태워버릴 ‘녕마, 가솔린, 성냥’을 마련하는데 쓰여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일과 놀이로 생계를 해결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쟁취해 낸다고 해도 정부에만 기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알다시피 그들은 쉽게 배신한다. 그 때문에 기본소득은 우리가 다른 삶의 방식을 실험하고 정착시키는 시간을 버는 용도로만 짧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 빨리 쟁취하자. 그러나 우리의 이 기획은 비밀로 하자. 기본소득은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고, 당신들이 좋아하는 노동의 유연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크게 떠들면서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자. 그러면 억울하게 불타 죽은 마녀들도 함께 일어나 춤출 것이다.

## 기본소득이 내게 주는 의미들

### 이권능

기본소득당 동물권생태의제기구 어스링스 운영위원

가장 진전된 사회보장과 복지국가의 구축을 학문적 운동적 목표로 삼는 본 저자가 기본소득을 처음 접하고 느낀 감정은 깊은 당혹감이었다. 기본소득은 일종의 소득보장제도로 읽혔기에, 소득보장체계가 이미 자리 잡은 서구 유럽의 나라들은 기본소득을 필요로 할까? 이 제도는 기존의 소득보장체계를, 더 나아가 사회보장체계 자체를 대체하려는 시도인가? 19세기 중반의 노동보호를 위한 사회입법들과 19세기 말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등으로 성립된 복지국가는 지난 150여년간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기본소득제도로 대체하려는 것은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이라고까지 여겨졌다.

하지만 기본소득론을 조금씩 더 이해할수록 내게 주는 긍정적 신호는 커져갔다. 복지국가의 한계를 고민하던 나는 기본소득론이 기존 복지국가에 제기한 문제들의 대부분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신자유주의가 낳은 부정적 효과들에 대한 비판도 복지국가론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노동중심으로 구축된 기존의 사회보장체계는 변화하는 노동의 조건과 형태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완전고용이 최선의 선택인지도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생계유지를 위해 돈을 버는 노동에 묶이고, 자신이 원하고 일을 하는 작업으로서의 노동이 잊혀지는 것은 근본적 문제 중 하나이다. 노동이 탈상품화 되지 않는 이상, 자유는 크게 구속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특히, 기본소득의 철학과 기존 제도들과의 연계 노력은 제도의 새로운 구성과 체제전환에 대한 사회학적 철학적 상상의 폭을 넓혀 주었다. 미래의 노동은 달라져야 한다는 문제의식, 노동의 전환을 위한 기본적 생계의 온전한 보장, 생태 중심의 체계 변환, 소비 축소를 통한 삶의 중심잡기 그리고 이들을 관통하는 개인적



자유의 진전된 실현 등이 상상의 토대를 제공했다. 무엇보다도 상상은 복지국가와 동시에 기본소득론에 대한 의미 있는 질문을 낳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새로운 제도들과 제도들의 운영 원칙들을 조금씩 정교하게 만들고 있다.

그간 들어난 질문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우선 사회보장체계가 잘 구축된 서구 유럽의 나라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토대를 갖고 있는가이다. 2017년 기준 OECD 자료 중 공공사회지출 현금급여의 1인당 지급액을 보면, OECD 평균은 매달 862,755만원(2017년 미달러 평균환율인 1130.48원 적용)이고, 사회보장의 성숙도가 더 높은 북유럽 나라들은 매달 1,300,000원에서 1,500,000원 정도이며, 독일, 프랑스 등의 대륙국가들은 1,260,000원에서 1,400,000원 정도이다. 전체 현금급여에서 33-44%를 차지하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현금급여를 제외하더라도, 1인당 현금급여액은 어림잡아 1,000,000원 전후에 이른다. 기본소득이 목표로 상정한 ‘기본적 생계의 유지를 위한 현금급여’는 어쩌면 이들 나라에서는 이미 다른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이 제도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음을 설득할 보다 각별한 논리가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기존의 사회부조제도에 대한 비판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체계에서 사회부조가 담당하는 비중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체 사회지출의 5-8%를 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사회부조제도 자체가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원칙들에 모순되는 바들을 많이 갖고 있다. 어찌 보면, 사회부조제도는 사회보장이 아니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론이 제기하는 사회부조제도에 대한 비판은 복지국가론에 별다른 타격을 줄 수 없다. 오히려 복지국가는 사회부조제도를 폐지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바로 이 지점에서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의 접점이 마련될 수 있다.

소득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낳는다. 인간에게 있어, 소득은 얻은 수입 자체가 아니라 그 수입으로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의식의 해결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그리고 교육이나 여가활동에 소요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돈을 번다. 결국 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을 가지고서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와 필요의 충족이 최종 목적이 된다. 그렇다면 욕구와 필요의 충족을 위한 다양한 방식과 도구들은 소득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된다. 즉 현물을 제공하여 소득이 사용될 여지를 없애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소득의 기능을 하는 것이 된다. 이를 받아들이면, 소득보장의 폭은 매우

넓어지게 된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소득보장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질문은 자유를 둘러싸고도 야기된다. 기본소득론은 제공되는 급여를 임의적으로 사용할 자유와 이 급여들로 인해 확보될 자유를 동시에 강조한다. 기본소득 급여는 ‘기본적 생계유지’를 목표로 하기에, 이것이 달성되어야 이를 토대로 형성되는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강제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급여의 임의적 사용으로 인해 ‘기본적 생계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일차적으로는 제도의 목표달성이 실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목표달성의 실패는 해당 사회구성원에게 고통과 불행에 선사할 것이고, 이런 상황의 해소를 위해 또 다른 사회적 급여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기본소득 급여라는 토대 위의 형성된 자유는 기본소득제도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 토대 위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정책들은 사회구성원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각 선택이 자유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채워져야 한다. 물론 기본소득제도가 정치체계, 경제체계, 문화체계 등과 연계될 때에는 기본소득의 원리와 원칙이 일관성 있게 통용되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기본소득론은 보다 포괄적인 복지국가의 개혁과 접점을 만들 수 있다고 여겨진다.

기본소득이 우리에게 주는 비판과 상상은 기본소득론이 제시하는 내용들의 단순한 수용에 있지 않고, 그 내용들에 질문을 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기본소득론을 보다 세밀하게 만들고 동시에 기존 복지국가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들을 제공한다. 다소 고루하기는 하지만 변증법적 융합도 가능해 보인다. 이러한 융합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특히 그러한 자유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일조하리라는 기대가 있다.

## 기본소득과 나

최승호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기본소득’과 ‘나’는 어떤 관계일까?

청년기에는 애정 가득했던 주제였으며, 이것이 사회변혁으로 나아가는 열쇠라는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돌이켜 보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이 주제로 연대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막상 원고청탁을 받고 보니, 50대 후반 연구자로서 굴곡이 심했던 연구주제의 편력(遍歷)과 경험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간다.

전공을 바꾸어 사회정책을 공부하겠다는 생각으로 독일 유학길에 올랐던 배경에는 기억 속의 몇 장면이 있다. 시기는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노점상 철거작업이 진행되던 때였다. 당시 나는 서울역 뒤편 서계동에 살았는데, 학교와 집을 오가는 길목에 한 평 남짓 천막에서 붕어빵과 튀김을 파는 포장마차가 있었다. 중년의 아주머니는 중학생쯤으로 보이는 아들과 함께 어스름 저녁부터 나와서 그다지 팔리지도 않을 듯한 음식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노점상 단속 때문인지 어느 때부터인가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아주머니와 아들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니 말할 수 없는 존재의 나약함과 초라함이 느껴지곤 했다. 나도 한때 복권과 버스표 등을 파는 거리의 간이매표소에서 잠깐 아르바이트했던 경험이 있는데, 왜 그리 서글프고 초라한 기분이었는지 이러한 감정이 이입된 느낌도 있었다.

80년대는 사회과학의 시대로 거리의 반독재 타도 투쟁과 노동 및 사회운동의 이념적 논쟁이 왕성하던 시기였다. 나는 거리의 투쟁이나 사변적인 이념 논쟁보다 실생활 속의 삶의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국가가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고 싶었다.

1991년에 독일로 넘어가 전공을 바꾸어 학부부터 시작하여 석사를 마칠 때

좁은 한국에 IMF가 닥쳤던 시기였고 그 여파도 겪었다. 박사과정에서는 지도교수가 독일 기본소득의 원조학자였기에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물을 많이 접했고 이해를 넓혔다. 2002년에 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이 주제로 계속 연구하고 싶었지만, 정규직을 얻기까지 이리저리 오가며 한국 사회에 적응 기간을 거쳤다. 한국연구재단 프로젝트 ‘생태공동체’ 관련 연구를 한신대에서 3년간 연구교수로 수행했다. 생태적, 사회적 삶이란 그리고 사회변혁에 대한 사고는 기본소득 주제와도 직접 연결되므로 나에게는 좋은 기회였고 인식의 지평도 넓혔다.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너무 앞시간 주제였기에 후속 과제로 연결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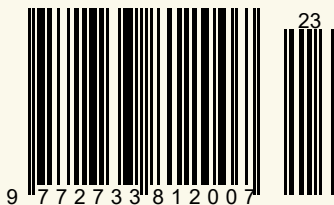
그 후 정규직 연구원 생활을 하며 지역사회와 관 조직이 요구하는 주제에 맞추어 작업하다 보니 남들도 마찬가지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주제를 다루어야만 했다. 기본적인 마인드와 가치, 지향점은 변한 것이 없지만, 양적인 실적과 보여주기식 과제수행에 집착하는 주변 풍조에서 제대로 된 연구자와 학자 찾기가 쉽지는 않았다. 기능적인 연구 방법에 익숙한 한국 학계의 풍토도 그렇고 성과와 치적 쌓기가 우선되는 지자체장의 정책 마인드도 그렇고 공통 주제로 같이 고민하며 논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았다. 한국 사회가 그렇듯이 고민과 성찰보다는 빨리빨리 내어놓는 실적이 더 중요하니 말이다.

최근 한 모임에서 지역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에게 들은 사연이 생생하다. 한 분이 상담을 왔는데 직장을 구하기 위해 면접을 보고 합격했는데 채용 공고와는 달리 사업주가 내놓은 계약서에는 주 72시간(주 6일, 하루 12시간)을 요구했다며, 이런 계약을 해도 되는지 문의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사무국장은 법정 52시간 초과라 법에 저촉된다고 했는데, 내담자는 가족의 생계 때문에 이렇게라도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단다. 직장을 잡기도 어려우니 계약서에 서명해도 문제는 없지 않느냐고 말이다. 아마도 영세한 업체일 것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을 늘려서라도 더 벌어야만 하는 상황일 것이다.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지는 이러한 경우를 보면 간단한 답을 얻을 수 있다. 무지막지한 노동시간을 견뎌서라도 생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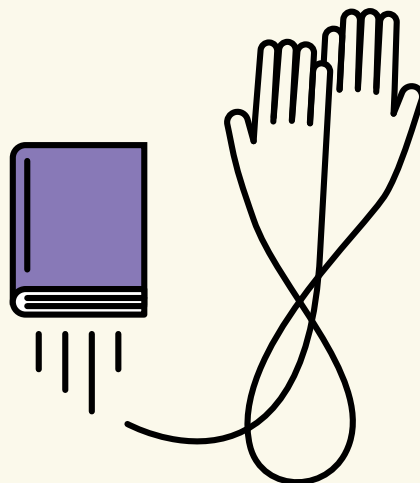
앞에서 든 88올림픽 즈음 나의 경험이나 최근 지역노동인권센터의 상담사례에서처럼 과거나 현재도 왜 기본소득보장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 기본소득보장이나 복지급여 상승이 게으름과 나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거나 경기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논리는 그만 펼치면 좋겠다. OECD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1위,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파산, 청년실업 등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 위기,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전쟁과 기아로 인한 세계 곳곳의 난민, 소득 불평등 심화, 기술 발전에 의한 실업, 암울한 미래세대의 미래, 그리고 국가 간 경쟁이 심화하고 사회적 위험의 수위는 높아가는 현실에서 이전이나 지금이나 사회적 연대를 통한 생태적, 사회적 삶의 추구가 이성적인 답임에도 우리는 아직도 경쟁 논리에 집착해 있다.

노동중심적 복지국가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노동이 그대들을 삶의 질곡으로부터 해방하는가? 왜 유독 한국 사회에서 삶의 무게가 고달프고 무거운가? 한국인은 어느 국가보다 더 무지막지한 경쟁사회에서 살고 있다.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9 772733 812007  
ISSN 2733-8126



2022 가을  
#013  
가을  
소식